

# 大韓齒科醫史學會誌

Korean Journal of the History of Dentistry

2020

大韓齒科醫史學會誌 제39권 제1호 통권 44호 2020년

제39권 제1호 통권 44호

- 일제강점기의 치의학과 그 제도의 운영
  - 신재의
- 잇금에서 임금으로, 임금님의 궁궐에서 잇금의 배움터로  
(저경궁과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
  - 이해준
- 세계 치과 명화 여행 : 영국(1)
  - 권 훈

제  
39  
권  
  
제  
1  
호  
  
통  
권  
44  
호  
  
2  
0  
2  
0

大韓齒科醫史學會발행



大韓齒科醫史學會

The Korean Academy of Dental History

1960년 10월 7일 창립

ISSN 1226-9638

# 大韓齒科醫史學會誌

Korean Journal of the History of Dentistry

2020

제39권 제1호 통권 44호

大韓齒科醫史學會

The Korean Academy of Dental History

1960년 10월 7일 창립



독립운동가 노선경 초상화  
Drawn by 정지영(조선 치대 28회)

#### <표지그림 설명>

#### 노선경(盧善敬, 1893~1993)

- 1893년 황해도 송화 출생(상해 임시정부 국무총리 노백린 선생의 장남)
- 1915년 평양 송실학교 재학 중 '조선국민회'에 가담하여 독립운동
- 1918년 2월 평양경찰서에 체포되어 옥고를 겪음
- 1918년 신흥무관학교 졸업
- 1919년 대한독립단 가입하여 3.1운동에 참가
- 1919년 만주 유하현 대석탄학교에서 군사강습소 운영
- 1920년 학생 모집과 군자금 조달을 위해 국내로 잠입도중 체포되어 신의주 형무소에서 3년간 복역
- 1927년 4월 경성치과의학교 졸업(3회)
- 1927년 7월 조선총독부 치과의사 면허번호 147번
- 1945년 육사(특) 8기로 임관
- 1953년 대령으로 예편
- 1969년 12월 이전개원 회치과(서울 성북구 미아동)
- 1971년 6월 이전개원 동신치과(서울 성북구 미아동)
- 1976년 3월 폐업 상신치과(서울 도봉구 미아동)
-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 수여
- 1993년 별세

---

##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2020년 3월 코로나 19 최초 지역 집단 감염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시행 영향으로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일상 변화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도 대한치과의사학회 발전을 위하여 열정과 노력을 다하는 회원 여러분의 노고에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대한치과의사학회는 1960년 10월 7일에 창립 이후 인간의 역사 속에서 치의학의 역사를 조명하여 인간적인 치의학과 의료 행위를 구현하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술대회 개최와 학회지 발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역대 고문님, 회장님, 임원님, 관련 기관, 회원 여러분의 헌신 덕택입니다. 이에 저는 모든 회원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본 학회는 치의학에 관한 역사의식과 인문학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정기적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인문학적 소양을 얻을 수 있도록 관련 도서들의 출간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더불어 학회의 발전과 회원 간의 소통 강화를 목적으로 이사회와 집담회,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치의학의 역사를 돌아보고 체계적으로 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0년 대한치과의사학회지에서는 일제강점기 한국 치의학의 상황을 돌아보았고 미국 치과박물관의 현황과 역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 학회는 치의학 역사의 과거로부터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발전해야 할 것입니다.

2020년 12월  
대한치과의사학회 회장 김희진





# 목 차

일제강점기의 치의학(齒醫學)과 그 제도의 운영 .....	1
신재의(Shin, Jae-Ui)	
잇금에서 임금으로, 임금님의 궁궐에서 잇금의 배움터로 (저경궁과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 .....	29
이해준(Lee, Hae Joon)	
2020년 세계 치과 명화 여행 : 영국(1) .....	51
권 훈(Kweon, Hoon)	



# 일제강점기의 치의학(齒醫學)과 그 제도의 운영

신 재 의  
Shin, Jae-Ui

1. 머리말
2. 치의학의 도입
3. 제도와 교육
4. 치과의사회의 설립과 활동
5. 치과의학회의 설립과 활동
6. 맺음말

# 일제강점기의 치의학(齒醫學)과 그 제도의 운영

치의학박사/문학박사  
신 재 의

## 1. 머리말

1876년 개항 이후 서구의 근대문물이 유입되는 과정에서 근대치의학은 도입되었다. 1885년 알렌이 제중원을 운영하면서 발치(拔齒)를 시술한 것이 한국근대치의학의 효시라 할 수 있다. 그 후 일본인 치과의사들이 입국하여 개업을 하기도 하였다. 1893년 노다 오지(野田應治)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인을 대상으로 서울과 인천에서 개업하였고, 일본군이 한국에 주차하게 되면서 이들을 따라 치과의사들이 입국하여 활동을 하였다. 1914년 함석태(咸錫泰)는 한국인 최초의 치과의사로 등록되었다. 이로써 근대치의학이 한국에 정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일제의 한국 침략은 정치·경제·사회·사상·문화뿐만 아니라 의료 분야에 이르기까지 예외는 없었다. 의학의 한 분야인 치의학도 그러하였다. 의학을 통한 일제의 한국침략에 관한 연구는 아직 시도된 바가 없다. 다만 통사로서 근대의학사를 논하는 과정에서 언급이 있을 뿐이었다.<sup>1)</sup>

일제강점기의 의학과 치의학은 한국의 근대화에 기여했고 병든 자를 위한 시혜라 했다. 그 실체는 일본인에 의한 일본인을 위한 것이었고 일제의 침략을 무마하려는 술책인 동시에 침략 그 자체였다. 특히 치의학의 사례는 침략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일제의 치의학을 통한 한국 침략의 실상을 밝히기 위하여 치의학의 도입, 제도와 교육, 치과의사회와 치과의학회의 설립과 활동을 통해 일제의 침략 사례를 파악하려 한다.

## 2. 치의학의 도입

### (1) 일본인에 의한 치의학

일제에 의한 치의학의 도입은 재한 일본인을 치료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1876년 강화도조약이 체결된

1) 三木榮, 『朝鮮醫學史及疾病史』, 思文閣出版, 1991, 283-294쪽.  
金斗鍾, 『韓國醫學史』 全, 탐구당, 1966, 480-546쪽.  
申東源, 『한국근대보건의료사』, 한울, 1997.  
李漢水, 『韓國齒學史』, 서울대학교출판부, 1988.  
奇昌德, 『韓國齒科醫學史』, 아카데미아, 1995.  
辛在義, 『한국근대치의학사 研究(1885-1945)』, 단국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후 1894년 청일전쟁을 통해 한국 내에서의 정치·경제·군사적 침략을 강화하면서 일본인은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1893년 7월 노다 오지(野田應治)는 인천에 거주하는 일본인을 대상으로 개업하였다. 이듬해 그는 서울로 옮겨 개업하였다.<sup>2)</sup> 이어 일본인 입치사도 개업하였다.<sup>3)</sup> 1902년 9월 입치사 코모리(小森)가 노다 오지 치과 옆인 일본인 거주지 진고개(泥岬)의 옥여관에서 개업하였다.<sup>4)</sup>

1905년 9월 일본군을 따라 치과의사가 오기도 했다. 1905년 9월 일본 육군의 한국주차군 사령부에 촉탁 치과의사 나라자키 도오요오(樺崎東陽)가 오게 된 것이다. 러일전쟁 직후인 1904년 2월 한일의정서를 강제 체결하면서, 일제는 한국주차군의 사령부를 용산에 두고 전국 주요 도시와 요새를 완전 장악하던 시기였다. 1906년에 사임한 그는 그해 6월 서울 남산에서 개업하였다. 이어 한국주차군 사령부에 시메우찌 켄세키(注連内堅石)가 왔다.<sup>5)</sup>

일본인은 그들의 병원을 운영하면서 치과의사를 배치하기도 했다. 1904년 경성 일본인단에 의하여 한성병원이 운영되면서 시게시로 야스지(重城養二)가 치과 책임자가 되었다. 그는 외과 과장의 지도와 감독 아래 치과 진료를 담당하였다. 이어 이이쓰가 데쓰(飯塚徹)와 와다나베 마사카츠(渡邊正亮)가 계속하여 입국했다.<sup>6)</sup>

일본인 단체에서 설립한 병원도 있었다. 동인회 산하 용산 동인의원에는 외과 소속으로 치과부가 있었다.<sup>7)</sup> 그 초대 치과 담당자는 나라자키 도오요오(樺崎東陽)였다. 1910년 전후의 치과 담당자는 비상근이던 시메우찌 켄세키(注連内堅石)였고, 이 때에는 그의 감독 아래 무자격자이던 사노 후미오(佐野史郎)가 진료했다. 이 동인회는 의학·약학, 여기에 부수되는 기술의 보급을 통한 아시아 여러 나라의 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병고를 구제하여 우의를 돈독히 하고, 나아가 이들 나라의 문화에 공헌한다는 것이 그 목적이었으나 사실 그것은 침략의 구실이였다.<sup>8)</sup>

한국의 의료기관을 강제로 통합한 대한의원에도 치과가 설치되었다. 1909년 11월 30일 종합병원인 대한의원에 한 개의 과로 치과를 설치한 것이었다.<sup>9)</sup> 대한의원의 분과 규정에 따라 내과, 외과, 안과, 산과, 부인과, 이비인후과, 소아과, 피부과, 치과, 약제과, 서무과를 두도록 했다. 대한의원은 대한제국의 의학교 및 부속병원, 광제원, 대한적십자사 병원을 통합하여 설립한 병원이었다.<sup>10)</sup> 이 대한의원은 후에 총독부의원으로 개편되었다. 이곳을 통하여 나기라 다쓰미(柳樂達見)와 이꾸다 싱호(生田信保)가 한국에 오게 되었다.

일본인 여자가 치과 병원을 개업한 경우도 있었다. 1909년에 나카무라 야스코(中村安子)가 그였다. 그는 미국 펜실바니아 치과대학을 졸업한 여자 치과의사였다.<sup>11)</sup>

일본의 입치사들은 제도의 변경으로 신분이 보장 되지 않자 적지 않은 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 한국으로 오게 되었다. 광고에서 보여 지는 치료 내용과 가격은 다음과 같았다. 백금 충전은 1원부터 5원까지, 순금 입치는 2원부터 10원까지, 도기충입치는 6원부터 10원까지, 은충전은 50전부터 1원까지, 도기입치 1매 1원 이상이었다.<sup>12)</sup>

2) 大澤義誠, 「조선치과변천 이야기」, 『朝鮮之齒界』 1권 1호-4호, 1930. 『대한치과의학사연구회지』, 1960. 77, 81쪽.

3) 厚生省醫務局, 『齒科醫師法』 『醫制80年史』, 1955. 510쪽.

입치사는 일본에서 명치(明治) 이전부터 입치치발구중요치영업자(入齒齒拔口中療治營業者)라는 제도가 있어 치과영역의 질한 치료, 발치, 입치 등을 시술하고 있었다. 이 입치사(入齒師)는 입치업자(入齒業者) 입치영업자(入齒營業者)라 부르기도 하였는데, 이들은 학문적인 연구 없이 간단한 기공만을 도제식으로 배워 기술을 전수하고 있었다.

4) 《皇城新聞》, 1902년 9월 9일자.

5) 樺崎東陽, 「한국치과의계의 추억」, 『대한치과의학사연구회지』, 1960. 72-75쪽.

6) 大澤義誠, 「조선치과변천 이야기」, 『대한치과의학사연구회지』, 1960. 78쪽.

7) 京城府, 『京城府史』, 1-3, 京城府, 1934, 1038쪽.

8) 李忠浩, 『韓國醫師教育史研究』, 國學資料院, 1998. 39-46쪽.

9) 『官報』, 1909년 11월 30일자.

10) 『官報』, 1907년 3월 13일자.; 기창덕, 『한국개화기 의문화년표』, 215쪽.

11) 樺崎東陽, 「한국치과의계의 추억」, 『대한치과의학사연구회지』, 1, 1960. 74 쪽.

12) 《皇城新聞》, 1902년 9월 9일자.

치과의사의 경우에도 보다 많은 치료비를 받으며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었다. 1905년 나라자끼 도오요오(檜崎東陽)의 봉급은 98원이었으며 고위층 인사를 별도로 치료하고 있었다. 그의 봉급은 일본에서 받은 금액에 40%가 추가된 금액이었다. 1907년경 이이쓰카 데쓰(飯塚徹)의 경우에는 금관 소구치가 12원, 금관 대구치가 15원을 받을 때, 일본인들의 한성병원에서는 15원과 20원이었다. 그러나 학부대신 김윤식(金允植)의 경우에는 총의치를 장착하고 300원을 지불하기도 했으며, 내무대신의 부인의 경우 심한 덧니를 삭제하고 이어 붙이며 500원을 지불하기도 하였다.<sup>13)</sup>

1914년 총독부의원 나기라 다쓰미의 경우에는 금관 소구치와 금관 대구치가 7원과 8원이었고 금관계속가공의 치의 경우에는 25원 그리고 1회 치료비가 20전 정도였다. 1912년경에 급료는 치료와 기공을 겸할 수 있는 대진이 30원, 치과의사는 60원 정도였다.<sup>14)</sup> 나기라 다쓰미는 식민지에 근무하는 수당을 별도로 받으며 총독의 주치의로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었다.<sup>15)</sup>

이렇게 근대치의학은 전통치의학과 관계없이 일본인 치과의사와 입치사에 의하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인과 일본군의 치료를 위해 시작되었다.

## (2) 한국인에 의한 치의학

한국인도 치과업에 종사하게 되었다. 한국인 입치사(入齒師)는 치과의사보다 먼저 등장하였다.<sup>16)</sup> 한국인 최초의 입치사는 최승룡(崔承龍)이었다.<sup>17)</sup> 그는 1907년 종로에서 개업하였다.<sup>18)</sup> 기술의 전수자는 명료하지 않으나, 노다 오지에게서 배웠으리라 추정되기도 한다.<sup>19)</sup> 이어서 1907년 안중수(安重秀)가 개업을 하였고, 1908년에는 김한표(金漢杓)·김경집(金敬執) 그리고 김한표에게서 배운 신정휴(申正休)도 개업하였다.<sup>20)</sup> 1909년 개성의 임순철(林舜喆)은 ‘대한치과병원’이라는 입치사로서 치과병원 개업안내를 하고 있다. 그는 평양에서 개업하던 오오제키 카네키(大關兼記)라는 일본인 치과의사에게 사사하였다.<sup>21)</sup>

이들은 일본인 치과의사의 치과진료보조로 고용되어 서양 치과의술을 배워 입치업을 개설하게 되었다. 한국에서 입치사는 치과의사가 배출되기 전까지 과도기적으로 근대의학을 수용한 치과의료인이라 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뿐 아니라 입치사는 사회적으로 우대되고 존경의 대상이 되기도 했으며 수입도 상당했다.<sup>22)</sup> 이러한 입치사의 등장은 치과의사 제도가 마련되기 이전이었다.

한국인 치과의사는 치과의사제도가 마련된 후 등록되었다. 1914년 2월 5일 함석태(咸錫泰)는 한국인 최초의 치과의사로 등록하였다.<sup>23)</sup> 그 후 일본에서 치과전문학교를 졸업한 사람, 치과의사시험제도 합격자와 경성치의학전문학교에서 졸업생이 나오므로 치과의사 수는 증가하게 되었다.

13) 『滿鮮之齒界』, 5권 1호, 1936. 18쪽.

14) 『滿鮮之齒界』, 5권 5호, 1936. 14-15쪽.

15) 경성치과대학동창회, 『京城齒科大學沿革史』, 1964. 6쪽.

16) 入齒師는 入齒業者, 入齒營業者라 부르기도 한다.

17) 申仁澈, 「한국근대치의학의 연역」, 『대한치과의학사연구회지』, 1960. 15쪽.

18) 은중기, 「한말의 치과업계에 대하여」, 『대한치과의학사연구회지』, 1960. 70쪽.

19) 李漢水, 『韓國齒學史』, 412-414쪽.

20) 은중기, 「한말의 치과업계에 대하여」, 『대한치과의학사연구회지』, 1960. 70쪽.; 申仁澈, 「한국근대치의학의 연역」, 『대한치과의학사연구회지』, 1960. 15쪽.

21) 《대한매일신보》 1909년 2월 18일자 개성 임순철의 대한치과병원 개업 광고.

22) 은중기, 「한말의 치과업계에 대하여」, 『대한치과의학사연구회지』, 1960. 71쪽.

23) 『朝鮮總督府官報』, 제482호, 1914. 3. 11.



1926년경의 한국인 치과의사 생활수준은 중상(中上)이었다. 한국인 치과의사 수입은 경성제대 졸업자의 봉급보다 많았다.<sup>24)</sup> 이호곤(李鎬坤)의 경우 1926년 진남포에서 하루 평균 12명 정도의 환자를 진료했는데, 그의 진료 내용은 발치, 치료, 보철로 크게 나누어진다. 발치료 50전, 치료비 20전, 금관 3-4원, 총의치 15-20원이었다.

이후 이호곤은 1935년 평양으로 개원지를 옮기며 시설도 확장하였고 월수입은 300원 이상으로 생활수준은 상류였다. 그의 진료 내용은 발치, 치료, 어느 정도 분화된 보철 치료를 볼 수 있고, X-ray 촬영한 것을 알 수 있었다. 하루 평균 20명 정도를 진료하여 발치료 80전-1원, 치료비 30전, 금관 5원, 총의치 15-30원, X-ray 1매 50전이였다.<sup>25)</sup>

### 3. 제도와 교육

#### (1) 제도

치과의사와 입치사는 별다른 구분이 없었다. 치과의사와 입치사들이 별다른 구별 없이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제도가 갖추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1910년 9월 총독부 경찰국에 위생과를 설치하고 의료인 및 모든 위생업무를 관장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1910년 신의주에서는 경찰서에서 정규 교육을 받지 않은 자, 즉 치과에서 조력한 경력증서만 가지고도 입치업을 허가하는 실정이었다.<sup>26)</sup>

일제는 일본에서 폐지된 입치사를 한국으로 이전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1905년 12월 20일 일제는 통감부 및 이사청 관제를 공포하고, 이 기구를 침략의 도구로 사용하였다. 또한 이사청을 통해서 한국으로 일본인 이주를 장려하는 실정이었다.<sup>27)</sup> 1906년 일본은 치과의사법을 제정하고, 입치사의 통제를 강화하였다. 이에 일본인 입치사들은 통제가 없는 한국으로 이주했다. 1907년을 전후하여 한국에 있는 입치사는 10여명이고, 이에 비해 치과의사는 4-5명 정도며,<sup>28)</sup> 1920년대 초반에는 입치사 200여명에 치과의사 20여명 정도였다.

일제는 의료관계법령을 제정·공포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따라서 1913년 말 치과의사규칙을 의사규칙, 의생규칙과 입치영업취체규칙 등과 같이 제정·공포하게 되었다. 입치사에 대한 제도는 1913년 12월 25일 입치영업취체규칙이 제정·공포되었다.<sup>29)</sup> 이로써 입치사의 허가조건이 강화되고, 입치영업의 한계와 광고·분쟁을 제한하였다. 입치사의 진료 한계는 입치와 발치에 한 했으며, 응급치료도 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일제는 그들의 침략정책에 동참한 입치사들을 제한하지는 않았다. 입치사 허가는 무제한적이었고, 단속도 관대하여 자유롭게 치과진료를 하게 했다.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치사와 치과의사 사이에는 잦은 마찰이 발생했다. 이것은 일본 내에서는 허가하지 않는 입치사를 한국에서는 허용하는 일제의 모순된 정책이라 할 수 있다.<sup>30)</sup>

24) 안중서, 「1920-30년대 나의 치과 의업 회고기」, 『대한치과의학사연구회지』 1961. 54쪽.

세브란스를 사직하고 빠고다공원 뒤에서 2-3개월 개업을 하다가 곧 천진으로 갔다. 빠고다공원 뒤 2층 기와집에서 개업을 하니 첫 달 수입이 700엔이었는데 이것은 당시의 일반의사들도 벌 수 없는 거액이었지만 나로서는 그래도 수지가 맞지 않았다.

25) 李鎬坤, 「1920-30년대 나의 치과 의업 회고기」, 『대한치과의학사연구회지』, 1961. 58쪽.

26) 『統監府公報』, 「신의주이사청령 제1호 제영업기타원규에 관한 건」 제137호, 1910. 1. 29.; 奇昌德, 『韓國齒科醫學史』, 312쪽 재인용.

27) 통감부, 『통감부시정년보』, 1907, 1908, 1909.

경성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인 수는 1906년 11,724명, 1907년 13,416명, 1908년 20,555명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28) 大澤義誠, 「조선치과변천 이야기」, 『대한치과의학사연구회지』, 1960. 79쪽.

29) 『朝鮮總督府官報』, 「입치영업취체규칙」 제423호, 1913. 12. 25.

30) 大澤義誠, 「조선치과변천 이야기」, 『대한치과의학사연구회지』, 1960. 80쪽.

이렇게 늘어난 입치사의 수는 치과의사의 수보다 많았다. 그러나 입치사에 의한 보철이 보편화되자 좋지 않은 풍조가 생기게 되었다. 한국인의 양환 구강 상태<sup>31)</sup>를 버려놓게 된 것이다. 한국인은 금으로써 보철하는 것을 기피하였으므로 대개 의치(義齒)의 고리조차 눈에 잘 띄지 않도록 백금을 사용하곤 했다. 의치를 장착한 사람도 의치가 남에게 알려지는 것을 매우 싫어했다.<sup>32)</sup> 이와 같이 한국인은 보철하기를 기피했다. 그런데 심각한 유행이 생기게 되었다.

“그 당시의 민중의 구강위생사상은 전연 없었고, 소위 돈푼이나 있는 부자, 또는 모양내는 멋쟁이, 또는 기생들이 보전 목적이 아니라 장식적 목적, 즉 장식도구로 알고 뺨내기 위하여 중절치 측절치 등 건전한 치아에 금으로 전부 금관 또는 개면금관을 해씨우고 뺨적뺨적 거리며 다니는 것이 현재 「다이아」반지나 끼고 다니는 정도로 유세하였고 일대 유행이 되었다. 이 유행은 상당한 시일 근 20년간이나 그러한 악풍이 있었다.”<sup>33)</sup>

즉 구강위생은 고려하지 않고 장식용으로 보철을 하는 풍조가 생긴 것이다. 노다 오지(野田應治)치과의원에 투석하던 시기 이후 불과 10여년만의 일이었다. 입치사들이 주도하던 20여년간 이러한 풍조가 있었다는 이야기이다. 뿐만 아니라 양적인 팽창에 비해 진료에서는 불량 보철을 시술하는 등의 질적 저하를 가져왔다. 즉 입치사들이 치료한 치아가 결과적으로 좋지 않다는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sup>34)</sup>

일제는 입치사 문제를 보고 있을 수 없게 되자 치과의사시험제도를 마련하였다. 일제는 입치사를 구제할 방법으로 시험을 통해 치과의사의 자격을 획득하도록 했다. 1921년 2월 14일 치과의사시험제도는 총독의 주치의였을 뿐만 아니라 경성의학전문학교 교수인 나기라 다쓰미(柳樂達見)의 건의로 제도를 확립했다.<sup>35)</sup>

매년 시행하기로 한 시험자격은 수업 연한 3년 이상의 치과학교 졸업 또는 5년 이상 치과의술을 수업한 자가 시험을 볼 수 있게 하였다. 치과의사시험제도의 주목적은 입치사를 구제하여 의료기관이 적은 지방에 배치시키려는 것이었다.<sup>36)</sup> 그러나 치과의사시험의 난이도가 더 높아 입치사는 입치사로 남게 되었다. 때문에 치과의사들과 갈등의 요인이 되었다.<sup>37)</sup>

시험에 합격하는 자는 대부분 일본인이었고 한국인은 소수였다. 1921년 10월 9일 처음으로 치과의사시험이 실시되어 고상목(高相穆)<sup>38)</sup>이 합격하였다. 국내에서 최초로 배출한 치과의사가 된 것이다.<sup>39)</sup> 1922년 9월 13일 시험에서는 배진극(裴珍極)<sup>40)</sup>·이성모(李成模)·변세희(邊世熙)<sup>41)</sup>·이상철(李相喆)<sup>42)</sup>·유창선(兪昌宣)<sup>43)</sup> 등 5인이 합격했으며,

30) 大澤義誠, 「조선치과변천 이야기」, 『대한치과의학사연구회지』, 1960. 80쪽.

31) 알렌 저 윤후남 옮김, 『조선체류기(Things Korean)』, 예영, 216쪽.

쌀밥치아 식사는 치아의 성장에 좋은 것 같다. 한국사람은 거의 누구나 훌륭하고 진주와 같이 흰 이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아침에 조심스럽게 이를 닦는데 소금을 청정제로 사용하고 칫솔대신 손가락 위에 소금을 놓고 치아에 비벼댄다.

大澤義誠, 「조선치과변천 이야기」, 『대한치과의학사연구회지』, 1960. 83쪽.

한국인은 옛부터 치아를 습관적으로 잘 닦은 까닭에 충치는 극히 적었다. 대부분이 좋은 구강 상태이었다. 종류 이하의 사람이라도 식후에는 함수하는 습관이 있었다. 한국인은 치아에 소금을 이용하고 있었다. 1896년 조선친위대 병졸 모집 때에, 노다 오지씨는 그 신체검사 요원으로 구강 검사를 실시하였다. 한국인 응모자 1백명중에서 충치를 가진 자는 단지 17명뿐이었다. 조사 대상자의 연령은 18-30세의 청장년자이었다.

32) 大澤義誠, 「조선치과변천 이야기」, 『대한치과의학사연구회지』, 1960. 82쪽.

33) 申仁澈, 「한국근대치의학의 연역」, 『대한치과의학사연구회지』, 1960. 15쪽.

34) 안중서, 「우리나라 의학계의 금석담」, 『대한치과의학사연구회지』, 1960. 66쪽.

35) 『朝鮮總督府官報』, 제2550호, 1921. 2. 14. 「조선치과의사시험규칙」

36) 『滿鮮之齒界』, 5권 5호, 1936. 12쪽.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입치사들은 황금정(을지로) 근처에서 호화로운 집을 꾸미고 개업하는 경우도 있었다.

37) 『滿鮮之齒界』, 5권 5호, 1936. 11쪽.

38) 『朝鮮總督府官報』, 제2824호, 1922. 1. 14.

39) 《동아일보》 1921년 10월 6일자. 9일 시행한 제1회 조선총독부 치과의시험은 수험자 총원이 40명인 바 합격자는 좌기 6명이라더라. 합격자: 高相穆 외 일 본인 5인

40) 『朝鮮總督府官報』, 제3385호, 1923. 11. 14.

41) 『朝鮮總督府官報』, 제3102호, 1922. 12. 13.

42) 『朝鮮總督府官報』, 제3073호, 1922. 11. 14.

43) 『朝鮮總督府官報』, 제3102호, 1922. 11. 13.

1923년에는 총독부의원 치과기공실에 근무하던 김연권(金然權)<sup>44)</sup>이 합격하였다.

1913년 11월 15일 치과의사규칙이 발표되고 1914년 3월 1일부터 법령이 실시되었다. 즉 한국에서 치과의사가 되려면 치과의사규칙에 따라 조선총독의 면허를 받아야 했다.<sup>45)</sup> 치과의사규칙이 발표된 후 그해 12월 11일 치과의사규칙에 따른 취급수속이 제정되어 치과의사의 업무가 의사, 의생과 같이 경찰에서 취급하게 되었다.<sup>46)</sup>

이 치과의사규칙에 의하여 치과의사 면허 제1호로 등록된 치과의사는 일본치과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한 함석태(咸錫泰)였다.<sup>47)</sup> 그는 1914년 2월 5일 치과의사 면허를 허가받았고, 그해 3월 11일 관보에 게시되었다.<sup>48)</sup> 1914년 6월 함석태는 개원하였고, 이후 1917년 한동찬(韓東燦)이 동경치과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하고 평양에서 개업하였고,<sup>49)</sup> 1919년 김창규(金昌圭)가 동양치과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하고 광화문에서 개원을 하였다.<sup>50)</sup> 1921년 이희창(李熙昌)이 함석태와 같은 학교인 일본치과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하고 무교동에서 개업했다.<sup>51)</sup> 또 이희창보다 1년 후배인 임택룡(林澤龍)<sup>52)</sup>이 1922년 세브란스 병원 치과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그러나 서울에서의 개업이 힘들자 1924년 한국인 치과의사로는 함석태 한사람만 개업하고 있었다.<sup>53)</sup>

## (2) 교육

### 가. 교육의 시도

일제의 교육정책은 그들의 식민지 통치와 관련이 깊다. 일제는 치과의사의 교육이 관심 밖의 일이었으므로 서양인에 의한 치과의학교 설립을 무산시켰다. 1909년 7월 서울에서 치과의사 한대위(韓大衛, David Edward Hahn, 1874-1923)는 치과의학교 설립 계획을 발표한 일이 있었다. 대한매일신보에 의교 창립이라는 기사와 논설,<sup>54)</sup> 그리고 『한국평론(The Korean Review)』에 기록이 보이고 있다.<sup>55)</sup> 그러나 일제는 한대위의 치과의학교 설립안을 무산시켰다. 일본은 한국인 치과의사를 양성할 계획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제증원의 의학교육에 이어 치의학 교육에 있어서까지 미국에게 기선을 빼앗기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sup>56)</sup>

한국인이 치과강습소를 열고 치과교육을 하기에 이른 것은 1913년경이다. 그해 5월부터 8-9개월간 ‘민제병원에서 치과강습소를 연다’는 광고가 보이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sup>57)</sup> 이는 치과의료기관에서 5년 이상 수업한 후에야 입

44) 『朝鮮總督府官報』, 제3619호, 1923. 9. 4.

45) 厚生省醫務局, 『齒科醫師法』 『醫制80年史』, 1955. 510쪽.

제1조 치과의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자격을 가지고 내무대신의 면허를 얻을 것을 요함.

1. 문부대신이 지정한 치과의학교를 졸업한 자.

2. 치과의사시험에 합격한 자.

3. 외국치과의학교를 졸업하고 또는 외국에서 치과의사의 면허를 얻은 자로서 명령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46) 『朝鮮總督府 警務總監府 訓令』, 제45호, 1913년 12월 11일.

47) 李漢水, 『李漢水齒學博物誌』, 석암사, 1976. 137쪽; 편집부, 「한국치의학 100년의 재조명-한국인에 의한 치과치료(2)」, 『치과임상』, 1985. 5(4) 23-29쪽. ; 오세창 저, 동양고전학회 역. 『국역 근역서화집』, 상, 하. 서울: 시공사, 1998; 박병래, 『중앙일보』, 1973. 10. 1. <집안망치는 골동>; 1973. 10. 20. <금강산 연적> 골동품비화40년

48) 『朝鮮總督府官報』, 제482호, 1914. 3. 11.

49) 『朝鮮總督府官報』, 제1682호, 1917. 3. 18.

50) 『朝鮮總督府官報』, 제1682호, 1919. 4. 20.

51) 『朝鮮總督府官報』, 제1682호, 1921. 11. 1.

52) 이희창의 1년 후배, 1922년 귀국, 日本齒科醫學專門學校 졸업.

53) 咸錫泰, 「口腔衛生」, 『東亞日報』, 1924년 2월 11일자.

54) 《대한매일신보》 1909년 10월 30일자. 〈韓大衛氏の學校設立을 賀하노라〉.

55) H. B. Hulbert, The Korean Review vol.6, 1906. pp.315.

56) 이주연, 「우리 나라의 서양식 치과의로 도입에 관한 연구」, 『연세의사학』, 3권 2호, 1999. 148쪽.

57) 《대한매일신보》 1913년 5월 7일자. 韓氏의 事業 多端

民濟病院院長 韓民濟氏は 齒科講習所와 産婆養成所 創立會를 本月 24日 下午 6時 一長春館에서 行하였다더라.

치사나 치과의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되므로 이러한 강습소를 개설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그러나 그 강습소의 교육 내용이나 시설, 배출된 학생과 진로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다.

에비슨(O. R. Avison)은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에 치과학교를 설립하려 하였다. 그는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로 한국에 와서 1893년 11월 1일부터 제증원 원장으로 부임한 후 병원발전계획을 마련하였다. 1912년 병원발전계획에는 의학교 안에 내과·외과부, 안과, 치과학교, 약학과를 설립하려는 뜻이 있었다.<sup>58)</sup> 1921년 7월 5일 동아일보와 대한매일신보에 치과의학전문학교를 설립하려는 기사가 실려 있다.<sup>59)</sup>

1915년 11월 1일 셰프리(William J. Scheifley)는 세브란스연합의학교에 부임하여 치과학교실을 신설하였다. 그는 정규 교수과목으로 학생들에게 치과학을 강의하였다.<sup>60)</sup> 치과는 치과전문의가 되어야 하며, 치과전문의 교육은 기공과 임상에 중점이 주어졌다. 임상과 기공을 위한 재료에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어떤 것은 졸업후과정에서 더 배워야 할 것이었다. 치과 환자들이 오직 고통과 불편함이라면, 일반 의사가 발치, 소독, 청결을 행하는 일에 불과한 뿐일 것이다. 이러한 일만으로는 전문 분야가 되지 못할 것이었다.<sup>61)</sup>

1921년 3월 부츠(John. L. Boots)<sup>62)</sup>는 셰프리의 뒤를 이어 세브란스병원 치과 과장이 되어 세브란스연합의학전문학교 치과학 교수를 겸직하게 되었다.<sup>63)</sup> 부츠는 창의적인 기획능력과 추진력, 외교적 수완을 지니고 있었으며, 치과의 책임자로서 치과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맥안리스는 1921년 9월 미국 북장로교 의료선교사로 내한하여 1921년 10월에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 치과에서 부츠를 돕는 조수로 있었다. 부츠는 맥안리스와 함께 우선 의과대학의 일부로서 치과학 강의를 하며 치과 치료에 임했다. 부츠와 맥안리스, 그리고 함께 했던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 치과학 교실 직원들은 한국의 치의학계 발전에 여러 가지 영향을 끼쳤다. 부츠는 늘어나고 있는 치과환자를 치료하고, 선교사업에 강화시키기 위하여 “치과센터” 설립하기도 했다.

#### 나. 경성치과의학교·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

일제는 1922년 4월 1일 경성치과의학교(京城齒科醫學校)를 인가하여, 1922년 4월 15일 개교식을 가졌다. 경성치과의학교의 인가는 일제의 통치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루어진 듯하다.<sup>64)</sup> 조선인에게 실업교육을 받게 하여 생활의 안정을 얻도록 하자는 것이 치과의학교 설립의 목표라고 하였다.<sup>65)</sup> 설립 취지는 설립 당시 조선인 치과 의사의 양성을 위하여 조선인 학생을 위주로 선발하려 했으나 학자금 부족으로 방침이 변경되었다.

설립의 주체는 모두 일본인이었다. 1921년 3월 총독의 주치의였을 뿐만 아니라 경성의학전문학교 교수인 나가라 다쓰미는 치과치료로 맺어진 실업계의 중진이었던 토미타 기사구(富田儀作)의 재정적인 후원을 얻어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후원자로 총독부의원장인 시가 키요시(志賀潔)는 고문의 역할을 하였고, 총독부 사무관 후루

58) 『The Korea Mission Field』, vol. 8 no. 11, 1912. pp.274.

59) 《동아일보》, 1921년 7월 5일자.

60) William J. Scheifley, Severance College Dental Department 『The Korea Mission Field』, vol. 12, no. 2, 1916. pp.44.

61) William J. Scheifley, Severance College Dental Department 『The Korea Mission Field』, vol. 12, no. 2, 1916. pp.45.

62) 부츠는 1894년 11월 9일 미국 펜실바니아 뉴브링톤에서 출생하였다. 1918년 피츠버그치과대학 3년 과정을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 임상강사로 재직하다가 1921년 3월 선교사가 되어 한국에 왔다. 부츠는 안식년으로 미국에 돌아갈 때마다 졸업후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치과의사로서의 자질을 높이도록 노력했다. 또한 그는 치과치료에 있어서 구강외과학 분야를 주로 담당하였다.

63) 『The Korea Mission Field』, vol. 17 1921. pp.66.

64) 첫째로 의학 그 가운데서도 치의학은 그 특성에 있어서 시혜라는 것이다. 병들고 아픈 사람에게 베푸는 것 중에서 의료만큼 효과적인 것이 없다는 것이다. 둘째로 의료인 특히 치과의사는 권력을 가진 자가 아니라 권력에 이용당하는 자라는 것이다. 그들은 교육과정에서 봉사자로 교육받았지 권력자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65) 柳樂達見, 「경성치과의학교 창설기」, 『대한치과의학사연구회지』, 1962. 65쪽.



타 야고에몬(吉田弥五右衛門)이 사무적인 일을 도왔다.<sup>66)</sup>

교직원들은 모두 일본인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1922년 처음 1년은 야학으로 지냈다. 직원으로는 교장인 총독부의 원 치과과장인 나기라 다쓰미도 전임이 아니고 겸직이었다. 강사진은 모두 외래로 경성의전 교수 또는 총독부의원의 의관으로 충당하고 있었다.<sup>67)</sup> 1923년 수업 연한을 3년으로 하고 전임교수로 병리학리학에 야오 타로(矢尾太郎)와 치과기공학에 오카다 타다시(岡田正) 2명을 초청하여 주간교육제도로 변경하게 되었다. 외래강사의 대부분은 경성의학전문학교 또는 총독부의원의 의사들로 경성치과의학교는 이들의 도움으로 강의가 진행되었다.<sup>68)</sup>

1924년 4월 임상실습을 위한 총독부의원 안에 10평정도의 치료의자 5대를 갖춘 진료실을 만들었고, 6평 정도의 기공실도 설치했다. 진료실에는 오카다 타다시(岡田正)·야오 타로(矢尾太郎)가 임상실습에 대비하고 있었다. 그 후 나기라 다쓰미에 의해 1924년 10월 황금정(을지로)의 일본생명 빌딩 일부를 차입하고 시설과 장비를 정비하였다. 1924년 10월 부속병원은 처음에 주임 후구이 마사루(福井 勝)체제로 운영하다가 노자와 킨(野澤鈞)이 부임하고 원장이 되어 병원을 운영하게 되었다.<sup>69)</sup>

1925년 4월 15일 경성치과의학교 제1회 졸업생 한국인 23명,<sup>70)</sup> 일본인 4명 모두 27명이 치과의사로 사회에 진출하게 되었다.<sup>71)</sup> 1925년부터 1933년까지 경성치과의학교는 8회의 졸업생 176명을 배출하였는데 한국인은 103명으로 59%를 차지하여 한국인이 많은 편이었다. 그 통계는 다음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1> 경성치과의학교 졸업생 통계표

연도	한국인	일본인	합계
1925	23	4	27
1926	20	18	38
1927	16	8	24
1928	17	22	39
1929	5	8	13
1930	10	3	13
1931	10	8	18
1933	2	2	4
합계	103	73	176

66) 柳樂達見, 「경성치과의학교 창설기」, 『대한치의보』, 38-39호, 1962.; 『대한치과의학사연구회지』, 1962. 64쪽.

67) 경성치과대학동창회, 『京城齒科大學沿革史』, 1964. 117쪽.

태생조직학-카와다 신페이(川田新平) 계통해부학-사카모토 토오키치(坂本藤吉)

약물학-오오사와 마사루(大澤勝) 의학학-사토 코우조(佐藤剛藏)

세균위생학-미지시마 하루오(水島治夫) 내과-요시다 노부오(吉田信夫)

외과총론-후지모토 진이치(藤本甚一) 구강외과-키리하라 신이치(桐原眞一)

68) 경성치과대학동창회, 『京城齒科大學沿革史』, 1964. 134쪽.

69) 경성치과대학동창회, 『京城齒科大學沿革史』, 1964. 187쪽.

주임 후구이 마사루(福井 勝) 오카다 시로(岡田四郎) 히라마 겐지(平馬健兒) 타카시마 요시우도(高島義人)

니시야마 유키오(西山幸男) 원장 노자와 킨(野澤鈞) 모리 데쓰로(森哲郎)

70) 편찬위원회, 『서울대학교치과대학사』, 2002. 30쪽.

1925년 경성치과의학교(京城齒科醫學學校) 제1회 졸업생이 23명이 배출되었다.

강흥숙(姜興淑) 김관현(金官鉉) 김기우(金崎宇) 김용진(金溶璿) 김름이(金凜伊) 남기범(南基範) 노기섭(盧基燮) 노용규(盧龍奎) 노진수(盧診洙)

박원일(朴元一) 박준영(朴俊榮) 신응현(申應炫) 안중서(安鍾書) 유희경(劉熙慶) 윤병준(尹秉俊) 이근용(李根用) 이무상(李武相) 이병철(李秉哲)

전훈조(田勳祚) 정동진(鄭東鎭) 조원(趙源) 최영식(崔永植) 한중호(韓宗鎬)

71) 경성치과대학동창회, 『京城齒科大學沿革史』, 1964. 23쪽.

제1회 졸업식은 준비위원장 岡田正, 교장의 인사, 학사보고, 졸업생명부 낭독, 수여, 축전, 피로 등을 진행되었는데, 사회를 맡은 矢尾太郎은 얼마나 자연히 흐르는 눈물을 여쩔 수 없었다고 할 정도로 감격적인 행사였다.

교사의 건축에는 일제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이루어졌다. 공사비는 우선 식산은행에서 십만원을 차입하고, 나머지는 토지의 무상 양여로 받아 이것을 담보 삼아 십오만원을 차입하여 교사를 신축하였다. 1927년 6월 6일 건축에 착수하여 낙성식은 1928년 9월 29일 거행되었다.<sup>72)</sup>

교사 신축 후 발전을 거듭하게 되었다. 1928년 10월 2일 경성의학교는 재단법인 경성치과의학교로 인가되었다.<sup>73)</sup> 1929년 4월 15일,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京城齒科醫學專門學校)는 4년제로 개교하였다.<sup>74)</sup> 1931년 3월 13일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는 일본 문부성 지정학교로 인가되었다.<sup>75)</sup> 1934년 7월 10일 학칙을 개정하여 남녀 공학제가 폐지되었다.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의 교육 목적은 전문적인 치과의학 교육과 황국신민을 연성함에 있었다.<sup>76)</sup>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의 수업 연한은 4년이었고, 생도 정수는 480명이었다.<sup>77)</sup> 전문학교로 승격한 후 생도수가 늘어남에 따라 많은 수의 일본인 학생들이 입학하였다.

전문학교로 승격할 때의 교수진은 임상에서는 보존학, 보철학, 구강외과학, 교정학, 치료학 그리고 기초에서는 치과기공학, 병리학, 병리조직학으로 체제를 모두 갖추게 되었다. 이후 교수진은 보강되어 1930년경 76명이나 되었다.<sup>78)</sup>

나기라 다쓰미는 치과재료학의 강의는 치과재료의 각 종류에 걸쳐 연구·제조하는 전문가가 강의하는 편이 이상적이라 생각하였다. 1931-1932년경 쇼오후우 켄지(松風憲二)를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 교수로 임명하였고, 그는 매년 2월 1주간 머물면서 1년 분의 강의를 1944년까지 강의했다. 이러한 일로 일본의 각 대학에서도 쇼오후우 켄지(松風憲二)와 미야즈 하지메(宮津一)에게 재료학의 강의를 의뢰하기도 하였다.<sup>79)</sup>

교과과정은 일본의 치과의학전문학교와 별 차이가 없었고 독일 치의학의 영향을 받은 일본식 교육이었다. 실제로 독일어 교육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도 했다. 4학년 임상실습은 매우 엄격하였고 증례제도로 운영되었다. 환자의 수나 경제력 등으로 실습을 모두 마치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sup>80)</sup>

1930년 3월 25일에는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 제1회 졸업생을 배출하여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치의학사가 나오게 된다. 제1회 졸업생은 한국인 17명, 일본인 22명, 모두 39명이었다. 1945년까지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는 17회에

72) 『朝鮮齒科醫學會雜誌』, 제8호, 1928. 33쪽.

학교사무실 및 기초학교실은 1928년 7월 30일 이전하고, 8월 1일 사무를 개시했고, 병원은 차례로 옮길 예정이다.

73) 경성치과대학동창회, 『京城齒科大學沿革史』, 1964. 248쪽.

74) 『朝鮮齒科醫學會雜誌』, 제11호, 1929. 49쪽.

75) 柳樂達見, 「경성치과의학교 창설기」, 『대한치과의학사연구회지』, 1962. 71쪽.

76) 편찬위원회, 『서울대학교치과대학사』, 2002. 52쪽.

학칙 제1조 본교는 치의학에 관한 고등의 학술과 기예를 교수하고, 특히 황국의 도에 따라 국제관념의 함양과 인격도야에 유의하며, 국가필수의 인재가 될 수 있는 황국신민을 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77) 편찬위원회, 『서울대학교치과대학사』, 2002. 52쪽.

78) 편찬위원회, 『서울대학교치과대학사』, 2002. 33-34쪽.

교장 나기라 다쓰미(柳樂達見)

병원장 호리 타게시(堀武)

외과부 카키미 요조(垣見庸三)

보철부 히로타 세이이찌(弘田精一)

보존부 호리 타게시(堀武)

교정부 모리 데쓰로(森哲郎)

특진실 나기라 다쓰미(柳樂達見)

기초의학부

병리조직학 니시아마 유기오(西山幸男)

병리학 야오 타로(矢尾太郎)

일반해부학 쿠와야마 쿠니마츠(桑山邦松)

기공학교실 오카다 타다시(岡田正) 등이었다.

79) 경성치과대학동창회, 『京城齒科大學沿革史』, 1964. 1057쪽.

80) 편찬위원회, 『서울대학교치과대학사』, 2002. 33쪽.

걸쳐 졸업생을 배출하였고 한국인은 452명이었다. 그 통계는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1941년 10월 22일 「대학학부 등 재학 연한 또는 수업연한의 임시 단축에 관하여」라는 칙령 924호로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도 6개월 앞당겨 교육과정이 3년 6개월로 단축되었고, 1941년 9월 30일 제13회 졸업식을 가져서 1941년에는 2번의 졸업식이 있었다.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는 조선인 치과의사의 양성을 위하여 조선인 학생 위주로 선발하려 했던 처음 계획과는 달리 일본인이 주로 공부한 학교가 되었다. 졸업생 1459명중 한국인은 452명으로 31%였다. 이렇게 치과의학전문학교로 개편되면서 일본인이 많아진 결과는 치과의학전문학교 교육을 일본인이 더 차지한 것을 의미한다. 경성치과의학교와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의 졸업생은 총 1635명으로 한국인 555명의 34%였고, 일본인 1080명으로 66%였다. 또 소수의 대만인 졸업생들도 있기도 했다.<sup>81)</sup>

<표 2>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 졸업생

년도	한국인	일본인	합계
1930	17	22	39
1930	2	31	33
1932	14	23	37
1933	15	57	72
1934	20	58	78
1935	16	88	104
1936	16	94	110
1937	18	67	85
1938	24	64	88
1939	17	64	81
1940	37	65	102
1941	51	61	112
1941	41	45	86
1942	52	48	100
1943	62	39	101
1944	28	110	138
1945	22	71	93
합계	452	1007	1459

나기라 다쓰미는 연구 지원을 하며 학위를 받도록 연구 성적을 독촉하실 정도로 열의가 있었다.<sup>82)</sup> 또한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가 일본에서 늦게 생긴 학교이기 때문에 일본에 있는 학교에 뒤지지 않도록 연구업적을 발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가 먼저 학위를 받은 다음 야오 타로(矢尾太郎)·카키미 요쥔(垣見庸三)·니시야마 유기오(西山幸男)·히로타 세이이찌(弘田精一)·호리 타케시(堀武)·박명진(朴明鎭) 등에게 의학박사의 학위를 취득하게 했다. 실험연구에 필요한 비용은 쉽게 지출하고, 필요한 도서를 갖추어 나갔다.<sup>83)</sup>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는 군국주의 교육에 적극 호응하기도 했다. 1930년 8월 18일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에 일본 육군의 현역 배석장교를 배치 받았다. 나기라 다쓰미는 학교교련을 중요시하여, 1934년부터 1945년 종전까지

81) 奇昌德, 『韓國近代醫學教育史』, 아카데미아, 1995, 375쪽.

82) 경성치과대학동창회, 『京城齒科大學沿革史』, 1964. 97쪽.

83) 경성치과대학동창회, 『京城齒科大學沿革史』, 1964. 8쪽.



조례에서 규율을 강조했다. 그 결과 각 전문학교 이상의 학교에서 성적이 우수하다는 평을 받기도 했다. 규율을 강조한 이유는 학교가 서울의 중심에 있어 학생의 행동이 많은 사람의 표적이 되므로 군사교련에 의해 사회에서 좋은 평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1940년대에 이르자 교련은 야영훈련에 실탄사격훈련까지 실시했다. 이러한 군사교련으로 보아 식민지 지배자의 논리대로 군사적, 강압적인 통치방법에 호응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었다.<sup>84)</sup>

1937년 11월 1일 중일전쟁 당시 한국 내 전문학교의 모든 학생들에게 단발령이 내려져 큰 물의를 빚기도 했다. 전쟁이 한참이던 1942년 한국인 청년에게도 징병제가 실시되고, 의(醫) 치(齒) 약(藥) 공(工 광산과) 학생에게는 징집이 면제되자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에 많은 입학지원자가 몰리기도 하였다. 1943년 100명 모집에 1000여명, 1944년 2700여명이 지원자가 있었다. 1944년 징집제도가 폐지되자 1944년 가을부터는 학업을 중단하고 피하기도 하여 결석자가 늘었다.<sup>85)</sup>

## 4. 치과의사회의 설립과 활동

### (1) 치과의사회의 설립과 변천

치과의사들이 단체를 조직한 것은 친목과 권익 때문이었다. 1912년 1월 16일 서울에 경성치과의사회를 처음 설립하였다.<sup>86)</sup> 전국적인 규모의 치과의사회가 필요하게 되자 경성치과의사회의 초대 회장이었던 나라자끼 도오요오(檀崎東陽)가 창립위원장이었고 경성치과의사회의 임원인 도내가와 세이지로오(利根川清治郎)·오오자와 기세이(大澤義誠)·미쓰다 소오(滿田操) 등이 위원이 되어 조선치과의사회를 설립하였다.<sup>87)</sup>

조선치과의사회의 설립 배경은 행정적인 도움을 얻기 위한 것이었다. 치과의업에서 치과의사들은 입치사와 구별이 없었다. 그 무렵 입치사들이 진료와 광고의 한계를 넘어 치과의사들의 영역을 침범하는 정도가 심하였다. 그러므로 치과의사들이 단결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경성치과의사회의 대표로서 나라자끼 도오요오(檀崎東陽)와 도내가와 세이지로오(利根川清治郎)가 입치사의 단속, 제도의 폐지를 목표로 이사청에 있는 미우라 지고로오(三浦彌五郎) 이사관에게 이러한 문제를 자주 언급했으나 전국적인 대표로 인정받지 못하는 실정이었다.<sup>88)</sup>

또한 조선치과의사회의 설립 배경에는 치과의사회를 사회적으로 올바르게 인식시키려는 목적도 있었다. 당시 행정당국의 행사시에 의사회는 초청 받았으나, 치과의사회는 초청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 부단한 노력의 결과 조선총독부 산하기관에서 의사회를 참석시키는 경우 치과의사회도 함께 참가하게 했다. 이 후 경성치과의사회, 한국인만의 한성치과의사회, 조선연합치과의사회는 일반 의사회와 동등한 취급을 받게 되었다.<sup>89)</sup>

설립 당시 회원은 22명 정도로 추정된다.<sup>90)</sup> 당시 총독부의 방침은 조선치과의사회를 지방 단체를 규합해서 만들

81) 奇昌德, 『韓國近代醫學教育史』, 아카데미아, 1995, 375쪽.

82) 경성치과대학동창회, 『京城齒科大學沿革史』, 1964. 97쪽.

83) 경성치과대학동창회, 『京城齒科大學沿革史』, 1964. 8쪽.

84) 경성치과대학동창회, 『京城齒科大學沿革史』, 1964. 7-9, 91쪽.

85) 편찬위원회, 『서울대학교치과대학사』, 2002. 35쪽.

86) 檀崎東陽, 「한국치과의계의 추억」, 『대한치과의학사연구회지』, 1, 1960. 74쪽.

87) 檀崎東陽, 「한국치과의계의 추억」, 『대한치과의학사연구회지』, 1, 1960. 75쪽.

88) 『滿鮮之齒界』, 5권 9호, 1936. 10쪽.

89) 『滿鮮之齒界』, 5권 9호, 1936. 13-14쪽.

90) 『滿鮮之齒界』, 5권 9호, 1936. 10쪽.

서울의 大澤義誠, 柳樂達見, 生田信保, 利根川清治郎, 外圭三, 滿田操, 佐野捨吉, 廣瀬文質, 堤〇〇, 御園政二, 三科〇〇, 지방의 치과의사로서 부산의 高橋貞一, 別府禮吉, 能野種冬, 柳橋源太郎, 경남 통영의 河內一宗, 평양의 藤井康基, 竹下〇〇, 마산의 野村親俊 등이 참석하였다.

도록 권고하고 있었다. 그러나 서울, 부산, 평양에만 치과의사회가 있을 뿐이었다. 지방의 치과의사회를 설립한 후 전국적인 단체를 조직하기는 시간적으로 어려우므로 우선 중앙에 만들어 놓고 각 지방에서 회원을 개인별로 참석 시키기로 한 것이었다.<sup>91)</sup>

조선치과의사회는 일본인 치과의사가 주동한 일본인 치과의사를 위한 조직이었다. 조선치과의사회의 조직은 회장, 부회장, 이사, 평의원, 지방위원 제도가 있었는데, 회장을 비롯한 거의 모든 임원을 일본인이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회장은 나라자끼 도오요오(樺崎東陽)·이이다 데쓰(飯塚徹)·도내가와 세이지로오(利根川清治郎)·소토 케이쥔(外圭三)·오오자와 기세이(大澤義誠)·나기라 다쓰미(柳樂達見)가 역임하였다.<sup>92)</sup> 한국인 치과의사들은 조선 치과의사회에 가입했으나 소외되는 것이 당시의 현실이었다. 한국인 치과의사가 임원으로 뽑힌 것은 설립 후 10년 이 지난 1930년 김연권(金然權)이 이사로, 이성모(李成模)가 평의원이 된 기록이 처음 보이는 실정이었다.

한성치과의사회(漢城齒科醫師會)는 1925년 한국인만으로 조직된 치과의사회였다. 설립 배경은 한국인만의 치과의사회의 필요성을 공감하였기 때문이었다. 함석태는 한국인 최초의 치과의사로서 당당하게 치의학에 대한 사회에 인식을 환기시키는 것과 후진의 앞길을 열어주는 일에도 책임을 느꼈다.<sup>93)</sup> 그는 한국인 치과의사로서의 사회에 봉사가 되는 것이라면 어떠한 노력도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sup>94)</sup> 또한 함석태의 성향에는 나라와 동포를 사랑한 면도 있었다.<sup>95)</sup> 경성치과대학교 제1회 졸업생의 경우 배움의 길에서 한국인만의 치과의사회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었다.<sup>96)</sup> 그리고 한성치과의사회가 자발적으로 참여한 조동흠이나 총독부위원 치과에서 조수로 근무하던 김연권의 경우에도 공감하여 함께 참여했을 것이다.

한성치과의사회는 경성치과대학교 제1회로 졸업한 젊은 치과의사들의 제안에 의하여 설립되었다. 회원은 7명으로 회장에는 한국 최초의 치과의사인 함석태가 추대되었고, 총무에는 경성치과대학교 제1회로 졸업한 안중서를 선임하였다. 한성치과의사회 회원은 매년 증가하게 되었다.<sup>97)</sup>

1928년도부터는 각 부서를 결정하여 회의 체계를 확립시켰다. 회의 체계가 확립되자 회(會)의 목적이 친목 이외에 학술연구, 구강위생계몽, 회원복리로 발전하게 되었다.<sup>98)</sup> 설립 시에는 회장과 총무뿐이었으나 1933년 12월 31일 총회에서는 부회장이 추가되었고 이사와 평의원제를 채택한 것은 회의 체계를 확립했음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이후 1939년의 경성치과용품조합 조합기 입혼식에 박명진이 한성치과의사회 회장으로 참석한 것을 보면 이전에 회장이 경질되었음을 알 수 있다.<sup>99)</sup> 또한 1941년 초 한성치과의사회 총회에서 이사장으로 조동흠이 선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sup>100)</sup>

91) 『滿鮮之齒界』, 5권 9호, 1936. 10쪽.

92) 『滿鮮之齒界』, 5권 9호, 1936. 13쪽

초대회장은 樺崎東陽였으나 1개월 후에 사임하고 利根川清治郎가 부회장으로 회장을 대리했다. 1922년 10월 총회에서 飯塚徹가 회장으로 선임되었으나 1924년 6월 사임함에 따라 다시 利根川清治郎가 부회장으로 회장을 대리했다. 1924년 10월 총회에서 利根川清治郎가 회장이 되었고, 1926년 10월 총회에서는 外圭三이 회장이 되었다. 1928년 10월 총회에서 利根川清治郎가 다시 회장이 되어 3회 연임하였다. 1934년 大澤義誠, 1945년 柳樂達見이 회장을 역임하였다.

93) 『滿鮮之齒界』, 5권 9호, 1936. 23-24쪽.

94) 咸錫泰, 「口腔衛生」, 『東亞日報』, 1924년 2월 1일자.

願컨데 우리 一般社會나 教育家에서도 좀 더 一般衛生 乃至 口腔衛生을 理解하여 주면 비록 일個人的 微力으로라도 幸히 附屬의 望을 達할가 하나이다.

94) 咸錫泰, 「口腔衛生」, 『東亞日報』, 1924년 2월 1일자.

願컨데 우리 一般社會나 教育家에서도 좀 더 一般衛生 乃至 口腔衛生을 理解하여 주면 비록 일個人的 微力으로라도 幸히 附屬의 望을 達할가 하나이다.

95) 치과임상편집부, 「한국치의학 100년의 재조명-최초의 한국인 치과의사 함석태 스토리」, 『치과임상』, 1985; 6. 23-29쪽.; 박병래, 중앙일보, <집안망치는 골동>; <금강산 연작>

96) 안중서, 「우리나라 치의학계의 今昔談」, 『대한치과의학사연구회지』, 1960. 69쪽.

97) 안중서, 「우리나라 치의학계의 今昔談」, 『대한치과의학사연구회지』, 1960. 69쪽.

98) 申仁澈, 「한국근대치의학의 연역」, 『대한치과의학사연구회지』, 1960. 23-24쪽.

99) 『滿鮮之齒界』, 8권 10호, 1939. 38쪽. 경성치과용품조합 조합기 入魂式 거행

100) 『滿鮮之齒界』, 19권 2호, 1941. 41쪽.

조선치과의사회는 각 지역 치과의사회의 연합체인 조선연합치과의사회(朝鮮聯合齒科醫師會)로 전환시키기로 하였다. 1930년 10월 조선치과의사회 총회에서 치과의사회의 연합에 대하여 연구하기로 의결하였다.<sup>101)</sup> 이것은 앞서 1930년 6월 4일 ‘충치예방의 날’ 행사에서 각 치과의사회와 개인들이 참석하여 연합체로서 큰 힘을 발휘했기 때문이었다.<sup>102)</sup>

조선연합치과의사회로 개편되는 또 다른 이유는 1930년 10월 조선치과의학회 총회에서 불편한 관계가 노출되었기 때문이었다.<sup>103)</sup> 이에 1932년 10월 30일 나기라 다쓰미(柳樂達見)는 경성의학전문학교를 배경으로 경성치과의학회(京城齒科醫學會)를 설립하게 되었다. 그 결과 조선치과의학회가 분리되어 경성치과의학회와 양립하게 되었다. 이러한 학회의 분립 상황 때문에 치과의사들의 단결이 더욱 요구되는 실정이었다.

1932년 10월 2일 조선치과의사회는 총회에서 지방조직을 확대하기로 결의하였다. 조선치과의사회는 각 지방 치과의사회를 조직하여 연합체인 조선연합치과의사회를 만들게 되었다. 처음에는 12개 치과의사회가 참여했고, 1935년 총회에서는 20개 치과의사회가 참여하게 되었다.<sup>104)</sup> 1938년에는 25개의 가맹 단체<sup>105)</sup>가, 1940년 3월 31일 총회에서는 27개 치과의사회가 가맹하게 되었다.<sup>106)</sup>

조선연합치과의사회의 성격은 공법인(公法人)으로 개인의 이익보다는 국가의 위생행정사무에 공헌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sup>107)</sup> 조선연합치과의사회는 중일전쟁을 전후해서 전시체제에 따르게 되었다. 조선군사후원연맹에 가맹하게 되었고, 출정황군위문 치과진료반 파견하기도 했다.<sup>108)</sup>

조선연합치과의사회에 한국인 치과의사들이 참석했으나 소외되는 것이 당시의 현실이었다. 1932년과 1933년 조선치과의사회 총회에 평양치과의사회의 대의원으로 한동찬(韓東燦)이 참석하였다.<sup>109)</sup> 한동찬이 대의원으로 참석할 수 있었던 것은 평양치과의사회 회장이었기 때문이었다. 평양치과의사회는 그 구성비에서 1926년 이후에는 한국인 치과의사가 일본인 치과의사보다 항상 많은 편이었다.

1935년 9월 25일 한국인만의 치과의사회인 한성치과의사회가 조선연합치과의사회에 가맹하였다. 한국인만으로 구성된 한성치과의사회의 조선연합치과의사회에 가맹하는 것은 수개월 전부터 관심을 가질 만한 일이었고 화제의 대상이 되었다. 조선연합치과의사회에서는 한성치과의사회가 가입할 예정이라는 것을 미리 발표하며, 한성치과의사회가 서울에 있는 한국인들의 모임으로서 1925년에 발족했다고 밝히기도 했다.<sup>110)</sup> 가맹한 이유는 1928년 과거 평양에서와 같이 법정치과의사회가 곧 생길 수 있다는 염려 때문에 한성치과의사회가 조선연합치과의사회에 가맹했으리라고 추정된다. 법정치과의사회는 조선연합치과의사회의 숙원사업의 하나였다.<sup>111)</sup>

이후 한성치과의사회는 한국인 치과의사를 대표하는 치과의사회로서 역할을 하게 되었다. 1935년 6월 경성치과

101) 『朝鮮之齒界』, 1권 2호, 1930. 11쪽.

102) 『朝鮮之齒界』, 1권 3호, 1930. 5-7쪽. 「조선치과의사회를 조선연합치과의사회로 개정할 필요」

경성, 부산, 평양, 인천, 광주, 함북, 대구, 진남포 치과의사회가 참석하였고, 목포, 군산, 전주, 마산, 원산, 대전, 신의주 치과의사가 개인적으로 참석하였다.

103) 『朝鮮之齒界』, 1권 2호, 1930. 9-10쪽.; 『朝鮮齒科醫學會雜誌』, 7권 1호(통권15호) 1931. 22-26쪽.

104) 『滿鮮之齒界』, 4권 10호, 1935. 35쪽.

이때에 함흥, 목포, 신의주, 전주, 광주, 평남, 수원, 개성, 한국인만의 한성치과의사회도 가입하였다.

105) 『滿鮮之齒界』, 7권 7호, 1938. 44쪽.

이때에 참석한 단체는 경성부, 한성, 인천부, 개성부, 수원, 부산부, 대구부, 여수, 광주, 전주, 군산부, 청주, 대전부, 목포부, 황해도, 평양부, 평남, 원산부, 함흥부, 함경북도, 신의주부, 통영, 경남(천안) 진남포부, 흥남치과의회이었다.

106) 『滿鮮之齒界』, 9권 4호, 1940. 33쪽.

107) 『滿鮮之齒界』, 2권 9호, 1933. 29쪽.

108) 『滿鮮之齒界』, 8권 9호, 1939. 33쪽.

109) 『滿鮮之齒界』, 1권 1호, 1932. 31쪽.; 2권 10호, 1933. 38쪽.

110) 『滿鮮之齒界』, 4권 7호, 1935. 37쪽.

111) 朝鮮聯合齒科醫師會는 1933년, 1934년, 1935년. 1939년 總會에서 법정치과의사회 문제를 의안으로 채택했다.

의사회의 간친회,<sup>112)</sup> 1936년의 충치예방의 날,<sup>113)</sup> 경성부치과의사회 25주년행사,<sup>114)</sup> 1937년 원단의 광고,<sup>115)</sup> 1937년의 충치예방의 날,<sup>116)</sup> 1937년 군사후원연맹가맹,<sup>117)</sup> 1939년의 경성치과용품조합 조합기 입혼식,<sup>118)</sup> 1941년의 치아와 건강전람회,<sup>119)</sup> 조선치과용품상조합이 상업조합령으로 발족<sup>120)</sup>할 때에 한성치과의사회는 경성치과의사회와 그 위치를 동등한 수준으로 참석하고 있었다.

이후 한국인 치과의사를 대표하는 치과의사회로서 한성치과의사회 함석태와 조동흠은, 평양치과의사회의 한동찬과 같이, 조선연합치과의사회의 평의원이 되기도 하였다.<sup>121)</sup> 1939년에 이르러 박명진(朴明鎭)·박부영(朴扶榮)이 평의원이 되었다.<sup>122)</sup> 1940년에 최병지(崔丙智)·이창용(李昌鎔)·김찬규(金讚圭)·김성도(金性度)·김상문(金尙文)이 박명진·박부영과 같이 지방을 대표하는 평의원이 되었다.<sup>123)</sup>

‘시국 정세(時局 政勢)’는 치과의사회가 변화하는데 한 요인이 되었다. 1940년 3월 31일 조선연합치과의사회 총회에서는 도별 치과의사회 설립을 가결하였다. 도별 치과의사회 설립은 전국의 치과의사를 단결시킨다는 취지였다. 도별 치과의사회 설립은 각 도의 위생과에 의한 관권이 개입되었다.<sup>124)</sup>

이에 1940년 5월 12일 함경남도치과의사회가 설립되고,<sup>125)</sup> 약 5개월 후인 11월 23일까지 강원도치과의사회가 마지막으로 도별 치과의사회를 결성을 마무리했다.<sup>126)</sup> ‘시국 정세’로 인해 모든 치과의사들이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었다. 1940년 각 도별 회원수는 정회원 1,019명, 준회원(입치사) 188명으로 총계 1,207명이었다. 심지어 준회원으로 입치사까지 가입시켜 관리하게 했다.<sup>127)</sup>

1941년 3월 23일 조선연합치과의사회의 가맹회장 회의에서 조선연합치과의사회를 개조(改組)하여 종래의 각 지방 치과의사회는 도 산하로 들어가고, 그 후 각 지방 치과의사회는 자연히 소멸되도록 결정했다.<sup>128)</sup> 또한 1941년 5월 25일 조선연합치과의사회 총회는 ‘시대에 따라’ 합리적으로 회를 개조하며, 회 명칭도 조선치과의사회라고 다시 부르게 하였다.<sup>129)</sup>

112) 『滿鮮之齒界』, 4권 7호, 1935. 42-43쪽. 京城齒科醫師會 懇談會

113) 『滿鮮之齒界』, 5권 7호, 1936. 35쪽. 京城의 蟲齒豫防 데이

114) 『滿鮮之齒界』, 5권 12호, 1936. 29쪽. 경성부치과의사회 25주년 행사

115) 『滿鮮之齒界』, 6권 1호, 1937. 3쪽. 광고

한성치과의사회가 조선연합치과의사회, 경성부치과의사회 등과 동등하게 광고 되고 있다.

116) 『滿鮮之齒界』, 6권 7호, 1937. 36쪽. 京城의 蟲齒豫防데이

117) 『滿鮮之齒界』, 6권 9호, 1937. 38쪽. 軍事後援聯盟加盟

118) 『滿鮮之齒界』, 8권 10호, 1939. 38쪽. 경성치과용품조합 조합기 入魂式 거행

119) 『滿鮮之齒界』, 10권 6호, 1941. 40쪽. 齒牙와 健康展覽會

120) 『滿鮮之齒界』, 10권 10호, 1941. 32-33쪽. 朝鮮齒科用品商組合 商業組合令으로 發足

121) 『滿鮮之齒界』, 5권 3호, 1936. 41쪽.

122) 『滿鮮之齒界』, 8권 5호, 1939. 34쪽.

123) 『滿鮮之齒界』, 9권 4호, 1940. 33쪽.

124) 『滿鮮之齒界』, 9권 4호, 1940. 33쪽.

125) 『滿鮮之齒界』, 9권 7호, 1940. 28쪽.

126) 『滿鮮之齒界』, 10권 1호, 1941. 28쪽.

127) 경기도: 정회원 313명, 준회원 10명, 계 323명 (경성 245명 포함, 그 중 한국인 73명)

경상남도: 정회원 128명, 준회원 18명, 계 146명 경상북도: 정회원 67명, 준회원 16명, 계 83명

전라남도: 정회원 45명, 준회원 27명, 계 72명 전라북도: 정회원 40명, 준회원 7명, 계 47명

충청남도: 정회원 39명, 준회원 13명, 계 52명 충청북도: 정회원 15명, 준회원 11명, 계 26명

강원도: 정회원 34명, 준회원 13명, 계 47명 황해도: 정회원 52명, 준회원 23명, 계 75명

평안남도: 정회원 104명, 준회원 11명, 계 115명 평안북도: 정회원 57명, 준회원 21명, 계 78명

함경남도: 정회원 68명, 준회원 16명, 계 84명 함경북도: 정회원 57명, 준회원 2명, 계 59명

총계: 정회원 1,019명, 준회원(입치사) 188명 계 1,207명

128) 『滿鮮之齒界』, 10권 5호, 1941. 25-27쪽.

129) 『滿鮮之齒界』, 10권 7호, 1941. 34쪽.



도별 치과의사회 설립 이후 치과의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다. 후생국을 신설하며,<sup>130)</sup> 1942년 2월 조선후생협회가 발족했다.<sup>131)</sup> 도별 치과의사회 설립 이후 치과의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 것은 법의 집행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1941년 조선치과의사회는 부회장을 1명 보강하여 조동흠이 선임되었으나<sup>132)</sup> 사망하고, 1943년 조선치과의사회 총회에서 부회장에 함석태가 보선되었다.<sup>133)</sup>

치과의사회를 법정치과의사회로 변화시키려는 것은 허구였음이 드러나게 되었다. 이러한 한계성은 지도층에 있었던 일본인 치과의사의 대화에서 엿볼 수 있었다.<sup>134)</sup> 한국에서 법정치과의사회를 설립하려 할 때 일본인 치과의사들의 시각은 총독부의 관리에서 벗어나 내무성 직할로 관리되도록 제도를 개혁하여야 한다. 내무성 직할로 될 때 한국인에게 참정권과 대의원 선출권을 줄 수 없는 등 복잡한 문제가 연루된다는 것이었다.<sup>135)</sup>

1942년 10월 1일에 경성치과의사회(京城齒科醫師會) 창립총회가 개최되었다. 이 총회는 의료계나 치의학계의 중진이 모두 참석할 만큼 중요한 일이었다.<sup>136)</sup> 회의 구성은 회장 1명, 부회장 2명, 이사장 1명, 이사 약간명, 평의원 10명을 두도록 했고, 회장은 회무를 총리하고 본회를 대표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통합은 두 회의 대등한 것이 아니라 일본인 치과의사에 의한 일방적인 통합이었다. 임원 18명 가운데 한국인은 5명으로 1/3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일본인 위주의 임원이 구성된 것이다.<sup>137)</sup> 1925년 창립 이래 한국인만의 독자성을 유지 발전시켜 오던 한성치과의사회는 경성치과의사회의 속으로 사라졌다.<sup>138)</sup> 결과적으로 한국인 치과의사들은 단체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 (2) 치과의사회의 활동

치과의사들이 전개한 활동으로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가 충치 예방 활동이었다. 지역에서 행하던 충치 예방 활동은 1928년 6월 4일 제1회 ‘충치예방의 날’은 각 치과의사회, 문부, 내무성의 지원으로 전국적인 규모의 행사로 발전하였다.<sup>139)</sup> 행사는 무료로 강연자료, 포스터, 팸플렛 등이 배포되었고, 포스터, 팸플렛, 셀로판, 타이틀 슬라이드, 만화, 레코드 등은 각 치과의사회에서 구입하도록 하였다. 각 치과의사회는 가사·가곡의 제창, 종이연극, 쇼윈도우의

130) 『滿鮮之齒界』, 10권 12호, 1941. 43쪽.

후생국은 사회과, 노무과, 보건과, 위생과로 구성되었다.

131) 후생협회의 활동 내용은 이러하다. 인적자원 확보 요인인 의료기관의 정비, 결핵 및 화류병의 예방, 모성 및 유아의 보호, 학교위생, 산업위생상에 대한 시설 불비 등을 고려하고 이에 대한 지도의 필요성에 비추어 군관민 일치 협력하는 한 기관을 설치해서 기능을 최대로 발휘하기 위한 것이었다.

132) 『滿鮮之齒界』, 10권 7호, 1941. 34쪽.

133) 『滿鮮之齒界』, 12권 6호, 1943.; 『齒科研究』, 22권 6호, 1987. 49쪽.

134) 『滿鮮之齒界』, 5권 9호, 1936. 15쪽.

135) 『滿鮮之齒界』, 11권 10호, 1942. 22쪽.

일본 내에서는 1942년 8월 22일에는 醫師會 및 齒科醫師會令이 개정되어 醫師會 및 齒科醫師會長은 후생대신의 청에 의해 내각에서 임명하고, 道府縣 치과의사회장을 지방장관의 추천에 의하여 후생대신이 임명하는 등 法定齒科醫師會를 강화하였다.

136) 『滿鮮之齒界』, 11권 10호, 1942. 27쪽.

137) 『滿鮮之齒界』, 11권 10호, 1942. 36-37쪽.

회장 사이토 츠루오(齊藤鶴雄)

부회장 츠메다 코시로(爪田杏四郎) 정보라

평의원 오오자와 기세이(大澤義誠), 소토 케이조(外 圭三), 도네가와 세이지로오(利根川清治郎), 온다 세이지(音田清治), 미야모토 노리오(宮本範男), 하 누 히로시(羽生博), 함석태, 박명진, 이유경, 안중서

이사장(겸임) 츠메다 코시로(爪田杏四郎)

이사 이와모토 겐지(岩元健兒), 와카마츠 시게요시(若松重義), 이와세 세이존(岩瀬清尊), 모모사기 타케히라(百崎武平), 타구치 모리아끼(田口盛毅)

138) 『滿鮮之齒界』, 11권 10호, 1942. 27쪽.

한성치과의사회가 경성치과의사회와 합병할 때의 이사장은 조동흠이었고, 회장은 박명진이었다.

139) 회사편찬특별위원회, 『동경치과의사회70년사』, 사단법인 동경치과의사회, 1968. 196쪽.

장식, 강연회, 영화회, 라디오방송, 신문, 잡지, 입간판, 현수막의 이용, 표어 기타의 모집, 각종치과위생교련, 전람회표창, 치과건강상담소, 무료치과진료소의 개설 등 각 지방 실상에 맞는 사업을 실시하도록 했다.<sup>140)</sup>

1937년 이후 이러한 충치 예방 활동까지도 일제의 의도가 강하게 작용하였다. 국민정신총동원의 취지에 맞게 전국민을 위한 표어를 제정하고, 이 표어에 맞게 치과위생 지식 보급과 더불어 실천하도록 하였다. ‘바른 치열에 빛나는 건강’(1937), ‘치아의 애호에 빛나는 체위’(1939), ‘건민 건병 흥아의 초석’(1942) 등의 표어로, 국민정신총동원의 강령인 국민체위향상과 일반민중 보건위생의 취지에 맞게 실시되었다. 이 시기에 특징 있는 행사는 치마교련(齒磨敎鍊)이었다. 이것은 군대 훈련의 한 방법인 교련을 이닦기에 도입한 것으로 군국적인 요소가 가득 찬 합동체조, 행렬, 합창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sup>141)</sup>

1934년 1월 일제가 불안정한 금값으로 금 수출 금지를 하였다. 이에 따라 치과의사들은 치의학계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한 일이 있었다.<sup>142)</sup> 1939년 12월 29일 조선총독부령(제232호)으로 금 사용규칙이 강화되었다. 치과의사의 금사용도 모두 허가를 받게 하였다.

1. 금을 사용하는 것은 모두 허가를 요한다. 종전 9금 이하의 제품 제조 및 공업용 또는 의료용으로 사용할 경우는 허가를 요하지 않았지만 이번 개정에 의하여 금사용은 전면적 허가를 요한다.
2. 고금인 금지금의 양도는 허가를 요한다. 산금령에 의해 일반에 그 양도를 금지하고 있지만 고금인 금지금도 이후는 원칙적으로 조선은행 이외의 매도를 금지시켰다.
3. 고금인 금지금의 양수도 허가를 요한다. 금지금의 양수도 금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가 아니면 양수할 수 없으므로 치과의사가 사용하는 재료 금도 금사용의 허가를 얻을 수 없다면 할 수 없다.
4. 벌칙이 엄하여 졌다. 산금령 위반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였다. 종전 5000원 이하의 벌금을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금고 또는 1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개정하고 더욱 범죄의 목적물을 몰수하고 또는 그 값을 납부하게 하였다.<sup>143)</sup>

조선연합치과의사회는 금 배급문제를 협의하였으나 전쟁으로 인한 모든 물자의 부족과 함께 금 배급은 더 어려워졌다.<sup>144)</sup>

1940년 조선연합치과의사회 총회는 이러한 치과용 자재까지도 관심 사항이 되었다. ‘시국’이라는 말은 어렵기 때문에 통제한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었다. 이 문제는 경성, 청진, 부산 치과의사회의 의안을 설명한 후, 비치과의의 단속을 강화하기로 임원에 일임할 것을 가결하였다.<sup>145)</sup>

1941년 3월 23일 조선연합치과의사회 각도 치과의사회 회장 회의에서 치과용품조합장 사카이 코오이찌(酒井好一)는 치과자재 수급에 대해서 총독부 당국 및 연합치과의사회의 협조에 힘입어 최선을 다할 것이라 했다.<sup>146)</sup> 1941년 4월 1일 이후 조선총독부에서는 생활필수물자도 통제하게 되었다.

일제는 물자부족에 허덕이게 되자 마지막 고육책을 내놓았다. 즉 1942년 3월 25일 조선총독부는 의약품 및 위생재료 생산배급 통제규칙을 공포하고 이를 실시했다. 이 배급통제는 꼭 필요하지 않은 곳에 보급되는 것을 피하고 국민 보건에 불가결 의약품이나 위생재료는 증산을 명령, 혹은 보호하도록 하였다. 귀중 약품의 소모를 방지하고

139) 회사편찬특별위원회, 『동경치과의사회70년사』, 사단법인 동경치과의사회, 1968. 196쪽.

140) 『滿鮮之齒界』, 7권 4호, 1938. 41쪽.

141) 『滿鮮之齒界』, 6권 6호, 1937. 43쪽.

142) 『朝鮮齒科醫學會雜誌』, 10권 1호, 1934. 38쪽.

143) 『滿鮮之齒界』, 9권 2호, 1940. 13쪽.

144) 『滿鮮之齒界』, 11권 10호, 1942. 38쪽.

145) 『滿鮮之齒界』, 9권 4호, 1940. 28쪽.

146) 『滿鮮之齒界』, 10권 5호, 1941. 26쪽.

생산, 집하, 배급 등의 각 부문에 대해서도 물자통제령에 따라 원활과 완벽을 기하는 것이 목적이었다.<sup>147)</sup> 이것은 인간의 생명을 치료하는데 제약(制約)을 주는 일로서 일제의 한계를 뜻하는 일이기도 하다.

1939년 9월 중일전쟁으로 물자가 더욱 귀해지자 일제는 대용합금 개발에 힘을 기울였고 개발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였다.<sup>148)</sup> 1938년 9월 24일 경성치과의학회는 치과용 합금을 공보하기 시작하여,<sup>149)</sup> 1939년 10월 1일 조선치과의학회와 경성치과의학회는 학문적으로 알리기까지 했다.<sup>150)</sup> 이러한 공보는 1940년 경성치과의학회에서도 계속되었다.<sup>151)</sup> 1941년 경성치과의학회는 금을 대신한 은 합금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기도 하였다.<sup>152)</sup>

일제는 대용합금 제품 ‘팔라쥬 은 합금’을 지방으로 순회하며 선전하게 하였다.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 교수 히로타 세이이찌(弘田精一)와 조선치과용품상 조합장 사카이 코오이찌(酒井好一)는 1940년 8월 12일 함흥, 16일 청진, 17일 나진에서, 19일 원산, 21일 평양에서 강연을 했다. 히로타 세이이찌(弘田精一)는 국가가 순금을 필요로 하는 때이므로, 치과에서는 금을 대신할 수 있는 대용품으로 후생성이 금 대용품으로서 원하는 ‘파라쥬 은 합금’을 사용해본 결과 금대용으로 싼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학리와 실제로 조작·주조 등을 보여 주었다.<sup>153)</sup>

조선연합치과의사회는 1942년 10월 11일 각 도 치과의사회장 회의에서 치과자재의 배급, 치과용 약품문제를 협의하여 중요 치과용품은 조선치과의사회 발행의 구입권으로 도 회장을 통하여 구입하도록 결정했다.<sup>154)</sup> 조선연합치과의사회는 1942년 총회는 수급이 어려운 치과용 자재 및 약품, 면포(수술용) 특배에 관한 건을 의안으로 상정시켰다. 1943년 조선연합치과의사회 총회는 배급표 강화로 주요 치과재료가 운영되게 되었다.<sup>155)</sup>

대용 치과 재료를 연구하던 쇼오후우(松風)도치제조주식회사는 증화고무를 대신할 의치상용재 바이오레진을 개발했다. 1933년 9월 23, 24일 경성치과의학회 총회 및 학술강연회에서 국산 「아크릴레진」의 소개가 있는 후 연구는 결실을 보았다.<sup>156)</sup> 1940년, 1941년, 1943년 경성치과의학회 총회 및 학술강연회에서 연이은 성과가 발표되었

147) 『滿鮮之齒界』, 11권 6호, 1942. 23쪽.

148) 『滿鮮之齒界』, 8권 7호, 1939. 42쪽.

1939년 6월 1일 일본 厚生省 保險院에서는 대용금관으로 파라쥬 금관만 인정하고 니켈-크롬 합금관은 공인되지 않고 있었다. 이에 全國開業齒科醫師聯盟에서는 니켈, 크롬 합금관도 시국의 중대성과 장래 사회정책을 고려하여 치과에서 대중적인 니켈-크롬 합금의 사용을 공인되기를 진정하였다.

한편 日本齒科金屬工業組合이 1939년 7월 7일 창립되었다. 동 조합은 상공성 감독하의 공법인으로 1939년 6월 10일자 商工省 인가를 얻어 구강 내에 쓰이는 치과의료용 니켈합금 및 기타 합금 제조와 가공 금속공업의 개량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동업자가 한 단체로 뭉쳐 地金の 배급, 가격의 협정, 원료의 공동구입 및 배급, 제조의 연구지도, 품질의 개선 등을 할 예정이며, 공동의 시설을 하고 개량발달에 주력하고 당국의 전폭적 협조를 얻을 방침이라는 것이었다.

149) 『滿鮮之齒界』, 7권 10호, 1938. 35쪽.

치과용 합금의 조사 성적에 대하여 조선총독부 위생과 磯野義雄 竹中正夫 代演 山上一香(京城)

소위 치과용 합금을 사용했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생각되는 二-三의 전신질환에 대하여 弘田精一 安正浩

150) 『滿鮮之齒界』, 8권 10호, 1939. 35쪽. 「金代用合金에 대하여」 花澤 鼎

「金代用合金의 生理衛生의 所見에 대하여」 西村豊治 岡田 滿

『滿鮮之齒界』, 8권 10호, 1939. 33쪽.

齒科補綴用 金屬에 대하여 川上政雄(東京)

151) 『滿鮮之齒界』, 8권 10호, 1939. 35쪽. 「金代用合金에 대하여」 花澤 鼎

「金代用合金의 生理衛生의 所見에 대하여」 西村豊治 岡田 滿

『滿鮮之齒界』, 8권 10호, 1939. 33쪽.

齒科補綴用 金屬에 대하여 川上政雄(東京)

152) 『滿鮮之齒界』, 10권 10호, 1941. 32쪽.

銀 合金 性質의 使用上 注意해야 할 諸點에 대하여

GC 化學研究所社長 圓城芳之助

153) 『滿鮮之齒界』, 9권 9호, 1940. 22쪽.

154) 『滿鮮之齒界』, 11권 6호, 1942. 36쪽.

155) 『滿鮮之齒界』, 12권 6호, 1943. ; 『齒科研究』, 22권 6호, 1987. 49쪽.

156) 『京城齒科醫學會雜誌』, 2권 3, 4호 1933. 287쪽. 국산 「아크릴레진」계 색소제 특히 「반세프틴」의 치과의치응용에 대하여

渡辺道夫 松本文生毛



다.<sup>157)</sup> 증화고무는 치과 보철에 오랫동안 사용되고 있지만, 색채는 부자연스럽다. 합성수지 중에 메틸메타아크리레이트 수지가 있다. 이것을 기체로 한 신 의치상용제품 바이오레진을 개발하여 발표하였다.<sup>158)</sup>

일제는 조선치과용품상조합을 통하여 치과위생재료를 통제 배급하였다. 조선치과용품상조합은 1940년 4월 26일 설립되었다. 전쟁 발발로 인하여 국제 정세 등 어려움이 있으나 원활한 배급을 위하여 치과재료상이 하나로 뭉쳐 조선치과용품상조합을 설립한다는 것이었다. 일제는 1941년 4월 1일 생활필수물자 통제령을 공포하였다. 1941년 4월 16일 이후 여러 차례 공정판매가격을 고시하였다.<sup>159)</sup> 그러나 치과재료는 품귀해지고 수급은 원활하지 못했다. 다만 몇몇 재료는 50% 추가된 가격에 공급되기도 하였다.<sup>160)</sup> 치과용품조합원과 조선연합치과의사회는 이러한 치과용 자재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조선연합치과의사회는 중요 치과용품을 조선치과의사회 발행의 배급표로 구입하도록 했다. 치과용품, 의약품 및 위생재료를 생산배급 통제한다는 것은 인간의 생명을 치료하는데 제약을 주는 일로서 일제의 한계를 뜻하는 일이다.

## 5. 치과의학회의 설립과 활동

### (1) 치과의학회의 설립과 변천

조선치과의학회는 1919년 10월 조선에 있는 일본인 치과의사들이 치의학의 연구 및 그 진보, 권익 그리고 친목을 위하여 만들었다. 이전에 일본인 치과의사들은 다른 의사들과 함께 조선의학회에서 활동해 오다가 일정한 수의 치과의사들이 모이자 나기라 다쓰미(柳樂達見)·나라자키 도오요오(檜崎東陽)·도내가와 세이지로오(利根川清治郎)·오오자와 기세이(大澤義誠)가 발기인이 되어 치과의사들의 자문을 얻어 단체를 만들었다.<sup>161)</sup> 이것이 치의학 분야에서 학술단체의 시초가 되었다.

조선치과의학회는 창립 시 서울 회원 12명을 포함하여 전국에 30명 정도의 회원이 있었다. 그 후 회원은 매년 증가하였다. 1919년 10월 경성구락부에서 총독의 오찬을 대접받은 후 촬영한 창립 사진에는 23명의 얼굴이 보인다.<sup>162)</sup>

처음 회장으로서는 총독부의원 치과에 근무하던 나기라 다쓰미(柳樂達見)가 되었고, 임원은 대부분 일본인들이 차

157) 『滿鮮之齒界』, 9권 8호, 1940. 25쪽.

義齒床用材料の推移 松風陶齒會社技師 宮津 一(京都)

臨床の으로 본 各種 義齒床 材料에 대하여 新京市民病院 渡邊悌(新京)

『滿鮮之齒界』, 10권 10호, 1941. 31쪽.

合成樹脂의 齒科의 應用에 대하여 宮津 一(京都)

『滿鮮之齒界』, 11권 11호, 1942. 30쪽.

「에나레진」의 齒科적응에 대하여 宮津 一(京都)

158) 『滿鮮之齒界』, 9권 12호, 1940. 31쪽.

159) 『滿鮮之齒界』, 10권 5호, 1941. 17쪽. 조선치과용품상조합에서 신청한 석고의 공정 판매가격(조선총독부 고시 제543호)이 결정되었다.

『滿鮮之齒界』, 10권 6호, 1941. 31쪽. 1941년 5월 13일 조선에서 판매되고 있는 치과 의료용 기계 12종목에 대해 공정가격(조선총독부 제688호)이 고시되었고, 『滿鮮之齒界』, 10권 9호, 1941. 22쪽. ; 11권 1호, 1942. 24쪽. 1941년 8월 18일과 1941년 12월 4일에 改正(조선총독부 고시 제1283호와 제1956호)하였다.

『滿鮮之齒界』, 11권 7호, 1942. 17쪽. 1942년 5월 29일에는 치과기계 공정가를 추가 고시하였다.

『滿鮮之齒界』, 12권 5호, 1943. ; 『齒科研究』, 22권 6호, 1987. 48쪽. 1943년 3월 9일에 왁스, 3월 13일에 수은, 3월 19일에 은아말감 합금 등의 공정가격을 공시하고 『滿鮮之齒界』, 12권 5호, 1943. ; 『齒科研究』, 22권 6호, 1987. 51쪽. 1943년 7월에는 도치 가격을 고시하였다.

160) 이한수선생님의 증언에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161) 『朝鮮齒科醫學會雜誌』, 1호; 1925. 102쪽; 『滿鮮之齒界』, 5권 9호, 1936. 5쪽.

장곡전정 은행집회소에서 열린 창립 총회에는 총독부 학문과장이 참석했고, 경성구락부에서 총독의 오찬을 대접받기도 하였다.

162) 『滿鮮之齒界』, 5권 9호, 1936. 5쪽.

지했다.<sup>163)</sup> 한국인 임원은 미미한 수준으로 1927년 접대계에 안종서(安鐘書) 연회계에 함석태(咸錫泰)·조동흠(趙東欽) 1928년 접대계에 안종서, 연회계에 함석태·김연권(金然權) 1930년 지방위원 한동찬(韓東燦)이 참가했을 뿐이었다. 학회에서 발표한 한국인은 27명이며, 486개의 연제 중에서 약 15%인 75개를 발표하였다. 한국인으로 조선치과의학회에서 제일 먼저 발표한 사람은 유창선(劉昌宣)으로 연제는 「전신적 질환의 구강에 미치는 영향」였다. 반대유(潘泰收)와 배진극(裴珍極)의 글은 후에 박사학위 수여에 일조하는 논문이 되기도 했다.

총회는 년 1회 열렸다. 1923년 관동대지진과 나기라 다쓰미(柳樂達見)의 양행(洋行),<sup>164)</sup> 1937년 중일전쟁, 1941년 태평양전쟁으로 임시 중지되었을 뿐, 총 21번의 총회가 열렸다. 1925년경 회가 빈약하여 경비는 안내장의 인쇄비, 우표값까지 나기라 다쓰미(柳樂達見)가 지불하는 상태였다.<sup>165)</sup>

1930년 총회에서 이꾸다 싱호(生田信保)가 총회비 징수를 문제화시키면서 나기라 다쓰미에게 반기를 들었다.<sup>166)</sup> 이러한 총회의 분위기는 임원선거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나기라 다쓰미 회장은 신진인 사와 야마이(澤山居)를 추천하고 사임하였으나 회장에 미시나 케이키치(三品敬吉)가 당선되는 결과를 낳았다.<sup>167)</sup> 이러한 일들은 조선치과의학회의 운영이 나기라 다쓰미에서 이꾸다 싱호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었다. 1932년 이꾸다 싱호가 회장이 되었다. 이후 조선치과의학회의 주 구성원은 경성제국대학과 경성의학전문학교 치과의사 및 개업 치과의사들이었다.

조선치과의학회는 학회지 『조선치과의학회잡지』를 발간하였다. 1925년 6월 15일 창간되었으며, 1926년 이후 매년 2-4회 발행하였다. 이렇게 출발한 잡지는 1939년 14권 3,4호까지 총38권이 발간되었다.

경성치과의학회는 1932년 10월 30일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를 배경으로 설립되었다. 이 학회에서는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 교우회원 및 회의 목적에 찬성한 일반치과의사를 정회원으로 하고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 학우회원을 준회원으로 조직되었다. 경성치과의학회는 설립 시 회원이 약 400여명 정도이었다. 회장은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장 나기라 다쓰미(柳樂達見)가 맡았고, 기타 임원은 회장이 선임하였다.<sup>168)</sup>

한국인은 1932년 평의원 안종서, 박명진, 수원 이창용, 평양 한중호 등이 참석하였다.<sup>169)</sup> 학회에서 발표한 사람은 16명이며 481개중의 연제 중 약 11%의 52개를 발표하였다. 이 연제 가운데는 박명진(朴明鎭)의 박사학위 관련 논문 등이 있었다.

경성치과의학회는 조선치과의학회와 잦은 마찰이 있었다. 경성치과의학회가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 교우회 사업에서 떠나므로 일반치과의사들도 회원으로 확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나기라 다쓰미(柳樂達見)는 “학회의 임무는 학문을 진보 발달시켜야 함으로 누구든지 입회시킬 수 있고, 또한 회원은 강연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반대의 입장은 경성치과의학회가 자기 학교 위주로 활동한다면 공명정대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163) 『朝鮮齒科醫學會雜誌』, 1호; 1925. 105-107쪽.

164) 1923년의 조선치과의학회의 중지 원인을 『朝鮮齒科醫學會雜誌』, 제1호에서는 관동대지진만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경성치과대학동창회편 『京城齒科大學沿革史』, 1964. 27쪽에서는 柳樂達見의 양행도 중지 이유로 설명하고 있다.

165) 경성치과대학동창회, 『京城齒科大學沿革史』, 1964. 27쪽.

166) 『朝鮮齒科醫學會雜誌』, 8호, 1928. 32쪽.

柳樂達見와 生田信保의 관계는 柳樂達見가 총독부의원 치과의 책임자로 있을 때 生田信保는 치과로 왔다. 그 후 柳樂達見가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를 만들어 나간 후 生田信保도 경성제국대학의학부발족되자 그 자리를 맡게 되었다.

167) 간사 서무계 中尾増司, 회계계 御蘭政三, 편집계 増田二郎, 지방위원 부산 別府禮吉, 高橋貞一, 대구 金子英志, 高達, 인천 天長親夫, 能治太郎, 평양 河崎正信, 韓東燦, 함흥 降旗一雄

168) 『京城齒科醫學會雜誌』, 1권1-2호; 1932. 56-60쪽.

169) 1932 안鍾書, 朴明鎭, 수원 李昌鎬, 평양 韓宗鎬

1934 평의원 평양 韓宗鎬, 수원 李昌鎬, 대구 金裕植, 간사(서무) 朴明鎭

1936 평의원 인천 林榮均, 평양 韓宗鎬, 수원 李昌鎬, 대구 金裕植

1940 평의원, 李有慶, 평양 韓宗鎬, 진주 金尙文, 수원 李昌鎬, 만주 金既鍾, 간사(서무) 朴明鎭, 安田正浩, 간사(회계) 鄭保羅

기존의 조선치과의학회 하나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것이었다.<sup>170)</sup>

경성치과의학회는 조선치과의학회와 경쟁적으로 활동하였기에 규모 면에서 양적인 팽창을 가져왔으며 해마다 졸업생 배출로 회원이 증가되어 학회의 역량이 증강되었다.<sup>171)</sup> 경성치과의학회의 총회는 1937년 중일전쟁으로 중지된 이외에 설립부터 1943년까지 11번 열렸다.

경성치과의학회는 학회지 『경성치과의학회잡지』를 발간하였다. 이 잡지는 1932년 12월 1일에 발간을 시작으로 1년에 3-4회 발행하여 총 25권였다.

경성치과의학회의 연사 중에는 쇼오후우 켄지(松風憲二) 사장과 미야즈 하지메(宮津一) 공장장이 매년 참석하여 치과재료에 관심을 표명하였다.<sup>172)</sup> 경성치과의학회 총회에는 반드시 쇼오후우 켄지가 출석하였고 강연을 하였다. 그리고 경성치과의학회 강연을 하는 때가 1개년 동안에 연구한 신제품의 완성이 경성치과의학회 총회에 맞추어 진다고 쇼오후우 켄지는 늘 나기라 다쓰미(柳樂達見)에게 말하곤 했다.

## (2) 치과의학회의 활동

조선치과의학회의 학술 활동은 그 출발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개업 치과의사들을 위한 보다 임상적인 내용이 많았고, 경성치과의학회의 학술 활동은 학교를 배경으로 하여 보다 학문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 조선치과의학회와 경성치과의학회 과별 연제수

과별	역사	임상	외과	병리	치주	보존	보철	교정	예방	조직	약리	재료	기타	총계
조선	5	6	190	85	18	35	49	5	18	29	20	14	12	486
경성	8	8	102	49	18	63	37	16	20	66	39	45	10	481

### 조선치과의학회와 경성치과의학회의 지부 과별 연제수

과별	역사	임상	외과	병리	치주	보존	보철	교정	예방	조직	약리	재료	기타	총계
조지	2	2	13	4	1	3	15	0	2	3	0	0	8	53
경지	5	1	13	2	2	4	13	6	3	3	6	10	11	79

구강외과와 치아주위조직 질환은 염증성인 것이 많았다. 염증성 질환이 많았다는 것은 항생제가 개발된 오늘과 비교할 때 당연한 결과일 수밖에 없다. 조선치과의학회의 학술 활동 가운데 가장 특징적인 것이 구강외과 질환이다. 이것은 1920년대 치과의사와 임치사의 차별성을 학문적, 임상적으로 확실히 보여주는 한 분야이기도 하였다. 경성치과의학회의 구강외과 활동은 약 21%를 차지하고 치주 및 병리를 포함한다면 약 35%가 된다. 경성치과의학회의 구강외과 활동 중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치통에 관한 연구이다.

그러나 연구를 진행시키는 데에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했다. 나기라 다쓰미(柳樂達見)의 실험적 치통 야기 방법에 의한 실험을 1932년 4건, 1933년 4건, 1934년 1건을 했는데 이 치통 야기 방법에 대하여 각 방면에서 의문이 제

170) 『滿鮮之齒界』, 5권 9호, 1936. 19-20쪽.

171) 垣見庸三, 「조선치과의 회상」, 『齒界展望』, 11권 15호, 1954. 8; 『대한치과의학사연구회지』, 1961. 42쪽.

172) 경성치과대학동창회, 『京城齒科大學沿革史』, 1964. 39쪽.

기되었다.<sup>173)</sup> 이에 야오 타로(矢尾太郎)는 나기라 다쓰미(柳樂達見)의 실험적 치통 야기 방법이 타당하다고 변명하기도 했으나, 1935년 이후 “실험적 치통 야기 방법”이라는 말이 논문제목에서 사라졌다.<sup>174)</sup>

병리조직학적인 연구과정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까지도 사용되기도 했다. 치과의사들은 전신질환과 치아와의 관계로 수은 및 당, 담즙, 자당, 교맥분이 치아와 골 발육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도 하였다.<sup>175)</sup> 화학물질인 불화나트륨, 뇨소, 과만염산화리독, 식물신경독주사, 염산의 과잉투여, 스트론튬, 불화소다 투여, 광역학적 작용에 따른 치아 및 그 지지조직의 변화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sup>176)</sup> 구강내의 연조직에 관한 질환으로는 납의 흡입으로 침착과 배설이 문제되기도 했으며, 그 외에 다른 금속인 은, 초산은 등의 침착과 흡수에 따른 조직학적인 변화의 연구와 치아 사이에 병리조직학적인 연구가 시행되기도 했다.<sup>177)</sup>

173) 경성치과의학회 연제

- 32/4 실험적 치통의 위 및 장중의 효소에 미치는 영향, 野口三郎
- 32/9 실험적 치통에서 담즙중의 「카롬」, 「나트륨」 및 「마그네슘」의 소장(消長)에 대하여, 野口三郎. 靑沼一男
- 32/41 실험적 치통에 대한 「코카인」 「노보카인」 「토로파코카인」의 진통효력 및 비등약물과 「아드레날린」과의 상승작용에 대하여, 矢尾太郎
- 32/45 치통과 간장기능 1. 치통이 담즙중 「아조로빈」S의 배설에 미치는 영향, 野口三郎
- 33/54 실험적 치통의 혈액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弘田精一, 奥野範一
- 33/53 치통의 장관 및 자궁운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弘田精一
- 33/59 치통의 신진대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野口三郎
- 33/55 당류에 의한 일과성치통 야기에 대한 1고찰(예보) 森藤 三
- 34/31 실험적 치통에 대한 2-3 아편 「알카로이드」 및 그 제제의 진통효력에 대하여, 森藤陽三

174) 경성치과의학회 연제

- 34/34 柳樂達見의 실험적 치통 야기방법에 대한 재음미, 矢尾太郎

175) 조선치과의학회 연제

- 35/39. 임상치과병리학과 그 치료학에의 응용(특별강연) 正木 正
- 24/4. 치과에 있어서 양성(兩性) 요기에 관한 고찰 藤井康基
- 27/13. 생체 내에 섭취된 수은의 운명에 대하여 野居中平
- 28/11. 담즙의 의의 특히 담즙 결핍에 의한 사인의 연구 生田信保
- 28/18. 수은 및 당의 혈액 및 피부효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野口三郎
- 31/9. 자당 과잉식이 유약동물의 치아와 골 발육에 미치는 영향과 生化學的 연구 岡田 正
- 38/18. 소아당뇨병환자에 있어서 치아의 육안적 소견 大脇博人
- 40/8. 자당과잉투여가 2-3장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보유(補遺) 今尾勝己
- 40/15. 자당(蔗糖)의 백서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특별강연) 廣川幸三郎
- 42/20. 당투여에 의한 치아 및 그 지지조직 및 간장 「그리코겐」의 시간적 소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大脇博人
- 43/5. 교맥분 투여에 의한 치아변화에 관한 연구보유(補遺) 城田泰攸
- 조선치과의학회 지부 연제
- 41/4. 「아티디시스」성 치아변화설에 관한 연구보유(補遺) 今尾勝己

176) 조선치과의학회 연제

- 38/20. 불화「나트륨」 과잉투여 태아 및 유아의 치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趙昊衍
- 38/8. 불화「나트륨」 과잉투여의 「랏테」 및 「모르모트」의 치아 및 그 지지조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趙昊衍
- 38/23. 요소 과잉 투여가 치아 및 그 지지조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大脇博人
- 35/38. 광역학적 작용의 치아발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특히 그것과 비장 및 망상직내피세포계통과의 관계 裴珍極
- 36/24. 구강점막에 미치는 광역학적 작용과 망상조직내피세포계통과의 관계 裴珍極
- 38/25. 구강점막에 미치는 광역학적 작용과 망상내피세포계통과의 관계(제4회 보고) 간장기능장애에서 본 체내성 광역학적 물질과 R.B.S.와 관계에 대하여 裴珍極
- 38/26. 과만염산화리독의 치아 및 그 지지조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험적 연구 黒木 聲 鄭用國
- 39/19. 식물신경독주사에 의한 치아형성조직의 변화에 관한 연구보유(補遺) 大脇博人
- 39/21. 여러 가지 산류투여로 인한 치아에 대하여. (제1보고) 염산의 과잉투여에 의한 치아변화 今尾勝己
- 40/9. 산류 및 자당과잉투여에 의하여 2-3 장기에 나타난 변화의 비교 今尾勝己
- 43/6. 「스트론튬」 투여에 의한 치아 변화에 관한 연구보유(補遺) 城田泰攸
- 43/7. 불화 「소다」 투여에 의한 치아변화에 관한 연구보유(補遺) 城田泰攸
- 43/8. 「스트론튬」 불화 「소다」 교맥분 투여에 의한 치아변화의 비교에 대하여 城田泰攸

177) 경성치과의학회 연제

- 34/61. 납중독에 즈음하여 각 조직에 있어서의 납의 침착량에 대하여, 野口三郎
- 35/40. 창염의 배설 및 침착에 대하여, 野口三郎
- 35/43. 초산은에 의한 미뢰의 조직학적 변화에 대하여, 桑山邦松
- 36/19. 은의 배설 및 치은 기타 2-3 장기 중에 있어서의 침착에 대하여, 野口三郎
- 40/34. 금속제제의 치아 및 구강부속조직내 흡수에 관한 실험적 연구, 朴明鎭
- 41/24. 치간의 병리조직학적 연구보유(補遺), 西山幸男

또한 치수의 실험에 사용되는 약제는 비소의 제재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아비산을 주로 사용했다. 아비산에 관한 조직, 약리, 병리, 신진대사 등 종합적인 연구를 하였다.<sup>178)</sup> 그러나 치료 후의 부작용인 치통, 치근막염과 치조 농루로 인하여 대체 약품이 요구되었다.<sup>179)</sup> 이 요구로 호르마린제, 산 및 알카리류, 안티홀민 및 포수 크로랄, 벤졸 과 그 유도체 등 발암성인 화학제품이 진통효과와 단백응고 반응에 대한 약리학적 연구가 진행되기도 했다.<sup>180)</sup>

근대치의학이 들어온 후 보철은 인종이나 성별에 구분 없이 누구에게나 가능한 일이 되었다.<sup>181)</sup> 염증성 질환으로

#### 178) 경성치과의학회 연제

- 33/56. 아비산의 치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약리학적 연구, 矢尾太郎
- 33/57. 아비산의 치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직학적 연구, 桑山邦松
- 34/10. 신아비산호제 「알펠트」의 임상례와 병리조직학적 소견, 堀武, 小松松夫, 本田一男
- 34/46. 아비산의 신진대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野口三郎, 金仁煥
- 34/65. 아비산에 관한 실험적 연구. 1. 아비산을 가토치아에 첩포(貼布)한 때의 비소의 요증 배설량에 대하여, 垣見庸三
- 35/28. 아비산에 관한 실험적 연구. 제2보고 아비산의 가토근육내주사시 비소의 요증 배설에 대하여, 垣見庸三
- 35/29. 아비산에 관한 실험적 연구, 제3보고 아비산의 가토피하주사시 비소의 요증 배설에 대하여, 垣見庸三
- 36/53. 아비산에 관한 실험적 연구, 「알카리」투여의 비소노중배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垣見庸三
- 34/66. 아비산의 신경섬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직학적 연구, 桑山邦松
- 35/26. 아비산이 지각신경 및 운동신경에 미치는 작용의 추보, 朴明鎭
- 35/27. 아비산의 약리작용에 대한 1고찰, 朴明鎭, 矢尾太郎
- 35/25. 아비산에 의한 혈소판 증다의 중추성 조절, 平岡彌之助
- 36/45. 아비산염의 생물학적 작용에 관한 연구 보유(補遺) 第1篇, 아비산소다에 의한 백혈구증다의 중추성 간장성 조절에 대하여, 平岡彌之助
- 38/34. 아비산 첩포(貼布) 1개월 후에서 가토치아 및 간장중의 비소량에 대하여, 垣見庸三
- 38/35. 가토치아의 아비산 첩포(貼布) 시에서 비소의 타액 중 배설에 대하여, 垣見庸三
- 조선치과의학회 연제
- 22/8. 비소가 조직 중에 미치는 연구 柳樂達見
- 28/17. 아비산의 약리학적 지견 추보 및 이것의 치의학적 고찰 矢尾太郎
- 20/14. 아비산 실험법 米田定一

#### 179) 선치과의학회 연제

- 28/1. 아비산실험시 계발증으로서의 치통에 대하여 松岡克己
- 21/14. 하우씨 근관소독에 대하여 三品敬吉
- 22/11. 하우씨 銀液에 관한 소 실험 岡田正
- 33/50. 리바놀, 근관내의 응용에 의한 치근막염 및 치조루의 치험례 裴珍極

#### 180) 경성치과의학회 연제

- 33/2. 「호르마린」제로 된 소위 근관소독약의 단백응고성에 대하여, 森藤陽三
- 33/15. 소위 근관청소 및 확대제의 단백용해작용에서 본 비교연구, 1. 산 및 알카리류에 대하여, 森藤陽三
- 33/16, 2. 「안티홀민」 및 포수 「크로랄」에 대하여, 森藤陽三
- 32/10. 2-3 상아질소독약의 진통효력비교에 관한 실험적 연구, 矢尾太郎
- 38/36. 소위 상아질 소독약의 약리학적 연구, 矢尾太郎
- 38/22. 응고단백투명반응에서 본 소위 상아질 소독약의 비교에 대하여, 矢尾太郎, 住友武久
- 32/12. 단백 응고반응에서 본 상아질 소독약의 가치, 矢尾太郎, 森藤陽三
- 36/52. 치수에 「벤소일」 및 그 유도체를 도포한 때 치수지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弘田精一
- 38/30. 「벤졸」 및 그 유도체의 운동신경섬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제2보고 페놀류, 朴明鎭
- 38/20. 응고단백 투명반응에서 본 2-3 휘발유류의 비교에 대하여, 矢尾太郎, 住友武久
- 38/21. 응고단백 투명반응에서 본 「벤졸」 및 그 유도체의 비교에 대하여, 矢尾太郎, 住友武久

#### 181) 조선치과의학회 연제

- 32/12. 보철학총론(특별강연) 長尾 優(東京)
- 25/1. 장식심리에서 본 치아 矢尾太郎
- 29/2. 보철학에서 본 백색인종과 유색인종과의 치아배열의 비교하고, 아울러 일본인 도치 배열법에 대한 나의 소신 岡田 滿
- 21/4. 표본공람 飯塚徹 守屋保久
- 21/15. 2-3의 모형 공람 官田達四郎
- 27/7. 2-3 표본공람 飯塚 徹
- 28/5. 2-3 표본에 대하여 飯塚 徹
- 32/3. 모형공람 堀江銑一(東京)
- 33/24. 금관조제표본의 공람 伊規須秀吉
- 42/17. 「오노긴」의 데먼스트레이션(특별강연) 高島義人
- 43/19. 임상 보철례 모형 공람 각회원
- 조선치과의학회 지부 연제
- 41/6. 임상보철례에 있어서의 모형 공람 井上 士
- 41/7. 임상보철례에 있어서의 모형 공람 경성지회원
- 경성치과의학회 지부 연제
- 37/1. 최근에 보철학계의 추세 岡田 正
- 37/1. 최근의 보철학계 별견 岡田 正
- 32/2. 임상보철만담 弘田精一



상악골 혹은 하악골 골절이나 악골절제 같은 대수술을 하게 되었다. 이꾸다 싱호(生田信保)는 경성제국대학 의학 부 임상강의와 조선치과의학회 연제에서 상악골 절제나 구개파열 시, 하악골이 완전 절제된 경우,<sup>182)</sup> 외상 혹은 병으로 턱뼈를 떼어낸 후의 보철물의 장착 등을 보고하였다.<sup>183)</sup> 이러한 대수술 후에 행하는 보철은 예후가 불확실한 것으로 식민지에서의 실험적행위라고 생각되어진다.

치아의 배열은 인종과 민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어 비교 연구의 대상이 되었다. 한국인의 치궁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일본인, 중국인과 차별성이 강조되기도 했다. 또한 치궁과 혈액형, 구개용적, 안면두개와 뇌두개, 우식률에 대한 관계를 규명하려 했으며,<sup>184)</sup> 악골, 구개와 교합의 형태를 민족에 따라 비교 연구하였다.<sup>185)</sup>

치과의사에게 치통의 제거는 중요한 사명의 하나였다. 알카로이드성인 모르핀이나 헤로인 등의 진통약은 습관성 부작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적절치 못한 약이었다. 때문에 비알카로이드성 진통진정약의 연구 개발되기도 했으나, 모르핀이나 헤로인 등의 과다 사용으로 습관성 부작용은 흔한 일이었다.

일제는 치과재료에 관심을 기울여 재료의 개발과 검증되지 않은 재료를 널리 사용하도록 권장하였다. 특히 금대용 합금에 관심이 많았으며 이러한 일에 치과의사들은 학문적으로 뒷받침까지 했다. 대용 합금의 사용법은 물론, 물리화학적인 연구로 내산도, 류전기(galvanic current)에 관한 조사뿐만 아니라 조직학적연구와 전신질환과의 관계도 규명하려 하였다.<sup>186)</sup>

## 6. 맺음말

일제에 의한 치의학의 도입은 재한 일본인을 치료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1893년 치과의사 노다 오지

182) 경성치과의학회 연제

40/29. 구개보철에 대하여, 河崎正信(평양)

38/7. 6세 남아에서 전적출하악골 및 그 보철장치의 공람, 垣見庸三, 山村正人, 竹俣利一

183) 조선치과의학회 연제

30/9. 외과적 수술후의 악골보철장치에 대하여 都築正男(東京)

33/5. 치성상악두염의 수술 및 보철장치에 대하여 伊規須秀吉

34/11. 상악골편측절제후의 보철장치의 제작순서 石原靜一

38/28. 상악골절제후의 치과보철적 처치례에 대하여 李迥柱

42/4. 구개파열보철의 1례 文岩義之

42/10. 외상성결원을 의비구개 의치연결로보철한 1례 內田操男(나남)

43/11. 구개보철의 1례 松平迥柱

38/13. 전상에 의한 진구성 하악골부분적결손증의 치과적 보철처치의 1례 大久保光雄(長津江)

40/5. 하악골 절제 보철장치의 2례 李迥柱

42/6. 악골절제후 보철에 대하여 伊藤正夫

경성치과의학회 지부 연제

34/1. 의비술 및 구개보철의 1고안 荒木國雄

184) 경성치과의학회 연제

34/27. 치궁형태에 대한 연구 1. 한국인 치궁 형태에 대하여, 大島新治(봉천)

33/35. 민족적 치궁고찰(제1회보고) 특히 일본인, 중국인, 조선인 치궁에 대하여 大島新平, 吉見 勇(大連)

32/37. 혈액형과 치궁과의 관계에 대하여, 森 哲朗

33/26. 구개용적과 치궁과의 관계, 朴明鎭

33/5. 일본장사의 혈액형, 치궁형과 치아 우식률에 대하여, 森 哲朗, 小松松夫

35/13. 치궁, 안면두개와 뇌두개와의 관계, 大島新治(만주)

185) 경성치과의학회 연제

32/3. 구개의 형태학적 연구 1. 구개궁의 형태에 대하여, 矢尾太郎, 稻川英一

32/47. 조선인의 악형에 대하여, 森 哲朗

35/38. 중국인의 악골형과 치아의 경사각도에 대하여, 大島新二

35/35. 조선인의 교합형에 대하여, 西山幸男, 稻川英一, 徳丸定樹

36/9. 중국인의 교합형식에 관한 연구, 大島新治(大連)

33/36. 범직인의 교합형태에 대하여, 大島新平(大連)

34/49. 교합충면적의 의의와 그 측정법에 대하여, 矢尾太郎, 岡田 肇

(野田應治)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인을 대상으로 개업하였고, 1905년 9월 일본군을 따라 치과의사 나라자키 도오요오(橋崎東陽)가 오게 된 것이다. 특히 일제는 일본에서 폐지된 입치사 제도를 한국으로 이전하였다. 1902년 코모리(小森)가 충무로에서 입치업을 개업하였다. 이 입치사는 1920년 중반까지 수적인 우위를 점하였다. 한국인 입치사는 1907년 최승룡이 종로에서 개업한 것이 최초였다.

치과의사에 대한 제도인 입치영업취체규칙이나 치과의사규칙은 치과의사의 개업과 의료행위까지 식민지 통치를 위한 일제 경찰의 감시를 받게 만들었다. 1914년 2월 5일 한국인 치과의사 함석태가 최초로 치과의사면허 제1호로 등록했다.

치과 교육기관은 나기라 다쓰미(柳樂達見)에 의하여 일제의 식민지 경영에 기여하는 한국인을 교육시킬 목적으로 설립하였다. 경성치과의학교는 일제의 도움 가운데 성장 발전되었다. 그러나 1929년 1월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로 승격하면서 한국인보다는 일본인을 더 많이 졸업시키는 일본인 학교가 되었다.

조선치과의사회는 나라자키 도오요오 등에 의하여 설립되어, 식민지 통치에 호응하는 일본인 치과의사에 의하여 운영되었다. 한국인만의 치과의사회의 필요성을 공감하여 한성치과의사회가 설립되었다. 일제는 내선일체라는 명목으로 한성치과의사회를 경성치과의사회와 강제로 통합하여 한국인 치과의사는 단체활동을 할 수 없게 하기도 했다. ‘충치예방의 날’ 행사에서도 일제의 의도가 강하게 작용하였고, 치과치료용 금을 허가제로 통제하며 치과재료를 배급제로 제한하였다.

1919년 10월 조선치과의학회(朝鮮齒科醫學會)는 나기라 다쓰미 등의 학술 목적으로 주도로 결성한 단체였다. 경성치과의학회는 1932년 10월 30일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를 배경으로 나기라 다쓰미에 의하여 설립되었다. 경성치과의학회의 설립은 조선치과의학회를 장악한 이꾸다 싱호(生田信保)에 대한 반발이기도 하였다. 회의 운영임

#### 186) 조선치과의학회 연제

- 27/10. 금속「유테타치타」에 대하여 酒井好一
- 30/10. 금속의 발수와 방청에 대하여 酒井好一
- 34/42. 2-3의 황금색 합금의 분석성적에 대하여 平下 證
- 39/12. 금대용 합금에 대하여(특별강연) 花澤 鼎 代演 西村豐治 금대용 합금의 생리위생의 소견에 대하여 補演 岡田 滿
- 경성치과의학회 연제
- 34/13. 2-3 치과재료에 관한 지견, 荒木國雄
- 38/16. 시국과 치과재료에 대하여, 松風憲二
- 33/1. 소위 금대용 합금「센츄리골드」의 내산도에 대하여, 矢尾太郎, 犬飼源二
- 33/8. 대용합금의 임상적 응용법에 대하여, 井汲 進(大阪)
- 35/14. 황금과 소위 금대용 합금과의 사이에 있어서의「갈바니크 액션」에 대하여, 松尾 鎮
- 36/49. 대용금속에 대하여, 久島玄三雄(京都)
- 38/6. 각종 합금의 납접부에서 조직적 관찰, 岡田 正, 中村正二
- 38/15. 치과용 합금의 조사 성적에 대하여, 磯野義雄, 竹中正夫, 山上一香
- 38/24. 소위 치과용 합금을 사용했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생각되는 2-3의 전신 질환에 대하여, 弘田精一, 安正浩
- 39/35. 치과보철용 금속에 대하여(특별강연), 川上政雄(東京)
- 40/14. 「파라쥬」S에 의한 모형 공람, 樺島益弘
- 40/15. 「파라쥬」S의 사용법, 安田正浩
- 41/22. 은 합금 성질의 사용상 주의해야 할 제점에 대하여, 圓城芳之助(東京)
- 42/9. 「스프」법에 의한 금속양감의 연구, 鈴木 望
- 조선치과의학회 지부 연제
- 34/1. 「골드러시」와 치과의업에 대하여, 大澤義誠
- 경성치과의학회 지부 연제
- 33/3. 재료채담, 松風憲二
- 32/4. 2-3 가지의 치과재료에 대하여, 岡田 正, 豊田孝之, 安藤稔
- 34/3. 2-3 가지의 신제품에 대하여, 松風憲二
- 40/3. 현재 필박한 치과재료의 공급문제에 대하여, 松風憲二
- 42/3. 최근 일본의 치과재료 기타 상황에 대하여, 柳樂達見
- 37/3. 금대용합금에 관한 2-3가지의 문제에 대하여, 酒井好一
- 40/2. 파라쥬 S의 임상보고, 弘田精一
- 40/4. 「파라쥬」합금의 합리적 사용에 대하여, 宮津一
- 33/2. 전화열에 의한 금속상호간의 전해현상 및 타액 전도율에 대하여, 酒井好一



원은 대부분 일본인들이 차지했다. 조선치과의학회에서 발표한 한국인은 27명이며, 486개의 연제 중에서 약 15%인 75개를 발표하였고, 경성치과의학회에서 발표한 사람은 16명이며 481개중의 연제 중 약 11 %가 되는 52개를 발표하였다.

치과의학회의 활동으로 인해 치과치료에 대한 많은 발전이 있었다. 그러나 한국인을 실험대상으로 한 면도 있었다. 이러한 사례로는 나기라 다쓰미의 실험적 치통 야기 방법,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 수은 납 아비산, 발암성인 약품 벤졸 등의 사용, 예후가 불확실한 것으로 식민지에서 실험적으로 행한 치료 등 이었다. 심지어 인종 사이에 차별성이 강조되기도 했다. 치아의 배열은 인종과 민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어 비교 연구의 대상이 되었다. 사용하기에는 적절치 못한 약을 사용하기도 했다. 치통의 제거에 비알카로이드성 진통진정약의 연구 개발되기도 했으나, 습관성 부작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적절치 못한 약인 모르핀이나 헤로인 등의 과다 사용으로 습관성 부작용은 흔한 일이었다. 또한 새로운 재료와 검증되지 않은 재료를 널리 사용하도록 권장하였다. 특히 금대용 합금에 관심이 많았으며 이러한 일에 학문적으로 뒷받침하기까지 했다.

<교신저자>

● 신 재 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동 71-16

● Tel : 02-3679-1084, E-mail : allens@kornet.net

## Dentistry under the rule of Japanese Imperialism and Korea aggression by the Japanese

The Japanese introduction of dentistry into Korea was for treating the Japanese residing in Korea Noda-Oji was the first Japanese dentist for Japanese people in Korea in 1893. and Narajaki doyooyo, an invited dentist was posted in the Korean headquarter of Japanese army in september, 1905. The imperialist Japan licensed the dental technicians(yipchisa) without limit and controled them generously so they could practice dentistry freely. This measure was contrary to that in Japan. (In Japan no new dental technician was licensed.) Komori, a dental technician opened his laboratory at Chungmuro in 1902. The dental technician had outnumbered by 1920. In 1907, the first Korean dental technician Sung-Ryong Choi practiced dentistry in Jongno.

The imperialist Japan made the regulation for dental technicians to set a limit to the advertisement and medical practice of dental technicians. The first Korean dentist Suk-Tae Ham was registered No. 1 in the dentist license.

The Kyung Sung dental school was established by Nagira Dasoni for the purpose of educating some Korean people that contributed to Japanese colonization. It made progress with the help of Japan. it was given the approval of the establishment of the professional school in January the 25th, 1929. it was intended to produce Korean dentists in the first place but became the school for Japanese students later on.

The association of Chosun dentist, which had been founded by Narajaki doyooyo, was managed by Japanese dentists in favor of the colonial ruling. The Hansung Association of Dentists established in 1925 was the organization made by the necessity of the association for Koreans only. the Japanese forcefully annexed the Association of Hansung Dentists (Koreans only) to the Association of Kyung Sung Dentists to avoid collective actions of Korean dentists in the name of 'Naesunilche'--'Japan and Korea are one'. Their invading intention was shown in the event of 'decayed tooth preventive day'. Japanese controled the gold for dental treatment by licensing and limited the stuff for dental treatment by rationing.

The association of Chosun dentists was a group organized for the academic purpose by Nagira Dasoni and etc.

In October of 1919, where as the association of kyung Sung dentists was constructed on the background of Nagira Dasoni. This establishment of the association of Kyung Sung dentists represented a backlash against Ikuda singho having a complete control over the association of Chosun dentists. The number of Koreans who wrote to the Chosun Dental Science Academy was 27, and they wrote 75 articles, which amounted to 15% of 486 articles. The number of Koreans who wrote to the Kyung Sung Dental Science Academy was 16, and they wrote 52 articles, which amounted to 11% of 481 articles.

These had been a lot of improvement by activity backlash of the dental association. However, they experimented Korean people. The experiments included the experimental stimulation of dental pain by Nagira Dasoni, use of toxic agents on human bodies such as mercury, bismuth and carcinogenic benzole, and experimental treatments with a poor prognosis. Worst of all, the rapid discrimination was stressed. The different dentition according to races was the subject of comparison researches. The dangerous chemicals were sometimes used. The non-alkaloid medication was investigated to relieve the dental pain but, the habitual side effects were not unusual by the overuse of morphine or heroin, which was known to be irrelevant due to their habitual side effect. The use of new and unproven material was recommended as well. Especially, the alloy that substituted gold, attracting attention, was substantiated by researches.



# 잇금에서 임금으로, 임금님의 궁궐에서 잇금의 배움터로 (저경궁과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

| 이 해 준  
Lee, Hae Joon

- I. 서론
- II. 이사금(尼師今)
- III. 칠궁(七宮)
- IV. 함춘원지
- V. 정조의 이복 형제들
- VI. 저경궁터
- VIII. 경성치과의학교
- VIII. 경성치과대학(1945년 11월 1일-1946년 10월 15일)과 국립서울대학교 치과대학(1946년 10월 15일)
- IX. 국립서울대학교 총장
- X.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 XI. 연건캠퍼스(1970년 1월 7일)로 다시 돌아온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 XII. 결론

# 잇금에서 임금으로, 임금님의 궁궐에서 잇금의 배움터로 (저경궁과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

이해준 치과  
이 해 준

## I. 서론

신라시대 유리는 석탈해보다 잇금이 많아서 이사금이 되었다. 이사금은 후에 임금으로 변하였는데, 조선후기 임금님이 탄생했던 저경궁에서 잇금과 관련된 치의학 교육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2,000년의 역사를 고찰해 볼 때 참으로 신기하다.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가 저경궁터에서 설립되었다고 알려져 있었으나, 저경궁에 대하여는 자세히 알려진 바가 없어서 치의학과와의 연관성을 알 수 없었다. 칠궁은 1968년 1월 21일 김신조 사건 이후 청와대 경호를 이유로 폐쇄되었다. 2001년부터 청와대 관람코스에 들었다가 2018년 6월에 시험 개방을 하였으며, 1일 7회 시간제 관람으로 확대하여 개방하였다. 2022년 청와대 개방으로 인해 자유 관람으로 전환되어 저경궁의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일제 강점기에는 국내에서 총독부 정치를 겪었다. 1913년 가을 이상설은 대한광복군정부의 정통령이 되었다. 1913년 광복단이 설립되었는데 광복(光復)이란 뜻은 광무(光武)의 회복을 뜻하였다.<sup>1)</sup>

1922년 10월 14일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통의부에서 관덴현(寬甸縣)에 있던 양기탁 일행을 전덕원 계의 독립군 병사들이 습격하여 유혈충돌이 일어났는데 이때부터 북벌주의 계열과 공화주의 계열은 완전히 적대관계가 되었다.

미국은 1919년 1차대전 이후 강대국으로 등장하였으며 1945년 2차대전 이후 초강대국이 되었다. 해방이 되어 미군정 시대를 지나 대한민국은 대통령제로 탄생하였다.

본 논문은 이사금의 어원과 관련된 이야기를 찾아보고 저경궁의 후손이었던 조선 후기 임금님들과 후궁들에 대해 알아보고 치과의사의 역사성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 II. 이사금(尼師今)

삼국사기(三國史記) 신라(新羅) 유리이사금(儒理尼師今) 본기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1) 광복단 우재룡 심문조서

유리이사금(儒理尼師今)은 남해(南解)의 태자이고, 어머니는 운제부인(雲帝夫人)이며, 비는 일지갈문왕(日知葛文王)의 딸이다. 처음에 남해왕(南解王)이 돌아가자, 태자 유리(儒理)가 마땅히 즉위하여야 할 것인데, 태보 탈해(脫解)가 평소에 덕망이 있음으로써 유리(儒理)는 임금 자리를 그에게 밀어주려고 사양하니, 탈해(脫解)는 말하기를 ‘신기대보(神器大寶)는 용렬한 사람이 감당할 바가 아닙니다. 듣건데 성스럽고 지혜로운 이는 이가 많다(多齒) 하오니 시험합시다.’하고 떡(餅)을 물어 이를 시험한 즉, 유리(儒理)의 잇금(齒理)이 많은지라, 군신들은 유리(儒理)를 받들어 임금으로 모시고 이사금(尼師今)이라 이름하였다. 옛날 전하는 말은 이와 같으나 김대문(金大問)이 이르기를 이사금은 방언으로 치리(齒理)를 말한다.

옛날 남해(南解)가 돌아가시려 할 때 아들 유리(儒理)와 사위 탈해(脫解)에게 이르기를 ‘내가 죽은 뒤에는 너희들 박(朴), 석(昔) 두 성의 연장자로서 임금의 자리를 이으라.’ 하였는데 그 뒤에 김(金) 성이 또 일어나서 삼성(三姓)이 나이 많은 사람으로서 서로 임금 자리를 이었던 까닭으로 이사금(尼師今)이라고 칭하였다고 한다.<sup>2)</sup>

이 기록은 역사적으로 세계 최초의 치의학적인 연령감정이다. 당시 인상재는 떡으로 오늘날의 치과용 Bite 인상재와 비슷하다고 여겨진다. 치아가 많으면 연장자를 뜻하고 지혜와 덕이 많고 건강이 좋은 것을 나타내었다. 잇금(齒理)이 많은 것을 이사금(尼師今)이라고 부르다가 후에 임금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저경궁에서 살던 후손들에게서 조선 후기 임금들이 배출된 것과 저경궁터에 경성치전이 자리잡은 것은 우연이라고 치기에는 너무 신기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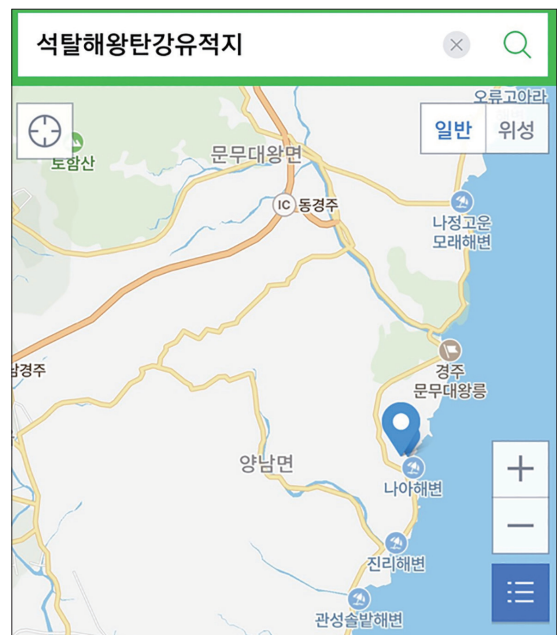
석탈해(昔脫解, B.C19/5-A.D.80) 尼師今(A.D.57-80)은 용성국왕(龍城國王) 함달파와 적녀국(積女國) 여왕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다.

석탈해는 왜국(倭國) 동북쪽으로 1,000리 떨어진 다파나국(多婆那國)의 왕과 여국왕(女國王)의 딸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비(妃)는 아효부인(阿孝夫人)이라고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다.

용성국은 고래잡이와 연관이 되고 있다는 설도 제기된다. 그리고 용성국과 다파나국(多婆那國)의 연관성, 다파나(多婆那)와 함달파, 적녀국(積女國) 혹은 여국왕(女國王)에 대해서도 규명되어야 한다.

다파나국(多婆那國)의 위치에 대하여는 울릉도(우산국), 한반도 북동부 송화강 유역, 중국 중남부 해안 지역, 구마모토, 일본 열도, 까치 전설이 있는 캄차카 반도(철광석 존재), 영남 동해안 등이 고려되고 있다.

태백일사에는 유리왕22년(A.D.3년) 고구려 개국공신 협부가 유리왕에게 사냥을 그만 다니고 정치에 몰두하라고 간언하다가 직책이 강등되자 마한으로 망명하여 구야한국(가야해의 북안)과 아소산에 기거하며 다파나국((多婆那國, 다라한국, 구마모토)을 세웠다고 기록되어 있다. 삼국유사에는 A.D.216년 4월 다파나국((多婆那國)에서 영오랑(迎烏郎)을 군(君)으로 삼았다는 기록이 있는데 영일만지역에 전승되는 연오랑, 세오녀 설화와 관련되어 있다. 다파나국((多婆那國)은 초기에는 아소산 부근에 있다가 A.D.216년경에는 큐슈에서 동북쪽으로 1,000리 떨어진 지역에 위치한 것으로 추정된다.



2) 신재의, 한국치의학사연구, 참운퍼블리싱, 2005. 18쪽-19쪽



이러한 이야기가 맞다면 잇금(齒理)으로 임금을 모시는 제도는 동부여와 고구려를 통해 신라로 전래되었다는 가설을 제시할 수 있다.

석탈해와 까치가 연관되어 鵲(까치 작)에서 새 조(鳥)를 떼어내어 석(昔)씨로 삼았다는 설화는 캄차카 반도의 까치설화와 비교해 보아야 하겠다.

탈해(脫解)는 몽골어로 탈한이라 하는데 대장장이의 뜻이 있으며, 탈해(脫解)를 토해(吐解)라고도 하는데 탈해와 토함산과 관련된 설화와 연관된다.

석탈해는 A.D. 8년 아효부인(阿孝夫人)과 결혼하여 남해 차차웅의 사위가 되었으며, A.D.10년에 대보(大輔)로 등용되어 정사를 맡았다고 한다. A.D.65년 김알지를 양자로 삼았다.



그림 1. 칠궁과 하마비

### III. 칠궁(七宮)<sup>3)</sup>

저경궁(儲慶宮)은 추존 왕인 원종의 어머니이자 선조의 후궁인 인빈 김씨(仁嬪 金氏)의 신주를 모신 사당이다. 영조는 1743년(영조 19년) 인빈 김씨(仁嬪 金氏)의 사당을 원종의 옛집이었던 송현방<sup>4)</sup>에 마련하였다. 이후 종실인 이증(李增)<sup>5)</sup>의 집으로 옮겨 모셨다가 1755년(영조 31년)에 다시 송현방으로 옮기면서 저경궁(儲慶宮)<sup>6)</sup>이라 개칭하였다. 이곳이 한국은행 뒤에 있던 경성치과전문학교가 있던 자리였다. 1870년(고종 7년)에 순조의 어머니 수빈 박씨의 사당인 경우궁 안 별묘에 모셨다가 1908년(순종 2년)에 육상궁(毓祥宮)으로 옮겼다.

3) 경복궁 관리소: 칠궁, 왕의 어머니가 된 일곱 후궁의 신주를 모신 곳

4) 이주연: 서울대학교 치의학 대학원, 경성치과대학의 시간과 공간 이야기; 송현궁은 태조 이성계가 함께 전쟁터에 나갔다가 죽은 장수들의 신위를 봉안한 곳이었다. 소나무가 울창하다고 하여 송현궁이라고 불렀다. 조선의 왕들은 민생치도를 위해 공궐밖 행차를 했는데 송현궁 앞을 지날 때에는 왕도 갑옷과 투구를 쓰고 참례해야했다. 송현궁에는 정원군(선조와 후궁 인빈 김씨의 아들)과 정원군의 아들 능양군이 살았다. 능양군은 후에 인조가 되어 정원군도 원종으로 추존되었다. 1755년 영조가 인빈 김씨의 위패를 송현궁에 모시도록 하고 입구에 하마비를 세웠다. 저경궁은 왕실의 사친묘(私親宮廟) 중에서 연대가 빨라, 후대 왕들의 행차시 가장 먼저 들리는 곳이었다.

5)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증(李增); 미상-1752년(영조 28), 조선 후기의 종실. 본관은 전주(全州). 효종의 4세손으로, 영조와 8촌간이다. 여천군(驪川君)에 봉해졌다. 1729년(영조 5) 사은사(謝恩使)로 연경에 다녀오면서 신역법(新曆法)을 가져왔고, 1737년에 주청사(奏請使)로 다시 청나라에 다녀왔다. 그리 많지 않은 영조의 근친으로서 깊은 사랑을 받았는데, 1743년 영의정 김재로(金在魯) 등과 더불어 세자의 관례(冠禮)를 주재하게 하였고, 선조의 후궁인 인빈 김씨(仁嬪 金氏)의 사우(祠宇)를 그의 본가(本家)로 옮겨 제사를 받들게 하였다. 1748년 본가의 묘당(廟堂)에서 괴이한 투서가 발견되어 범인을 찾기 위한 국청(鞠廳: 정청에서의 국문)이 열렸는데, 국문(鞠問) 과정에서 그 투서가 동생인 학(學), 외손인 권혜(權稹) 등과 더불어 일부러 조작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역모혐의가 있다는 삼사의 집요한 탄핵으로 영조의 곤질간 비호에도 불구하고 제주(濟州)에 위리 안치되었다. 그 뒤 그를 방면시키려는 영조의 노력이 있었으나 조정대신과 삼사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유배지인 제주에서 죽었다.

6) '경사로운 일을 쌓는다'는 뜻



그림 2. 저경궁

육상궁(毓祥宮)은 영조의 어머니이자 숙종의 후궁인 숙빈 최씨(淑嬪 崔氏)의 사당이다. 숙빈 최씨(淑嬪 崔氏)의 신분은 무수리로 가장 낮아서 영조는 어머니 신분에 열등감이 있었다. 영조는 1724년에 즉위한 뒤 현재의 위치인 경복궁 북쪽에 사당을 세우도록 명하고 1725년에 숙빈묘(淑嬪廟)가 완공되자 신주를 모셨다. 이때 무수리인 어머니 숙빈 최씨(淑嬪 崔氏)의 신분을 평민으로 격상시켰다. 1744년(영조 20년)에 육상(毓祥)이라는 묘호를 올리고, 1753년(영조 29년)에는 묘에서 궁으로 격상시켜 육상궁이 되면서 현재와 같은 사묘 제도의 형식을 갖추었다. 즉 어머니 숙빈 최씨(淑嬪 崔氏)의 신분을 왕족으로 격상시켰다. 육상궁(毓祥宮)에는 1878년(고종 15년)과 1882년(고종 19년)에 화재가 두차례 있었다. 특히 1882년(고종 19년) 화재 때 냉천정에 모셨던 영조의 어진은 송죽정으로 옮겨 모셨으나, 사당 내 숙빈 최씨의 신주와 옥책, 은인 등이 모두 소실되었으며, 1883년(고종 20년) 복구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림 3. 육상궁



연호궁(延祐宮)은 추존왕 진종(효장세자)의 어머니이며 영조의 후궁인 정빈 이씨(靖嬪 李氏)의 사당이다. 정조는 영조의 명에 따라 효장세자(孝章世子)의 뒤를 계승하여 왕으로 즉위하였다. 정조는 즉위 직후 효장세자를 진종으로 추존하고, 1778년(정조 2년) 정빈 이씨 사당을 북부 순화방에 세웠다. 연호궁은 1870년(고종 7년)에 육상궁 안의 별묘로 옮겨졌는데, 현재와 같이 한 건물 안에 숙빈 최씨의 육상궁과 합사된 내력은 분명하지 않다.



그림 4. 연호궁

대빈궁(大嬪宮)은 경종의 어머니이자 숙종의 후궁인 희빈 장씨(禧嬪 張氏)의 신주를 모신 사당이다. 경종은 1722년(경종 2년) 희빈 장씨의 사당을 경행방 교동에 건립하였다. 1870년(고종 7년)에 육상궁 안으로 옮겨졌으나 1887년(고종 24년)에 원래대로 경행방으로 옮겨졌다. 1908년(순종 2년)에는 다시 육상궁 안으로 옮겨졌다. 다른 후궁들은 3층의 돌계단이 있지만, 희빈 장씨는 1689년부터 1694년까지 왕비로 책봉되었던 관계로 4층의 돌계단이 있다.



그림 5. 대빈궁

선희궁(宣禧宮)은 추존왕 장조(사도세자)의 어머니이자 영조의 후궁인 영빈 이씨(暎嬪 李氏)의 신주를 모신 사당이다. 영조는 1765년(영조 41년)에 순화방에 사당을 세우고 의열묘(義烈廟)라 하였다. 정조는 1788년(정조 12년)에 묘호를 선희궁(宣禧宮)으로 개칭하였다. 1870년(고종 7년)에 육상궁(毓祥宮) 안으로 옮겨 모셨다가, 1897년(고종 34년)에 원래 있던 순화방으로 옮겼다. 1908년(순종 2년)에 다시 육상궁(毓祥宮)으로 옮겨서 선희궁(宣禧宮)은 경우궁(景祐宮)과 같은 건물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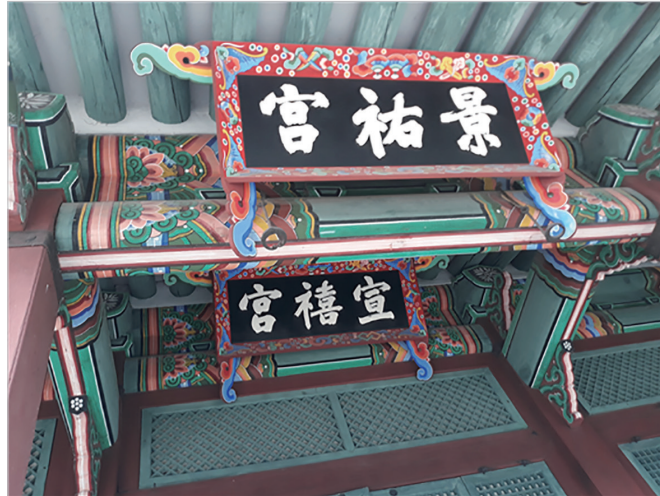


그림 6. 선희궁

경우궁(景祐宮)은 순조의 어머니이며 정조의 후궁인 수빈 박씨(綏嬪 朴氏)의 신주를 모신 사당이다. 1824년(순조 24년)에 양덕방 계동에 사당을 세워 경우궁(景祐宮)이라 하였고 1825년(순조 25년) 신주를 모셨다. 1884년(고종 21년) 갑신정변 때 고종이 김옥균, 홍영식 등과 계동 경우궁(景祐宮)<sup>7)</sup>에 머물렀다. 1886년(고종 23년)에는 경우궁(景祐宮)을 인왕동으로 옮겨지었다. 1908년(순종 2년)에 신주를 육상궁(毓祥宮) 안으로 다시 옮겨서 경우궁(景祐宮)은 선희궁(宣禧宮)과 한 건물에 있다.



그림 7. 경우궁

7) 현대사육 자리(구 휘문고등학교 터)



덕안궁(德安宮)은 영친왕의 어머니이며 고종의 후궁인 순헌 귀비 엄씨(純獻 貴妃 嚴氏)의 신주를 모신 사당이다. 1897년(고종 24년) 고종이 경운궁<sup>8)</sup> 안에 엄귀비가 거처할 곳을 짓고 경선궁(慶善宮)이라 하였다가, 1911년 엄귀비가 세상을 떠나자 1912년 덕안궁으로 개칭하였다. 1913년 태평로에 사당을 새로 지어 옮겨 모셨다가 1929년에 육상궁(毓祥宮) 안으로 옮겼다.



그림 8. 덕안궁

엄귀비는 타고난 배포와 지략으로 고종을 보위하면서 궁궐 안팎의 일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1896년 고종을 자신의 가마에 태워 몰래 러시아공사관으로 피신시킨 ‘아관파천’의 주역이다. 엄귀비와 영친왕의 사진을 관찰해 보면 돌출입(bimaxillary protrusion)의 특징이 있다. 1905년 양정의숙(현 양정고등학교)을, 1906년 진명여학교(현 진명여자고등학교)와 명신여학교(현 숙명여자고등학교와 숙명여자대학교의 전신)를 세웠다.

#### IV. 함춘원지<sup>9)</sup>

사적 제237호인 함춘원은 조선시대의 원유로 창경궁의 동쪽 구릉지대인 지금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이 위치한 부근 일대 터이다. 전에는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2호관(기초실험관)이 있었으나, 지금은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건물로 쓰이고 있다. 지금 남아 있는 함춘원의 유적은 함춘원 뿐이고 석단은 후대에 설치된 경모궁의 유적이다. ‘동국여지비고’에는 창경궁 동쪽, 창경궁 요급문 서쪽, 경희궁 개양문 남쪽 등에 있는 궁궐의 후원의 이름을 함춘원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중 지금까지 그 유지가 남아 있고 그 입지나 규모로 보아 가장 대표적인 것은 창경궁 동쪽의 것이다.

함춘원이 만들어진 것은 1484년(성종 15년) 창경궁을 창건하고 풍수지리설에 의해 궁 동편의 지세를 보강하기 위하여 이곳에 나무를 심고 원장을 둘러 잡인의 출입을 금하였던 것에서 시작되었다. 1493년(성종 24년) 2월에 함춘원이란 이름이 정식으로 붙여져 창경궁 부속 후원이 되었다. 연산군 때에는 함춘원 담장 밖 높은 지역의 민가 철거를 확장하고 기화이초를 심어 더욱 심원하고 엄숙하게 하였다. 담 밖에 별정군을 배치하여 일반인의 통행을 금하

8) 덕수궁

9) 네이버 지식백과: 함춘원지 (답사여행의 길잡이 15 - 서울, 초판 2004., 5쇄 2009., 한국문화유산답사회, 김효형, 한미자, 김성철, 유홍준, 최세정, 정용기)

고 원내에서 즐기기 위하여 대문을 만들었고 함춘원 북쪽에 신성을 쌓기도 하였다. 종종 때에는 철거당한 사람들을 다시 돌아와 살게 하였다. 임진왜란 때에는 당시 덕빈<sup>10)</sup>의 시신이 임시로 매장되기도 하는 등 점차 함춘원의 관리가 소홀해졌으며 인조 때에는 함춘원의 절반을 태복사(사복사)에 나눠주면서 이후 140여 년간 방마장으로 사용되었다.

1764년(영조 40년)에 북부 순화방에 있던 사도세자의 사당인 수은묘를 이곳에 옮겨지었다. 1776년(영조 52년)에 정조가 즉위하자 비명에 간 생부 사도세자를 장헌의 시호를 올리고, 묘우를 승격시켜 개칭하면서 경모궁으로 불리게 되었다. 이때 정조가 친히 편액을 써 달았으며 서쪽에 일침과 월근의 두개의 문을 내어 창경궁 쪽의 문과 서로 통할 수 있게 하였다. 1785년(정조 9년) 8월에 경모궁과 장조의 원묘에 대한 의식 절차를 적은 궁원의를 완성하는 등 이 일대를 정비하였다. 1839년(헌종 5년) 12월에 봉안각이 소실되었으나 곧 중건되었다.

또 이곳에는 정조, 순조, 익종의 어진이 봉안된 망묘루가 있었다. 1899년(광무 3년) 8월에 장헌세자를 장종으로 존호를 올리면서 경모궁에 있던 장종의 신위를 종묘로 옮기게 되자 경모궁은 그 기능을 잃었다. 이로 인해 경모궁 내에 있던 망묘루는 북부 순화방에 있는 장종의 생모 영빈 이씨의 묘사인 선희궁 경내로 옮기고 이름을 평락정이라 하고, 망묘루에 있던 정조, 순조, 익종, 헌종, 철종의 어진을 옮겨 봉안하였다. 또한 경모궁의 이름도 궁 대신 경모전으로 고쳤다. 1900년(광무 4년)에는 경모궁터에 6성조(태조, 세조, 성종, 숙종, 영조, 순조)의 어진을 봉안하던 곳인 영희전<sup>11)</sup>을 옮겨 세웠다. 그 뒤 일제가 나라를 강점한 후 1924년 5월 함춘원 구지인 경모궁 일대에 경성제국



그림 9. 함춘원지

10) 위키백과: 공회빈 윤씨(恭懷嬪 尹氏, 1550년대?-1592년 4월 14일/음력 3월 3일), 조선 제13대 왕 명종의 장자인 순회세자의 세자빈이며 명종과 인순왕후의 며느리이다. 1561년 순회세자와 결혼 후 세자빈이 되고, 1563년에 순회세자가 병으로 죽자 덕빈(德嬪)으로 개칭되었다.

11)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영희전(永熙殿); 대한제국 시기인 1899년 영희전을 경모궁 터로 이전하였다. 영희전이 자리잡고 있던 지역은 1885년 한성조약 이후 일본인들의 거주지와 상권이 확대되고 있었다. 1898년에는 명동성당이 영희전을 내려다보는 위치에 건립되면서 국가적 제향 장소로서의 위상에 타격을 입었다. 때마침 장헌세자(莊獻世子)를 장종(莊宗)으로 추숭하면서 사당인 경모궁이 비게 되자 이 자리에 영희전을 새로 짓고 각 실의 어진을 옮겨 봉안하였다. 경모궁 망묘루에 있던 5대의 어진은 선희궁 평락정(平樂亭)으로 옮겼다. 같은 시기 창덕궁의 선원전도 고종 황제의 새 궁궐인 경운궁으로 옮겼다. 이 선선원전의 1실에는 영흥 준원전의 태조 어진을 이모하여 봉안하였다. 시어(時御) 궁궐이 바뀔 때를 대비하여 경복궁과 창덕궁의 선원전도 1실을 늘려 건립하였다. 이후 화재로 경운궁 선선원전의 7대 어진이 모두 불타 버렸지만, 바로 복구하였다. 7실의 경운궁 선선원전과 6실의 경모궁 자리 영희전은 오래 유지되지 못하였다. 1907년 황제의 자리에 오른 순종은 향사이정에 관한 칙령을 반포하였다. 서울의 영희전, 개성 목청전, 수원 화령전, 육상궁 냉천정, 선희궁 평락정, 경유궁 성일헌에 봉안되던 역대 왕들의 영정은 모두 창덕궁의 선원전으로 옮겨졌고, 어진을 봉안하던 장소들은 모두 국유지로 귀속되어 역사적 역할을 마쳤다.

대학 의학부 및 그 부속 건물이 세워지면서 훼손되었고, 6·25전쟁<sup>12,13)</sup>으로 옛 건물이 불타 원래의 모습을 알아볼 수 없게 되었다. 현재 이곳에는 큰 석단(石壇)과 삼문으로 쓰인 함춘원 문이 남아 있다.

함춘원 문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맞배집이며 전면과 후면의 기둥은 두리기둥이고 가운데 기둥은 네모기둥으로 여기에 각각 문을 달고 창방 위에는 안상을 끼우고 홍살을 달았다. 공포는 초익공으로 매우 간결하며 겹처마이다. 조선 후기의 세련된 건물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석단의 길이는 약 30m, 폭은 약 18m가 되는데 전면 4곳에 돌 계단이 있다. 이 기단 주변에 근래에 세워진 건물이 있다. 1973년에 함춘원 문을 포함한 일대가 사적 제237호로 지정되었다.

## V. 정조의 이복 형제들

사도세자(思悼世子)<sup>14)</sup>는 뒤주에 갇혀 죽은 비운의 세자이다. 정조는 영조의 명에 따라 역적이 된 아버지 사도세자를 계승하지 않고, 효장세자(孝章世子)를 계승하여 왕으로 즉위하였다. 정조는 즉위한 후에 아버지인 사도세자를 장조(莊祖)로 추존하였다. 한중록은 사도세자가 영조에 의해 뒤주에 갇혀 죽은 참변을 주로 하여, 여러 사건들 속에서 살아온 혜경궁 홍씨의 일생사를 순한글 문장으로 묘사한 파란만장한 일대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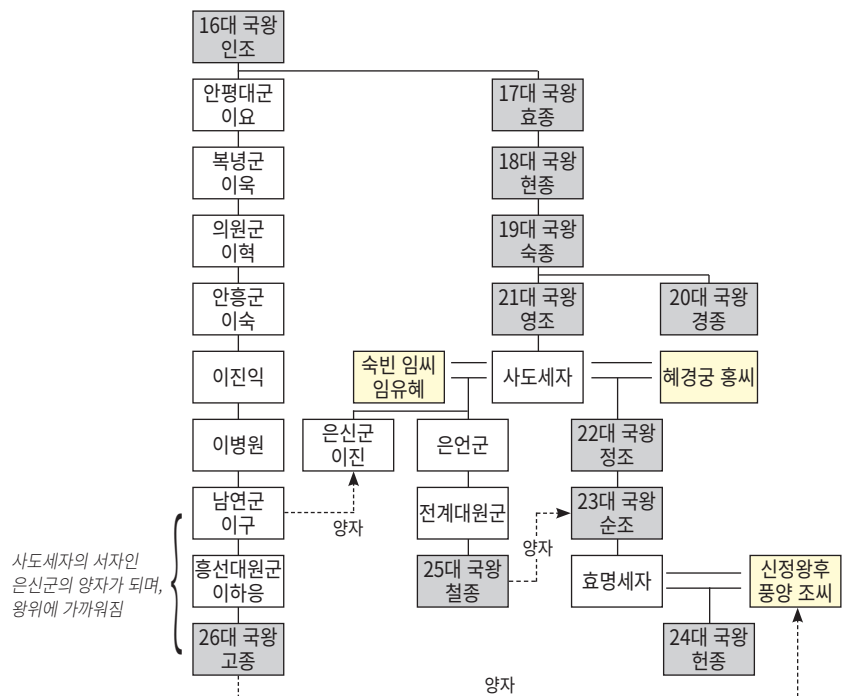


그림 10. 저경궁에서 배출한 조선국왕 계보

12) 위키백과: 서울대학교 부속병원 학살 사건: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 개전 직후 전방 전선의 교전을 거쳐 살아 돌아온 대한민국 국군 부상병 다수는 서울대학교 부속 병원으로 후송된 상태였다. 이들은 당연히 심한 부상을 입고 중환자로 치료받고 있었다. 그러나 개전 며칠 만에 조선인민군이 서울까지 밀고 내려오자, 시민 대부분은 아비규환에 빠져 피난길에 올랐으며 병원 근무자들도 집을 쌀 수밖에 없었다. 졸지에 희생양이 되어야 했던 것은 거동이 불가능해 미처 병원을 빠져나갈 수 없었던 중환자들이었다. 6월 28일 아침, 마침내 조선인민군이 서울 미아리를 뚫고 중앙청을 지나 서울대학교 부속 병원까지 들이닥쳤고 병원을 최후까지 사수하던 1개 소대는 교전 끝에 전멸했다. 당시 병원 내부는 미처 피난하지 못한 환자들로 만원이었으며, 조선인민군은 아무도 빠져나가지 못하게끔 병력을 산개시켜 병원을 둘러쌌다. 이윽고 한 인민군 중좌가 "원수놈들의 앞잡이들이 여기 누워있다"며 선동을 시작했고, 이내 대한민국 국군 부상자, 중환자들을 상대로 사살하기 위한 학살극이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병동을 순회하며 부상병들을 향해 총을 갈겨 죽였으나, 이것도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했는지 환자들을 밖으로 끌어내어 구석으로 몰아넣고 대량으로 총을 쏘 죽였다. 인민군측은 '한국군 응징'이라는 미명하에 학살을 자행했으나 실제로는 군인이나 일반인이나 환자복을 입은 채로는 별로 구분이 가리지 않고, 서울대학교 학생들 및 외부 일반인들도 다수 살해당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시간이 좀 지난 뒤엔 총알도 아까웠는지 모신나강에 착검해서 직접 찔러 죽이는 식으로 학살을 벌였다. 그리고 정신병동까지 들이닥쳐, 국군 부상병이 숨을 수 있다고 여겨 그 환자들까지 죽였다. 이렇듯 소음이 울리자 다른 병동에 남아있던 환자들은 급히 대피 시도를 했지만 많은 수가 인민군 보조들에게 걸려 참혹한 죽음을 당했고, 일부는 살해당하기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흥분한 인민군은 심지어 위문차 남아있던 환자의 가족들까지도 살해했다. 학살은 오후까지 이어졌고, 마지막까지 숨어 있다가 적발된 이들은 본보기로 보일리실로 끌려가 석탄 더미에 생매장되었다. 이렇게 살해된 희생자들은 정확한 피해규모를 알 수 없으나 추산 1000여명에 육박한다 하며, 사체들은 모여진 채로 20일 동안 방치되어 병원에 썩는 냄새가 진동했다 한다. 그리고 창경원 인근으로 실려나간 소각되었다. 환자들이 죽은 뒤 병원은 조선인민군 부상병들의 후송 기지로 쓰였고, 3개월 뒤 서울이 수복된 뒤에야 끔찍한 참상이 세간에 알려지게 되었다. 게다가 밀려나기 직전에 또 한 차례 학살을 벌인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주었다. 참고로 수일 후 전주에서도 이와 비슷한 학살극이 있었다고 한다. 이 사건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제네바 조약 한국전쟁 개전 3일 만에 빚어진 사건이다. 현재 서울대학교 부속 병원 내에는 당시의 희생자들을 위한 현충탑이 세워져 매년 위령을 지내고 있다.

13) 월간조선 1999년 6월호: 북한군, 국군부상병 집단학살의 진상, 「民族의 체험」 6·25 전쟁 50년의 재조명③, 두 목격자의 證言/서울대병원 국군 부상병 집단학살 사건

14) 안찬: 일월오악도 2권, 대한왕실 독립전쟁사 연구, 교육과학사, 1999. 49쪽-51쪽, 395쪽-404쪽



은언군 이인(恩彦君 李湏, 1754년-1801년)<sup>15)</sup>은 영조의 손자이자 장조(사도세자)의 둘째 아들로 어머니는 숙빈 임씨(肅嬪 林氏)이고 정조의 이복동생이다. 장조(사도세자)의 아들 중 정조, 은전군과 함께 성년기까지 살아남았다. 은언군의 손자인 철종이 25대 임금이 되었다.

은신군 이진(恩信君 李禎, 1755년-1771년)<sup>16)</sup>은 영조의 손자로, 사도세자의 서자이자 숙빈 임씨 소생으로는 세째 아들이며, 정조의 이복 동생이다. 은언군의 친동생이며 은전군의 이복 형이기도 하다. 출궁 후 어렵게 살다가 홍봉한에게서 자금을 지원받은 일로 탄핵당했고, 시전 상인들에게 빚을 진 것까지 드러나 유배되었다. 1769년 김귀주 등의 탄핵으로 제주도에 유배된 뒤 풍토병으로 병사하였는데, 사후 복권되었다. 사후 정조에 의해 연령군<sup>17)</sup>의 양손자로 출계하여, 호적상 정조, 의소세손, 은언군, 은전군과는 6촌간이 되었다.

고종황제(高宗皇帝)는 남연군의 손자이다. 남연군은 인평대군의 6세손으로 은신군의 양자로 가서 흥선대원군 이하응의 아버지가 되었다. 이하응은 풍수지리설에 따라 2대에 걸쳐 천자가 나올 자리라는 말을 지관 정만인에게 듣고 원래 경기도 연천에 있던 남연군의 묘를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상가리로 옮겼다. 이하응은 우선 경기도 연천에 있던 남연군의 묘를 임시로 탑 뒤 산기슭으로 옮겼다. 그 땅은 영조 때 판서를 지낸 윤봉구의 사패지로 그 후손에게서 자리를 빌려서 했다. 연천에서 가야산까지 오백리길을 종실의 무덤을 옮기는 일이었으므로 상여는 한 지방을 지날 때마다 지방민들이 동원되어 옮겼는데, 맨 마지막에 윤구를 한 ‘나분들’(남은들) 사람들에게 상여가 기증되었다. 이 상여는 지금 남은들 마을에 보존되어 있다.

그 후에 가야사를 폐하기 위해서 이하응은 재산을 처분한 2만 냥의 반을 가야사 주지에게 주어 중들을 쫓아내고 불을 지르게 했다고도 하고, 충청감사에게 중국 명품 단계벼루를 선사하여 가야사 중들을 쫓아내고 마곡사의 중들을 불러다가 강압하여 불을 지르게 했다고도 한다. 가야사를 폐허로 만든 뒤에는 탑을 헐어 내는 일이 남았다. 탑을 헐기 전날 밤 잠을 자던 이하응의 네 형제는 똑같은 꿈을 꾸었다. 꿈에 수염이 흰 노인이 나와 “나는 탑신이다. 너희들은 어찌하여 나의 자리를 빼앗으려 하느냐? 만약 일을 벌인다면 네 형제가 폭사하리라”고 하는 것이다. 깜짝 놀라 깬 형들이 꿈 이야기를 하니 모두 같았다. 그러나 이야기를 들은 흥선군은 “그렇다면 이곳은 진실로 명당자리”라며 운명을 어찌 탑신이 관장하겠느냐고 하여 형들을 설득했다. 마침내 탑을 부수자 바닥에 바위가 드러났는데 도끼가 튀었다. 그때 흥선군이 “나라고 왜 왕의 아버지가 되지 말란 말이냐”하고 하늘에 소리친 뒤 도끼를 내리치자 바위가 깨졌다고 한다.

그 다음해인 1845년 뒷산에 임시로 모셨던 곳에서 묘를 옮겼다. 뒷날 도굴의 일을 염려하여 철 수만 근을 붓고 강회로 비비고 봉분을 했다. 임시묘가 있던 곳은 ‘구광지’(舊曠地)라고 하여 지금도 움푹 패어 있다.

1845년에 남연군묘를 이장한지 7년 후인 1852년에 차남 재황(載晃, 아명은 命福)이 태어났고 1863년 12세에 철종의 뒤를 이어 고종이 되었다. 고종의 아들인 순종도 왕위에 올라 2대 천자가 나왔다.

15) 위키백과: 은언군

16) 위키백과: 은신군

17) 위키백과: 연령군(延齡君); 연령군 이원(延齡君 李田, 1699년 6월 13일-1719년 10월 2일)은 조선 시대 후기의 왕족 종실이다. 숙종의 여섯번째 서자이고 명빈 박씨 소생이며 경종, 영조의 이복 동생이다. 입양 계통상 흥선대원군의 고조부가 된다. 아명은 인수(仁壽)이고 이름은 원(田), 다른 이름은 헌(憲)이다. 자는 문숙(文叔), 시호는 효헌(孝憲)이다. 5살 때 어머니 명빈 박씨를 여의고 부왕에 의하여 자랐다. 어머니를 여읜 탓인지 숙종은 6세 이후에 봉군하는 법을 어기고 5세에 그에게 군의 작위를 내렸다. 1719년 10월 2일 21살에 사망하면서 어머니 묘소 옆에 안장해달라는 유언을 남겼다. 사후 경기도 금천 번당리(現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에 안장되었다가 후일 금천이 경성부로 편입되면서 구획정리를 함에 따라 예산군 덕산면으로 어머니 명빈 박씨의 묘소와 함께 이장되었다. 가계상 그의 양종손이 되는 남연군의 후손들은 그의 제사만 받들 뿐, 사도세자를 강조하다가 대한제국 시대인 20세기에 접어들어서야 연령군을 선조로 인정하였다.

1868년 독일 상인 오페르트(Ernst Jacob Oppert)<sup>18)</sup>가 남연군의 묘를 도굴하려다 실패하였는데, 이 일로 대원군이 서양을 배척하는 쇄국정책을 실시하고 천주교를 탄압하였다.<sup>19)</sup>

철종이 승하하자, 고종(高宗)은 효명세자(익종, 문조)와 효유대비 조씨<sup>20)</sup>의 양자로 입승대통<sup>21)</sup>되어 조선의 26대 국왕이 되었다.

은전군 이찬(恩全君 李禕, 1759년-1778년)<sup>22)</sup>은 조선 후기의 문신, 왕족으로, 영조의 서손이자 장조(사도세자)의 서자이며, 어머니는 경빈 박씨(景嬪朴氏)이다. 정후겸, 홍계능 등과 정조에게 반감을 품었던 노론 벽파는 정조를 제거하고 은전군의 추대를 기도했고, 결국 무옥(誣獄)으로 몰려 희생되었다.

## VI. 저경궁터

1870년(고종 7년)에 저경궁은 순조의 어머니 수빈 박씨의 사당인 경우궁 안 별묘에 모셨다가 1908년(순종 2년)에 육상궁으로 옮겼다. 위패가 이전되면서 사당으로서의 저경궁의 기능은 상실되었다. 저경궁의 후손들 중에서 조선 후기 임금들이 배출되었다.



그림 11. 저경궁터

18) 두산백과: 에른스트 오페르트(Ernst Jacob Oppert); 1832-1903, 프로이센의 유대계 상인으로 1851년부터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상업에 종사하였다. 1866년(고종 3년) 2월 당시 쇄국(鎖國) 중이던 조선과의 통상의 길을 개척할 목적으로 영국인 모리슨과 함께 영국 상선 로나호(號), 엠퍼러호(號)로 상하이를 떠나 충청도 해미(海美)의 조금진(調琴津)에 정박하여 두 차례나 입국교섭을 벌였으나 실패하고 돌아갔다. 이어서 1868년 4월에 다시 통상로를 트기 위해 차이나호(號)와 크레타호(號)로 프랑스인 신부 페롱, 미국 상인 젠킨스와 함께 상하이를 떠나 홍주(洪州)의 행담도(行擔島)에 정박하고 천주교 탄압에 보복한다면서 구만포(九萬浦)에 상륙하였다. 덕산군청(德山郡廳)을 습격하여 무기를 탈취하고, 가동(伽洞)의 남연군 구(南延君球: 흥선 대원군의 養父)의 능묘를 파헤치려 하였으나 구축이 예상 외로 단단하여 성공하지 못하였다. 경기도 영종진(永宗鎭)에 이르러 대원군에게 올리는 글을 제시하면서 영종진을 습격하다가 실패하고 돌아가 버렸다. 이 사건으로 대원군의 통상수교거부정책은 더욱 강화되었고, 천주교 탄압도 더욱 심해졌다. 저서 'Ein Verschlussenes Land: Reisen nach Korea: 금단의 나라: 조선기행'(1886)은 영역되어 'Forbidden Land: Voyage to the Corea'로 간행되어 한국의 민속과 풍경 등이 널리 알려졌는데, 이 책은 《하멜 표류기》와 더불어 외국인에 의해 쓰여진 귀중한 국사자료이기도 하다.

19) 네이버 지식백과: 답사여행의 길잡이 4 - 충남, 남연군 묘

20) 조대비

21) 입양

22) 위키백과: 은전군

## VII. 경성치과의학교



그림 12. 동궐도

1921년 11월 22일 총독부는 일본인 나기라 다쓰미(柳樂達見)에게 경성치과의학교 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 1922년 4월 1일 경기도를 경유하여 총독부 인가를 받았다. 1921년 3월 나기라 다쓰미(柳樂達見)는 치과 치료로 맺어진 진남포의 실업가 토미타 기사구(富田儀作)<sup>23)</sup>의 재정적인 후원을 받게 되었다. 총독부 의원장인 시가 키요시(志賀潔)는 고문 역할을 하였고, 총독부 사무관 요시다 야고에몬(吉田弥五右衛門)이 사무적인 일을 도왔다. 나기라 다쓰미(柳樂達見)가 처음에는 경성치과의학강습소로 인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서류를 본 경기도 학무과장 노부하라 세이(信原聖)가 ‘조선에는 향학심이 발흥할 때이므로 강습소에서 치과의학교 승격이 어려우므로 처음부터 경성치과의학교로 신청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하여 경성치과의학교로 변경하여 신청하였다. 입학자격은 을종의 중학교 졸업자 혹은 고등보통학교 졸업자로 일본인과 조선인의 남녀공학이었다. 나기라 다쓰미(柳樂達見)는 조선인 치과의사를 양성하여 각 지방에 분산시켜 구강위생의 향상을 도모하며 조선 통치에 기여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경성치과의학교를 설립하게 되었다.<sup>24)</sup>

무일푼인 나기라 다쓰미(柳樂達見)는 경성치과의학교의 교사를 마련하지 못해 대한의원 부속의학교 부지이던 총독부의원 외래시료(무료)진료소와 경성의학전문학교 강의실을 임대하였다. 대한의원과 부속의학교 부지는 1906년 함춘원과 마등산 일대 3만평으로 통감부가 선정하였다. 부지의 서쪽은 창경궁에 인접해 있고, 북쪽의 경모궁터를 포함하였다. 1908년 11월 대한의원 본관은 마등산 정상에 짓고, 1909년 부속의학교는 책응소 자리에 지었다. 동쪽에 배치된 대한의원 본관은 중앙에 시계탑이 있는 르네상스식 2층 건물이고, 서쪽의 의학교점 시료(무료)진료소는 2층의 붉은 벽돌 건물이었다. 의학교와 시료(무료)진료소가 같이 있는 이유는 의학교 학생들이 임상실습의 일환

23) 이가연: 진남포의 ‘식민자’ 도미타 기사구[富田儀作]의 자본축적과 조선인식, 지역과 역사, 부경역사연구소, 2016년. 도미타 기사구[富田儀作]라는 상업자 본가는 진남포의 ‘지역적 특수성’을 이용하여 자본을 축적해간 대표적인 식민자였다. 진남포는 부산, 원산, 인천보다 훨씬 늦은 1897년 목포와 함께 개항된 곳이다. 대동강 하류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 불과했던 이곳은, 개항 전에는 일본인들이 크게 주목하지 않았던 곳이었지만, 개항 이후에는 개발이 기대되는 곳이었기에 일본인들이 몰려왔다. 도미타 또한 맨손으로 인천으로 도항하여 진남포 개항 이후 이 지역으로 이주한 인물이었다. 그는 진남포에 거점을 두고 본격적으로 광산업에 종사하면서 농업, 금융업 등 다방면으로 사업을 확장하였다. 진남포의 대표적 식민자였던 도미타는 겉으로는 ‘차별’과 ‘편견’을 가지지 않은 ‘조선의 개발자’이자 ‘공로자’, ‘선량한’ 식민자를 자처했다. 그러나 그의 조선·조선인에 대한 인식 속에는, 애써 숨기고자 했지만 곳곳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난 특권의식과 조선인에 대한 우월의식이 내재해 있었다.

24) 신재의, 한국근대치의학사, 참윤퍼블리싱, 2004.



으로 환자들을 치료해 진료비가 무료이거나 저렴했기 때문이었다. 대한의원은 일제강점기 총독부 의원이 되었는데, 이 곳 치과에 나기라 다쓰미(柳樂達見)가 1914년부터 근무하였다. 1916년 총독부 부속 의학강습소는 경성의학전문학교로 승격하였는데, 나기라 다쓰미(柳樂達見)는 총독부의원 치과과장과 경성의학전문학교 겸임 조교수로 발령을 받았다.



그림 13. 1924년 총독부 의원 시료외래진료소

1922년 4월 15일 경성치과의학교 개교식과 입학식이 조선총독부의원 시료외래진료소 2층 강당에서 열렸다. 50명의 신입생과 귀족, 내빈, 관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교식겸 입학식을 거행하였다. 교사가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야간으로 수업을 시작하였다. 1922년에 시작된 야간 수업은 경성의학전문학교의 B강당이라 부르던 시료외래진료소 뒤에 지어진 건물의 낡은 계단강의실에서 주 20시간 내지 22시간의 강의가 이루어졌다. 교장은 나기라 다쓰미(柳樂達見), 서무회계는 코우노 기헤이(河野儀平), 교무는 요시나가 테이(吉永 貞)가 도와주었다. 강사진은 모두 외래로 경성의전 교수 또는 총독부의원의 의관으로 충당하였다. 1923년에 3년제 주간이 되자, B 강당 뒤의 의학 교실을 전부 개조해서 기공실습과 임상실습을 했다. 병리학리학에 야오 타로(矢尾太郎)와 치과기공학에 오카다 타다시(岡田正) 2명을 전임교수로 초청하였다. 1924년 4월 3학년 학생들의 임상실습을 위하여 시료외래진료소 이비과 10평을 빌려서 5대의 치료의자로 경성치과의학교 부속의원을 시작하였다. 6평 정도의 기공실도 설치했다. 3학년은 31명으로 일본인 5명, 한국인 여학생 3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진료실은 31명의 학생들이 임상실습하기에 부족한 시설이었다. 나기라 다쓰미(柳樂達見)는 1923년 8월 27일부터 1년간 구미 각국의 교육상황을 시찰하고 와서 1924년 10월 을지로 입구 동남쪽 코너에 있는 일본생명보험주식회사 경성지점 건물 2층을 차입하여 경성치과 의학교 부속치과병원을 확장 이전하였다.<sup>25)</sup> 치료의자 27대가 설치되었고 예진 및 특진실은 승강의자 1대, 독일 지멘스(Siemens)의 엔진과 지멘스(Siemens)의 린트겐 설비 일체, 독일 하노버 자외선 장치, 태양등 장치를 갖춘 조선의 일류 설비였다. 이 곳으로 부속치과병원을 이전한 뒤 환자 수도 많아지고 학생들의 진료업무능력도 향상되었다. 부속치과병원은 처음에 주임 후구이 마사루(福井 勝)체제로 운영하다가 노자와 킨(野澤 鈞)이 부임하고 원장이 되어 병원을 운영하였다.

25) 신재의; 근대치의학의 도입과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사(일부), 대한치과의사학회지, 제 36권 제 1호 통권39호, 2017. 53쪽-54쪽; 요시다 야고에몬(吉田弥五右衛門); 나기라 다쓰미(柳樂達見)가 사회적으로 교제가 넓고 일본생명의 지점장 오오바 조우타로(大場常太郎)와 특별한 관계였기 때문이다. 일본생명도 대단히 회생적인 정신과 또 조선의 의료라는 중요성으로 다른 곳에 주면 3,000원의 이익이 나는데도 손해를 보면서 경성치과의학교에 빌려준 것에 대해 일본생명 지점장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점장이 바뀔 때마다 일본생명은 치과교육에 대단히 공헌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관계자들은 일본생명에 대해 크게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림 14. 일본생명보험 주식회사 경성지점

1925년 4월 2일 치과의사규칙에 따라 경성치과의학교는 조선총독의 지정교가 되어 제 1회 졸업생부터 무시험 개업의 혜택을 받았으며 1925년 4월 15일 제 1회 졸업생 한국인 23명, 일본인 4명 등 총 27명이 치과의사로 사회에 진출하였다.

경성치과의학교 졸업생<sup>26)</sup>

연도	한국인	일본인	계
1925	23	4	27
1926	20	18	38
1927	16	8	24
1928	17	22	39
1929	5	8	13
1930	10	3	13
1931	10	8	18
1933	2	2	4
계	103	73	176

저경궁터는 1870년부터 약 58년간 빈 땅으로 있었으며 1920년 대 저경궁 터 주변에는 조선은행(1912년 준공), 철도호텔(1913년 준공), 경성우체국(1915년 준공), 경성상업회의소(1915년)등이 둘러싸고 있었다.

조선총독부는 1911년 12월 12일 경성신보에 저경궁 조선식 건물 2동 26칸과 소문(小門) 2개소를 매각한다는 공고를 냈다. 1911년 경성부 시가도에는 경성부 남대문로 3정목 111번지가 하나로 구획되어 있다. 1929년 경성부 시가도에서는 111-1, 111-2로 나뉘어져 있다. 1926년 5월 경성제국대학 의학부가 발족하면서 경성치과의학교가 빌려쓰던 경성의학전문학교 건물 및 총독부의원 건물을 모두 반환하게 되었다. 교사가 없어서 경성치과의학교는 존재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 나기라 다쓰미(柳樂達見) 교장은 총독부 재무국 관유지계를 수습 차례 방문하여 사회공익을 위해 경성치과의학교를 사립학교에서 관립학교로 전환해 주거나, 학교와 병원을 같이 건축할 관유지를 얻을 수 있도록 부탁하였다. 시 중앙부에 환자가 오기 쉬운 곳을 희망한 결과 저경궁 터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저경궁 터

26) 기창덕, 한국근대의학교육사, 375쪽 재인용



는 경성부에서 아동공원으로 인가 직전의 상태였으며, 조선 불교단에서는 저경궁 터에 남아있는 궁묘 전각과 돌계단을 이용하여 다이시코우(大師講: 불교식 대강당)을 조성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다. 1927년 3월 21일 나기라 다쓰미(柳樂達見) 교장은 사이토 마코토(齋藤實) 총독이 제네바 군축협상에 가기 직전<sup>27)</sup>에 허가되어 총독부에서 저경궁 터(서울시 남대문로 3가 111번지의 2호) 662평을 무상으로 대여받았다. 경성부윤 마노 세이이치(馬野精一)<sup>28)</sup>가 총독부 정무통감 유아사 구라헤이(湯淺 倉平)<sup>29)</sup>를 방문하여 이의를 제기했으나, 사이토 마코토(齋藤實) 총독이 이미 결제한 후라 이의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건물 신축과정에서 저경궁 돌문은 철거되고, 하마비만 경성치과 의학교 운동장에 보존되었다.

낙성식은 1928년 9월 29일 거행되었다. 지상 4층에 연건평 981평7홉5작에 45실의 근대식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었다.<sup>30)</sup> 건물은 부속병원과 학교에서 쓰기에 충분한 시설을 갖추게 되었다.



그림 15. 1920년대 저경궁터

27) 중앙일보, 2019년 8월14일, 일제침략 수괴 조선총독·통감 10명…아베 지역구 출신이 4명.; 3대(1919년 8월-1927년 12월)와 5대(1929년 8월-1931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조선 총독 자리를 맡았던 사이토 마코토(齋藤實: 1858~1936년)는 총독 가운데 첫 예비역 군인이며, 유일한 해군 출신이다. 해군 대장으로 다섯 차례나 해군대신을 지냈다. 3·1운동 뒤인 1919년 9월 총독에 부임하다가 서울역에서 강우규 의사(1955~1920년) 등의 폭탄 공격을 받았다. 강 의사는 이듬해 서대문 형무소에서 순국했다. 서울역 광장에 폭탄을 들고 있는 강 의사의 동상이 우뚝 서있다. 사이토는 제네바 군축협상에 전권대표로 참가하기 위해 1927년 자리에서 물러났다 1929년 총독에 재기용됐다. 1931년 다시 물러난 뒤 귀국해 1932-34년 총리를 지냈다. 총리에서 물러난 뒤 일왕 보좌관인 내대신을 지내다 군국화 강화를 요구하는 젊은 장교의 쿠데타(2·26사건) 당시 도쿄의 자택에서 살해됐다. 47군데에서 총상, 10여 군데에 칼로 베이거나 찔린 상처가 발견됐다.

28) 위키백과: 경성부윤; 1925년 6월 15일-1929년 1월 21일 경성부윤 역임.

29) 위키백과: 유아사 구라헤이(湯淺 倉平, 1874년 2월 1일-1940년 12월 24일)는 일본의 내무 관료, 정치인, 남작이다. 오카야마 현 관선 지사, 시즈오카 현 관선 지사, 조선총독부 정무총감(1925년 11월 22일-1927년 12월 23일), 내대신을 역임하였다

30) 신재의: 한국근대치의학사, 참윤퍼블리싱, 2004.

경성치과의학교는 1929년 1월 25일부터 4년제 경성치과의학 전문학교로 인가받아 1929년 4월 15일 개교하였다.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 졸업생<sup>31)</sup>

연도	한국인	일본인	계
1930	17	22	39
1930	2	31	33
1932	14	23	37
1933	15	57	72
1934	20	58	78
1935	16	88	104
1936	16	94	110
1937	18	67	85
1938	24	64	88
1939	17	64	81
1940	37	65	102
1941	51	61	112
1941	41	45	86
1942	52	48	100
1943	62	39	101
1944	28	110	138
1945	22	71	93
계	452	1007	1459

해방이 되자, 일본인을 모두 송환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들은 나기라 다쓰미(柳樂達見)는 1945년 11월 15일, 혹은 16일 경에 용산역을 출발하여 일본으로 귀국하였다. 나기라 다쓰미(柳樂達見) 교장은 교직원들과 경성치과의학 전문학교의 경영문제를 논의하고, 교장에 박명진(朴明鎭)을 지명하고, 이사, 감사도 선임하였다.



그림 16. 소공동 저경궁터 하마비

31) 기창덕, 한국근대의학교육사, 375쪽 재인용

## VIII. 경성치과대학(1945년 11월 1일-1946년 10월 15일)과 국립서울대학교 치과대학(1946년 10월 15일)

1945년 11월 1일 나기라 다쓰미(柳樂達見)에게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를 인계받은 한국인 교수와 학생들은 경성치과대학(교장: 박명진)으로 개교했다. 경성치과대학이 사립학교법에 따라 단과대학으로 승격하기 위해서는 50일 이내에 최소 5천5백만 원의 예산을 마련해야 했는데 모금에 실패하자, 경성치과대학 이사진은 국립서울대학교 치과대학으로 합병하는 방안을 추진하였으며 1946년 8월 22일 제정된 국립 서울대학교 법령에 따라 1946년 10월 15일 경성치과대학과 부속병원의 재산과 시설, 기록, 교수와 학생 모두가 국립서울대학교 치과대학(학장 박명진)과 부속병원(병원장 이유경)에 귀속되었다.

## IX. 국립서울대학교 총장

국립서울대학교는 경성제국대학을 모태로 개교하였기 때문에 교육목표나 건학이념의 정당성 논란을 겪었다. 1946년 7월 13일 미군정청 문교부는 경성대학과 9개의 관립전문학교와 사립경성치과의학 전문학교를 통합해 하나의 조합대학교를 만들겠다는 국립서울대학교 설립안(국대안)을 발표하였다. 국대안에 대하여 학생과 교직원들이 ‘친일교수 배격’ 등을 외치며 반발했지만 문교부는 1946년 8월 22일 법령 제 102호 ‘국립서울대학교 설립에 관한 법령’을 공포하였고 군정기간 중에는 군정장관이 임명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법학박사 앤스테드(Harry Bidwell Ansted) 미군 대위를 초대총장으로 선임하였다. 외국인 총장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자 앤스테드(Harry Bidwell Ansted) 총장은 1947년 10월 25일 연세대 교수이자 이학박사인 이춘호(李春昊, 1893-1950)에게 총장을 넘겨주었다. 이춘호(李春昊)총장은 동맹휴학과 등록거부를 잘 마무리 지었지만 당시 학내 좌우익 계열의 학생들 간 대립이 계속되는 가운데 ‘사상의 자유는 인정하지만 학원 내 정치적 언행은 용인할 수 없다’고 언명하였다. 이춘호(李春昊)총장은 서울대 종합화를 위해 애썼지만 문리과대학과 법과대학 사이의 교수연구실 분쟁 등 난제를 남긴 채 6개월 만인 1948년 4월 16일 사임하였다. 1948년 5월 흥사단에서 독립운동을 한 장이욱(張利郁, 1895-1983)을 제3대 총장으로 뽑았으나 이승만(李承晩) 정권으로부터 사직을 강요당하여 7개월 만에 총장직을 사퇴하였다.

힘든 인사청문회를 거쳐 1949년 1월 4일 제4대 총장으로 중등학교 교장인 최규동(崔奎東)이 발탁되어 그 후 서울대학교는 애국법통을 정립하였다. 최규동(崔奎東)은 무난하게 총장직을 수행하여 오늘날 빛나는 서울대학교의 토대가 형성되었다. 하지만 최규동(崔奎東)은 약 2년간 재임하다가 불행히도 6·25전쟁 때에 납북되는 도중 1950년 10월 5일 사망하였다.



## X.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1959년 1월 치의예과가 신설되어 6년제 치과대학(학장: 김영창)이 되었다.

1969년 12월 6일 서울대학교 치과대학(학장: 이춘근)은 ‘서울대학교 종합화 계획’에 의거해 한국은행에 교사를 매도하고 1969년 12월 28일 소공동 교사를 떠나 연건캠퍼스로 이전했다.



그림 17. 저경 지

## XI. 연건캠퍼스(1970년 1월 7일)로 다시 돌아온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1966년 치과대학(학장: 이영옥) 연건동 부지로 서쪽 기관실 앞이 선정되었는데 이 자리가 총독부 외래시료진료소와 경성의학전문학교 강당이 있던 자리로 마침 비어 있었다. 만 2년이 넘게 걸려 1969년 12월 28일 연건동 새교사가 대지 2,600평에 7층 건물로 완공(학장: 이춘근)되었으며, 1970년 1월 7일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부속병원 개원식(병원장: 안형규)을 했다.

1978년 7월 18일 서울대학교병원 치과진료부(치과진료부원장: 장완식)가 개설되었다.

1980년 4월 치학연구소(소장: 이춘근)가 설치되었다.

1993년 5월 구 창경초등학교 자리로 서울대학교 치과병원(병원장: 최상목)을 신축하여 이전하였다. 1997년 2월 치학연구소(소장: 김종배)가 법정화 되었다. 2005년 3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이 발족하고 초대원장에 정필훈



그림 18. 1993년 11월 27일 동아일보 기사 최상목 병원장 인터뷰

교수가 취임하였다. 2015년 1월 26일 김성균 관악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장이 취임하고 2015년 3월 9일 진료를 개시하였으며, 2015년 4월 30일 관악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개원식 및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관악캠퍼스 준공식을 하였다.

## XII. 결론

- 1) 잇금이 많은 것으로 임금을 정했던 신라의 제도는 우리나라에 임금님의 정치가 익숙했던 것을 알려주고 있다.
- 2) 석탈해의 고사로 미루어 보아 잇금을 세는 전통은 부여와 고구려를 거쳐 신라로 전해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 3) 저경궁(儲慶宮)은 추존 왕인 원종의 어머니이자 선조의 후궁인 인빈 김씨(仁嬪 金氏)의 신주를 모신 사당인데 “경사로운 일을 쌓는다.”는 뜻처럼 후손들 중에서 조선 후기 임금들이 배출되었다. 저경궁(儲慶宮)터는 1870년부터 약 58년간 빈 땅으로 있다가 1928년 9월 29일 경성치과의학교가 이전하여 근대 치과의료 교육기관이 발전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sup>32)</sup>
- 4) 경성치과의학교는 1922년 4월 15일 나기라 다쓰미(柳樂達見)가 대한의원 부속의학교 부지에 있는 총독부의 원 외래시료(무료)진료소와 경성의학전문학교 강의실을 임대하여 사립으로 개교한 최초이자 유일한 정규 치의학교이다. 원래 대한의원의 터는 사도세자와 관련된 함춘원이 있었는데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2호관(기초학교실)<sup>33)</sup>이 함춘원에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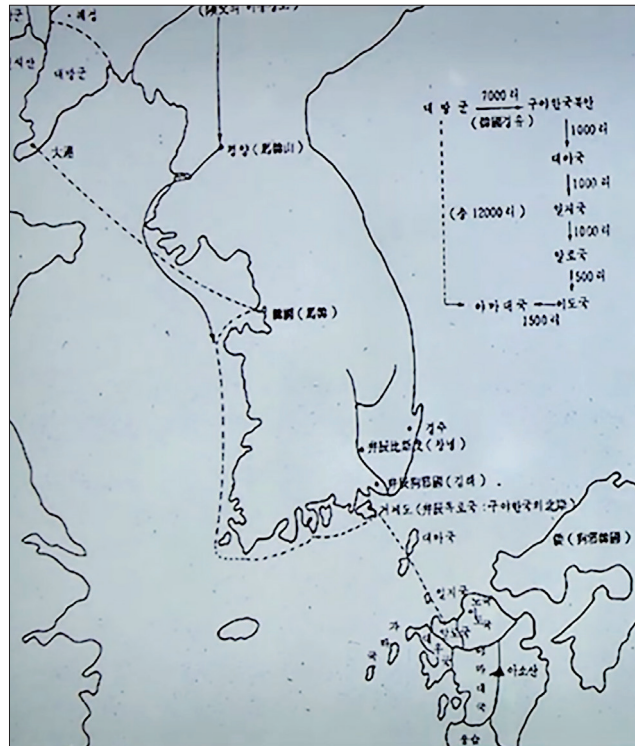


그림 19. 다파나국의 구마토토 위치비정(오순제)

32) 이주연: 서울대학교 치의학 대학원, 경성치과의학교의 시간과 공간 이야기

33) 예전에는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이 사용하다가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2호관으로 사용되었다. 현재는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이 사용하고 있다.



- 5) 1926년 5월 경성제국대학 의학부가 발족하면서 교사를 반환하게 되자 경성치과의학교는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 나기라 다쓰미(柳樂達見) 교장은 총독부 재무국 관유지계를 수십 차례 방문하여 저경궁 터(서울시 남대문로 3가 111번지의 2호) 662평을 무상으로 대여받았다. 낙성식은 1928년 9월 29일 거행되었다. 지상 4층에 연건평 981평7홉5작에 45실의 근대식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었다.
- 6) 경성치과의학교는 1929년 1월 25일부터 4년제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로 인가받아 1929년 4월 15일 개교하였다.
- 7) 해방이 되어 1945년 11월 1일 경성치과의학 전문학교는 경성치과대학으로 개교하였다.
- 8) 1946년 8월 22일 제정된 국립 서울대학교 법령에 따라 1946년 10월 경성치과대학과 부속병원은 국립서울대학교 치과대학으로 귀속되어 현재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과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관악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등으로 성장하였으며 대한민국의 치의학 교육, 연구, 진료의 산실이 되었다.
- 9) 2,000년 전에 신라시대에 잇금을 세서 임금을 정하였는데 2,000년 후인 1929년 임금님의 궁궐터인 저경궁터에 잇금을 세는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가 세워졌다. ‘잇금에서 임금으로, 임금님의 궁궐에서 잇금의 배움터로’의 제목에 걸맞게 국내 치의학은 임금님과 역사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었으며 임금님의 궁궐터에서 국내 치의학 교육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그리고 2022년은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의 전신인 경성치과의학교가 세워진 지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 〈교신저자〉

- 이 해 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74 쌍용 플래티넘 이해준치과
- Tel : 02-558-2440, E-mail : Ilhj1152@daum.net



# 세계 치과 명화 여행 : 영국(1)

권 훈  
Kweon, Hoon

## 머리말

1. National Gallery, London  
Lucas Cranach the Elder(1472-1553) : Saints Genevieve and Apollonia(1506)
2. Upton House, Warwickshire  
William Hogarth(1697-1764) : The Four Times of Day(1736)
3. Christies, London  
William Turner(1775-1851) : The unpaid bill or The dentist reproving his son's prodigality(1808)
4. Manchester art gallery, Manchester  
David Teniers II(1610-1690) : The Dentist(1652)
5. British Dental Association Dental Museum, London  
Sir John Lavery(1856-1941) : The Dentist(1929)
6. Thomas Rowlandson(1756-1827)  
Transplanting of Teeth(1787)  
Six stages of mending a Face(1792)  
Wonderfully Mended(1808)  
A french dentist showing his artificial teeth and false palates(1811)  
The tooth ache, or torment and torture(1823)
7. George Cruikshank(1792-1878)  
The golden remedy or Electrical panacea(1817)  
Tugging at a eye tooth(1821)
8. James Gillray(1756-1818)  
The dentist(1790)  
Easing the Tooth-Ach(1796)
9. Unknown : Easing the Toothache(1810)
10. Unknown : Champaign and Real-Pain(1828)

## 세계 치과 명화 여행 : 영국(1)

미래아동치과 원장  
권 훈

### 머리말

치과 진료 장면은 지난 수백 년 동안 많은 화가들이 매력적으로 생각하고 그림의 주제로 선호하는 대상이었다. 더욱 다행스러운 것은 이러한 치과 그림들이 기록으로 잘 보존되어 있고, 수백 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도 그 당시 치과 치료 모습을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문득 현재의 화가들이 지금 치과의사의 진료 장면을 그린다면 어떻게 표현될지 궁금해진다. 본 고에서는 영국에서 만날 수 있는 치과 명화를 소개하고자 한다.

#### 1. National Gallery, London

Lucas Cranach the Elder(1472-1553) : Saints Genevieve and Apollonia(1506)

세계 3대 미술관중 하나로 손꼽히는 영국 런던 트라팔가 광장에 있는 내셔널 갤러리는 규모 면에서도 엄청나다. 이 미술관에서 꼭 감상해야 할 그림도 수없이 많다. 만약 독자 중에 내셔널 갤러리를 방문해서 렘브란트(23번 방), 베르메르(25번 방)와 루벤스(29번 방) 그림을 감상한다면, 16번 방도 꼭 방문하기를 추천한다. 그 이유는 이 방에 치과의사 수호성인 아폴로니아 그림이 있기 때문이다(그림 1).

이 그림은 세폭 제단화(Triptych) 중앙 패널을 닫는 날개에 그려져 있다. 제단화를 닫았을 경우 날개가 바로 노출되기에 이곳에도 그림으로 장식되어 있는 것이다. 제단화 한 쪽 날개에는 성 제네비에브(Saint Genevieve)와 성 아폴로니아(Saint Apollonia), 반대편 날개에는 성 크리스티나(Saint Christina)와 성 오틸리아(Saint Ottilia)가 그려져 있다. 이 그림은 독일 화가 루카스 크라나흐(Lucas Cranach the Elder, 1472-1553)가 1506년에 완성하였다.

아폴로니아는 치과 질환의 수호 성인으로, 15세기부터는 치통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아폴로니아에게 기도를 하는 것이 치과치료의 한 방안이 기도 하였다.<sup>1</sup> 이러한 아폴로니아 예술품에서 그녀는 목걸이에 황금 치아 또는 치아를 집고 있는 발치 검자를 들고 있다.



그림 1. Lucas Cranach the Elder (1472-1553) : Saint Genevieve and Apollonia.

## 2. Upton House, Warwickshire

### William Hogarth(1697-1764) : Four Times of Day(1736)

윌리엄 호가스(William Hogarth)는 영국의 선구적인 풍자화가로 상류 사회의 사람들과 그 시대의 병폐를 풍자했다. 그는 영국에서 풍자화를 본격적으로 그리기 시작하였고, 풍자화를 하나의 장르로 확립하였고, 영국 근대 회화의 개척자로 불리운다.

Four Times of Day(1736)는 호가스의 유화 작품으로 1738년에는 4개의 판화시리즈로 복제되었다.<sup>2</sup> 그의 작품은 인기가 높아 많은 표절이 있었는데, 판화가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일명 ‘Hogarth’s Act’가 제정되어 1735년 영국 의회에서 통과되었다.<sup>3</sup> Four Times of Day(1736)는 4점의 그림을 통해 런던의 여러 장소에서 하루(아침, 정오, 저녁, 밤)가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보여준다(그림 2). 시리즈의 마지막 그림인 밤(night)에 barber shop이 묘사되어 있다(그림 3). Barber-Surgeon이 손님의 코를 잡고 면도를 하고 있다.

1738년 제작된 판화는 저작권 때문인지 그림의 좌우 이미지가 바뀌었다(그림 4). barber shop의 간판에는 면도(Shaving), 사혈(bleeding), 그리고 발치(teeth drawn with a touch)가 광고되고 있다(그림 5). 광고판에는 하악 전치부를 발치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고 그림 아래에 ‘Ecce Signum!’ 라틴어 문구가 새겨져 있다.<sup>4</sup> Ecce Signum는 여기에 증거가 있다라는 라틴어 관용어다. 이곳이 전문가임을 암시하는 광고라 할 수 있다. 창문에 세워둔 12개의 촛불은 이발-외과의가 발치할때도 유용하게 사용되었을 것 같다. 이발-외과의는 1540년부터 직업의 형태로 유지되어오다가 1745년 외과의가 분리되어 Company of Surgeons를 결성하였다. 이후부터는 외과의는 발치를 포함한 외과 수술을, 이발의는 이발과 면도만 허용하는 면허제도가 시행되었다.



그림 2. William Hogarth (1697-1764) : The four times of Day (1736).



그림 3. The four times of Day : Night.





그림 4. Engraving of the four times of Day (Nig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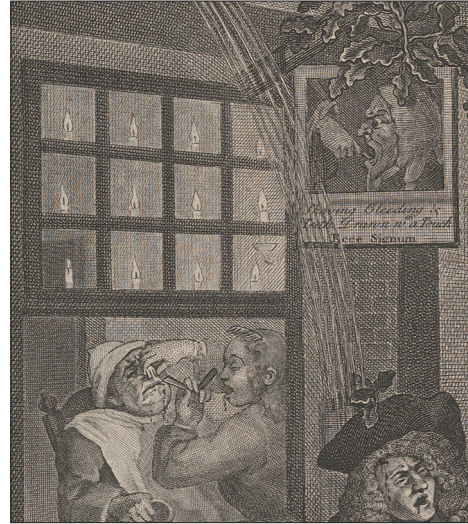


그림 5. 그림 4를 확대한 모습.

### 3. Christies, London

William Turner(1775-1851) : The unpaid bill or The dentist reproving his son's prodigality (1808)

영국 근대 미술의 아버지로 칭송을 받는 윌리엄 터너를 기념하기 위해 영국 테이트 갤러리는 매년 뛰어난 활동을 한 젊은 화가를 선정하여 영국 최고의 미술상인 터너상(Turner Prize)을 수여한다. 터너의 작품 '전함 테메레르의 마지막 항해'는 영화 007 스카이 폴에도 등장한다(그림 6).

터너의 1808년 작품 The unpaid bill 또는 The dentist reproving his sons' prodigality 은 19세기 영국 치과 진료실의 전경을 잘 보여준다(그림 7). 치과진료실보다는 연금술사의 방처럼 보인다. 19세기 초 치과의사는 외과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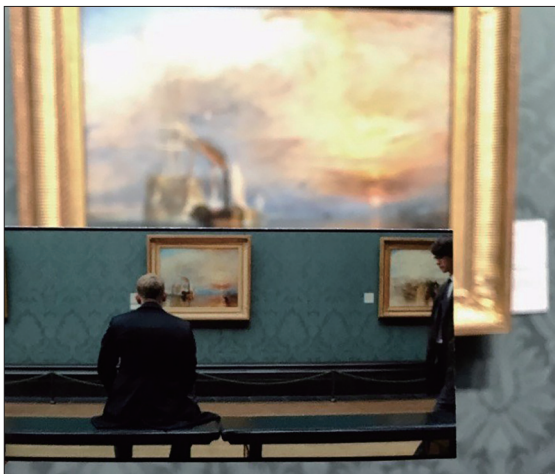


그림 6. 영화 007 스카이 폴에 나오는 터너의 작품 '전함 테메레르의 마지막 항해'.



그림 7. William Turner (1775-1851) : The unpaid bill 또는 The dentist reproving his son's prodigality (1808).

술식을 행하기보다는 약물 처방에 의존하였다는 사실을 터너의 풍자적인 재치로 표현된 그림이라 할 수 있다. 그림에는 나이든 사람이 가족과 다투는 듯 보인다. 터너는 등지에서 탈출한 새와 몹시 화난 중년 치과의사의 손동작을 그림에 넣었다. 그림의 내용을 유추해보면 중년의 치과의사가 자신 아들의 낭비를 꾸짖는 모습처럼 해석된다. 터너는 18세기 말 또는 19세기 초에 가장 잘 꾸며진 치과 진료실의 전경을 렘브란트나 Gerard Thomas 화풍의 고전 명작처럼 그렸다. 이 당시 치과는 전문직업인으로 인식되지 않고 있었고, 일부 부유층만이 치과 치료를 받았기에 치과는 대중화되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터너가 이러한 그림을 그린 이유는 대중에게 치의학이 전문직업인으로 시작되고 있음을 알리는 목적이 더 큰 것으로 추측된다. 기록에 의하면 1800년부터 1808년까지 런던에 76명의 치과의사가 개원 중이었다고 한다.<sup>5</sup>

보통 서민들의 일상 생활의 장면과 상황을 묘사한 작품을 장르화(genre)라고 한다. 터너는 매우 드물게 장르화를 그렸다. 영국 테이트 브리튼 갤러리는 터너의 서사 장르화 2점을 보유하고 있는데, 경매시장에 나온 터너의 또 다른 장르화 The Unpaid Bill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다.<sup>6</sup> 대략 그림 추정가는 25-30만(원화 4-5억) 파운드로 예상된다. 테이트 브리튼의 구입 능력을 고려하면 The Unpaid Bill의 구입이 어렵지 않아 보이지만 테이트 미술관은 터너의 작품을 추가 구매하지 않고 있다. 영국치과의사협회는 펀드를 조성하여 터너의 그림을 구입하려 했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치과계의 명화 모나리자라 할 수 있는 터너의 그림 The Unpaid Bill의 운명이 자못 궁금하다.

#### 4. Manchester art gallery, Manchester

##### David Teniers II(1610-1690) : The Dentist(1652)

영국 북서부 맨체스터 미술관은 데이비드 테니어스 2세(1610-1690)의 그림 The Dentist를 소장하고 있다(그림 8). 테니어스 2세는 브루겔 집안의 사위이고 치과 진료 장면을 가장 많이 그린 화가 중 한 명이다. 그림의 주제로 치과가 사용되는 주된 이유는 치과진료 장면을 통해서 오감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7</sup> 특히 touch와 feel은 치과 진료에서 기본적인 감각이다.

17세기 치과에 가는 것은 가장 힘든 일 중 하나였다. 그 당시에는 전문의인 치과의사와 특별한 약도 없었다. 치통이 있으면 Charlatan(비전문가)을 찾아가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다. 이 그림은 실내에서 진료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진료하는 사람도 녹색 앞치마와 모자를 착용하고 있음으로써 나름의 전문가 포스를 뽐내고 있다. 진료자의 뒤편에는 진료를 보조하는 어린 소년이 있다. 진료실 문에 걸어진 마늘은 악령을 쫓아내기 위해 있다.



그림 8. David Teniers (1610-1690) : The dentist.



## 5. 영국치과의사협회 치과박물관(British Dental Association Dental Museum)

Sir John Lavery(1856-1941) : The Dentist(1929)

Sir John Lavery(1856-1941)의 작품 ‘The Dentist(1929)’이다(그림 9). 자화상 화가로 유명한 존 래버리 경이 자신의 부인이 치과의사 콘래드 아크너(Conrad Ackner)의 진료실에서 치료받는 모습을 그린 작품이다.<sup>8</sup> 그림에서 20세기 초에 사용된 방사선 기계와 치과의사가 착용하고 있는 헤드램프가 인상적이다. 2011년 영국치과의사협회는 ‘The Dentist(1929)’를 60,000파운드에 구입하였고 현재는 영국치과의사협회 치과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sup>9</sup>

그림 9의 모델인 치과의사 콘래드 아크너는 1912년 영국에서 치과의사면허를 취득하였고 1913년 영국의 의사 면허관리기구인 ‘GMC (General Medical Council)’에 등록을 하였다. 치과의사 콘래드에게는 작가 존 골즈워디(John Galsworthy, 1867-1933)와 노르웨이 국왕 등 소위 말하는 VIP 환자들이 꽤 많이 있었다. 자신이 모델로 그려진 존 래버리의 작품 ‘The Dentist(1929)’가 그 당시 꽤 많은 주목을 받고 있었기에, 콘래드는 그림의 카피 품에 크리스마스 카드를 제작하여 달력과 함께 환자들에게 선물하였다. 그러나 GMC는 이러한 콘래드의 행위를 광고로 간주하였고 그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였다. 현재의 잣대로 콘래드의 치과 광고를 잴다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 엄격한 법 집행인지 아니면 강력한 단체(GMC)의 힘인지 알 수 없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나라에도 정의롭고 권위가 있는 영국의 GMC와 같은 단체가 하루빨리 생긴다면 치과의사의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광고는 바로 소멸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9. Sir John Lavery (1856-1941) : The Dentist (1929).

## 6. Thomas Rowlandson(1756-1827)

### 1) Transplanting of Teeth(1787)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에 토머스 롤런드슨(Thomas Rowlandson, 1756-1827)의 작품 ‘Transplantation of teeth(1787년)’은 아래와 같이 언급되어 있다(그림 10).<sup>10</sup>



그림 10. Thomas Rowlandson (1756-1827) : Transplantation of teeth (1787).

<칸트 시대에 콩팥 시장은 성행하지 않았지만,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치아를 사서 자기 잇몸에 심었다. 18세기 영국 캐리커처 화가 토머스 롤런드슨이 치과 진료실 풍경을 그린 ‘치아 이식’에는 의사가 굴뚝 청소부에게서 이를 빼고 그 옆에서 돈 많은 여자들이 치아 이식을 기다리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칸트는 이를 인간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았다. 누구도 “자기 팔다리를, 심지어는 치아 하나라도 팔 자격이 없다.” 이는 자신을 대상으로, 단순한 수단으로, 이익을 위한 도구로 여기는 행위이다.>

작품에 8명이 그려져 있는데 풍자하는 그림이기에 저마다 존재의 이유가 있다.<sup>11</sup> 정중앙에 옷을 잘 차려입은 치과 의사가 굴뚝 청소부 소년의 하악 소구치를 발치하고 있다(그림 11). 소년의 우측에는 발치된 치아를 이식 받을 귀족 부인이 공포에 질린 채 걱정스런 모습으로 대기 중이다. 이 부인은 왼손에 smelling salts 병을 코에 바짝 대고 있다. 이 병에서 발산된 암모니아 가스는 환자의 코 점막을 자극함으로써 정신을 들게 하는 효과가 있다. 진료실 바닥에 떨어져 있는 포셉은 어떤 의미일까? 위생의 결여와 감염의 위험성을 암시하고 있다. 이 작품이 진료실의 감염방지에 대해서 성찰의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그림의 우측에는 또 다른 치과 의사가 아가씨 환자에게 치아를 이식하고 있다(그림 12). 그녀의 치아는 이미 발거되었고 이식된 치아를 고정하고 있는데도 그녀는 여전히 두 손의 주먹을 꽉 쥐고 있다. 18세기 치과 유니트 চে어는 안락의자(arm chair)였지만 환자는 안락할 수 없었기에 그녀가 잔뜩 긴장하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 아가씨의 뒤편에서 거울을 보고 있는 멋쟁이 남자 환자는 이미 치아 이식을 받은 후 치료 결과를 무심하게 바라보고 있다.

그림의 가장 좌측에는 허름한 옷을 입고 있는 소년과 소녀가 치아를 발치당한 후 아픈 턱을 움켜쥐고 문을 나가는 모습이다(그림 13). 두 사람 손의 위치를 보면 소년은 상악 전치부를 만지고 있고 소녀는 하악 구치부를 잡고 있다. 아마도 그 치아들을 팔지 않았나 싶다. 특히 아픈 와중에도 치아를 팔고 받은 동전을 보는 소녀의 모습이 안타깝게 보인다.

진료실은 소박하고 화려한 장식은 없어 보인다. 진료실 벽에 써진 글씨가 ‘Baron Rom is Dentist to Her High Mightyness the Empress of Russia’ 눈에 띈다(그림 14). 다분히 홍보 문구로 보이지만 반전은 글씨 상단에 그



그림 11. 그림 중앙을 확대한 모습.



그림 12. 그림 우측을 확대한 모습.



그림 13. 그림 좌측을 확대한 모습.



려진 그림에 숨어있다. 노란 왕관을 중앙에 두고 양쪽에 오리처럼 보이는 새가 두 마리 그려져 있다. 만약 오리라면 돌팔이 의사를 뜻한다. 가난한 사람에게서 건강한 치아를 돈을 주고 사서 시술하는 행위를 비난하는 상징물이다. 그림속의 치과의사는 그 시절 명성을 떨쳤던 치과의사 Bartholomew Ruspini(1728-1813)로 추정된다. 그 이유는 실제 Ruspini의 모습과 비슷하게 그려져 있고, 그는 이 무렵 영국 왕세자의 치과 주치의였고, 가명이지만 B와 R로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작가의 숨겨진 의도가 보인다.



그림 14. 진료실에 붙은 포스터를 확대한 모습.

진료실 출입문에는 ‘Most money given for live teeth’라고 적혀있다(그림14). 정말 그랬을까? 치아를 팔고 받은 동전을 쳐다보고 있는 소녀가 문구의 허구성을 입증하고 있다. 그 시절 치아 이식술의 치료비도 궁금해진다. 정확한 치료비는 확인할 길이 없지만 어느 정도 가능할 근거는 있다. 18세기 후반부터는 치아 이식은 미국에서도 인기가 많았다. 미국으로 건너간 프랑스 치과의사 피에르 르 메이외(Pierre Le Mayeur)는 치아 이식을 통해 5년 만에 경주마 조련장을 구입할 수 있었다고 한다. 심지어 어떤 이는 죽은 사람에서 발거된 치아가 이식된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믿고 싶지 않은 역사적 추론이다.

18세기에 치아이식의 성공은 어떤 의미였을까? 가장 성공한 경우에 이식된 치아가 한두 달 만에 고정되어 몇 년을 버티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 6개월 안에 손가락만으로도 발치할 정도였다고 한다. 이처럼 성공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 특히 어린 아이들의 생니를 발치하여 부유한 사람에게 이식하는 행위는 미친 것이었다. 모든 면에서 정의롭지 못하였다. 19세기에 접어들면서 의치 시술이 개선되고 이식 치아를 매개로 매독 전염의 위험성 때문에 동종 치아 이식은 중단되었다. 치의학 역사에서도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었고,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었다. 이처럼 과거의 잘못은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

진료실 벽에 써진 ‘Dentist’가 남다르게 보인다. 용어 Dentist는 현대 치의학의 아버지라 칭송되는 Pierre Fauchard(1678-1761)의 저서 ‘Le Chirurgien Dentiste(1728)’에 처음으로 등장한다. 포샤르는 실외에서 진료하였던 tooth puller와 같은 기술자를 실내에서 진료하는 전문 직업인 Dentist로 업그레이드 시켰다.

## 2) Six stages of mending a Face(1792)

토머스 롤런드슨의 그림 ‘Six Stages of Mending a Face(1792)’은 상, 하단 모두 우측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감상해야 한다(그림 15). 작품명 하단에 써진 문구 ‘Dedicated with respect to the Right Hon. Lady Archer’가 이채롭다.<sup>12</sup> 번역하면 존경하는 귀족 부인 Archer에게 바친다. 풍자 화가의 그림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전형적인 반어법이다. 작품의 주인공 Sarah Archer(1741-1801)는 지주의 딸로 태어나 20세에 결혼하였지만 37세에 미망인이 되었고 그 시절 영국에서 악명이 자자한 부인이었다. 그녀는 ‘가든파티’라는 명목 하에 상류층 인사를 초대하여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는 명민한 여성 사업가였다. 특히 영국 왕세자의 지원을 받으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기에 그녀의 사업은 탄탄대로였고 그녀는 풍자의 단골 인물이었다.

첫 번째 그림은 처진 가슴에 치아는 없고 외눈박이 노파를 보여주고 있다. 18세기 치과에서 유일한 치료가 발치





그림 15. Thomas Rowlandson : Six Stages of Mending a Face (1792).



그림 16. 귀족 부인 Sarah Archer (1741-1801)가 틀니를 장착하는 모습.

인 것처럼 안과에서도 적출이 일반적인 치료였나 보다. 두 번째 그림에서는 의안을 착용하고 있다. 그 다음에는 대머리 상태인 못생긴 노파가 곱슬머리 가발을 착용하고 있다. 이 시기에 대머리는 탈모에 의한 것이 아니라 머리 염색을 시도하다 재앙을 만나는 경우가 많았다. 아마도 Archer 역시 젊게 보이려는 허영심에 들떠 무리한 염색으로 인해 모든 머리카락이 소실되지 않았나 싶다.

네 번째 그림은 Archer가 거울을 보면서 킁킁대며 틀니를 장착하고 있다(그림 16). 18세기에 틀니 장착이 어려웠던 이유는 상악과 하악 틀니를 서로 연결시켜주는 스프링이 있었기 때문이다. Pierre Fauchard는 최초로 스프링을 이용하여 상악 틀니가 탈락되는 것을 방지하였지만 입을 다물기 위해서 다소 근육을 긴장해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만 했다. Arthur Lufkin은 ‘History of Dentistry(1938)’에서 영국 엘리자베스 1세에게 청혼을 하였던 프랑스 앙리 3세가 틀니 끼우는 광경을 이렇게 설명한다. “하인이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왕의 수염을 붙잡고 하악을 잡아당기면 왕은 그 사이에 작은 병을 열고 뼈로 만든 틀니를 꺼내 장착하였다.”

다섯 번째 그림은 토끼의 발을 도구삼아 진하게 메이크업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예뻐지게 위해 화장을 하고는 있는데 엽기적이다. 서양에서는 행운의 부적으로 토끼의 왼쪽 뒷발을 가지고 다녔다고 하기에 어찌면 두 가지 목적으로 사용되었을지도 모른다. 한편 18세기에 화장은 상류층 여성에게 인기가 많았고 역시 사람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었다. 또한 화장품에 포함된 고농도의 납 성분 때문에 화장품도 허영을 위해 사용된 위험한 물건이었다. 드디어 변신 과정을 거쳐서 20대 여성의 모습으로 마지막 그림에서 완성된다. 화려한 의상과 악세사리로 치장한 후 가면을 들고 있다. 가든파티에서 하는 가장무도회에 참석하려는 것을 암시한다.

20세 소녀로 변장한 50대 여성은 입을 헤벌레 벌리고 멍청한 미소를 지으면서 하얀 치아를 드러내고 있다(그림 17). 18세기에 전치부가 보이는 스마일은 가히 혁명적이었다. 18세기에 설탕이 대중화되면서 충치는 모든 계층에서 호발하여 그 시대 사람들의 구강 위생 상태가 가장



그림 17. 50대 여성 사ارا가 가발과 틀니를 장착한 후 20대 여성으로 변신한 모습.

심각하였다. 반면 치의학은 여전히 걸음마 단계였기에 충치 치료법은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하였다. 프랑스 혁명이 시작된 1789년 이후 슈망의 도자기 틀니가 등장하면서 초상화에서도 피아노 건반 같은 치아를 노출시키는 기법이 시도되었다. 치의학의 발전이 미술사에도 영향을 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18세기에 틀니는 허영심을 위한 사치품, 가장 깊숙이 간직하고 싶은 비밀스러운 존재였다. 또한 틀니는 위험한 물건이기에 음식을 씹는 것은 상상불가였고, 그 시절 남자 가발처럼 자연스러움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물건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니의 비용은 엄청났다. 상아 틀니(ivy teeth)는 25기니(Guinea) 현재 가격으로 125만원, 도자니 틀니(porcelain teeth)는 80기니 지금은 400만원이나 되었다.

### 3) Wonderfully Mended(1808)

롤런드슨은 탁월한 유머 감각으로 18세기 말과 19세기 초 영국 계급 사회의 사회적 학대를 풍자하였다.<sup>2</sup> 그림은 치과의사가 바쁘게 상담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그림 18). 치료에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왕래하고 있다. 롤런드슨이 여기에 그린 치과의사 이미지는 멋지고 여성적이며 다소 비만인 돌팔이의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녀의 이목구비는 과장되어 있고, 안경을 쓴 옆모습은 거의 미친 것처럼 보인다.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모든 것을 설명할 줄 알고, 말을 잘 할 줄 아는 아줌마의 모습이다. 그녀는 마른 체형을 가진 신사에게 말을 건네고 있다. 그녀는 통증을 제거하고 싶으면 자신이 준 약을 한 잔 마실 것을 그에게 제안하고 있다.

두 사람 사이에 있는 주름진 옷을 입고 있는 신사는 겉보기에 안면 마비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림의 우측에 환자는 팔 밑에 목발을 끼고 진료실을 떠나고 있다. 그림 왼쪽에 있는 두 명의 젊은 여성은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을 하고 치통 스카프를 두른 채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벽에 걸린 해골은 메멘토 모리(죽음을 경고하는 상징)를 암시하고 있다. 돌팔이 의사 여성은 관장 주사기와 일부 기구가 놓인 기구 테이블 앞에 서 있다. 테이블 아래에는 병과 타구 또는 싱크대가 있다.

이 그림은 돌팔이 의사 진료실 안에 가득한 광기를 풍자하고 있다. 각종 불만을 가지고 오가는 사람들로 인해 매우 분주해 보인다. 그녀는 혀를 뺨에 대고 통증을 호소하는 세련된 신사와 인사하고 그가 잘 회복되었다고 칭찬하고 있다. “ 훌륭하게 고쳐졌어, 너를 다시는 만나지 않아야 했어!” 캐리커처에 맞춰 롤런드슨은 든 종류의 대조를 강조한다. 돌팔이 여자는 뚱뚱하고 단순한 옷을 입고 있으며, 말하는 환자는 시크하게 옷을 입고 마른 체형이다. 목발을 짚고 무대를 떠나는 남자의 만족감과 치통을 머리에 두르고 기다리는 소녀들의 절망감.

벽에 매달려 있는 해골은 무섭기도 하고 동시에 재미도 있다. 기괴한 상황을 암시하는 해골은 일이 잘못될 경우에 대비하는 일종의 메멘토 모리 상징이다.



그림 18. Thomas Rowlandson : Wonderfully Mended (1808).



#### 4) A french dentist showing his artificial teeth and false palates(1811)

Thomas Rowlandson의 ‘A French Dentist Shewing a Specimen of his Artificial Teeth and False Palates(1811)’이다(그림 19). 그림에 나온 세 사람부터 알아야 작가의 의도와 작품의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기 쉽다.<sup>13</sup> 정중앙에 있는 뚱뚱한 중년 부인은 최근 장착한 도자기 틀니(porcelain denture)를 최대한 노출시키면서 빅 스마일을 보여주고 있다. 부인의 못생긴 얼굴이 그나마 틀니로 인하여 보완되고 있음을 암시한다.

그렇다면 가히 미소 혁명을 일으켰다고 할 정도로 칭찬이 자자했던 슈망의 도자기 틀니 비용은 얼마나 되었을까? 틀니는 1,000 리브르(livres)였고 그 당시 노동자 1년 연봉의 3배에 해당될 만큼 매우 고가였다. 지금 화폐 가치로 계산하면 약 400만원이다. 따라서 아주 극소수의 특권층만 누릴 수 있었던 미소 혁명이었다.

그림 우측의 멋쟁이 어르신은 손잡이가 있는 안경을 들고 감탄하면서 부인의 틀니를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그림 20). 노년 신사의 치아는 체면을 유지하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상태이기에 아마도 잠재적인 틀니 환자로 판단된다. 이 그림의 작가는 ‘Mineral Teeth’라는 제목이 달린 세 개의 문장에 방점을 둔 것 같다. 본문대로라면 치과 의사 슈망은 치아뿐만 아니라 틀니와 의안(glass eye)에도 자신만의 특별한 치료법을 갖고 있었다. 심지어 위스키도 제조하였다.

“Monsieur de Charmant from Paris engages to affix from one tooth to a whole set without pain. Monsieur Dubois can also affix an artificial palate or glass eye in a manner peculiar to himself. He also distills.”



그림 19. Thomas Rowlandson : A French Dentist Shewing a Specimen of his Artificial Teeth and False Palates (1811).



그림 20. 그림 우측을 확대한 모습



그림 21. 그림 좌측을 확대한 모습.

모두 슈망을 찬양하는 홍보 일색이다. 어쩌면 슈망이 풍자 화가 Thomas Rowlandson에게 의뢰한 작품일지도 모른다. 이 그림이 제작된 시기인 1811년에는 도자기 틀니에 대한 평판이 점점 나빠지고 있었다. 도자기 틀니 이름에서 짐작되는 것처럼 말할 때 틀니가 부서지고 저작은 애시당초 불가능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 그림은 풍자보다는 홍보를 위한 거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마지막으로 그림의 왼쪽에는 잘생긴 치과의사가 있다(그림 21). 그는 18세기 영국에서 유행한 뒷머리를 싸는 주머니 가발을 착용하고 있으며 귀걸이와 반지 등 매우 화려하게 묘사되어 프랑스 치과의사로서의 멋이 넘쳐흐른다. 치과의사는 부인에게 만들어준 틀니를 신사에게 보여주면서 틀니의 경이로움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자신도 환자와 동일한 틀니를 장착하고 있어서 경험에서 우러나온 말이기 더 설득력 있게 보인다.

18세기 세계 치의학의 수도였던 프랑스는 19세기에 접어들면서 점점 그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주요 원인으로 프랑스 혁명이 손꼽힌다. 미소 혁명에 불을 지핀 슈망의 도자기 틀니는 특권층의 전유물로 평가되었고, 프랑스 혁명 후 그것에 대해서 단호히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게 되었다. 그 결과 치아를 상실하거나 앞니에 충치가 있는 흉측한 모습은 대체적으로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아직도 많은 단점을 갖고 있었던 도자기 틀니의 개선은 없었다. 프랑스 혁명은 치과계에서 탄생한 미소 혁명을 조용히 퇴장시킴으로써 그 후로 오랫동안 사람들에게서 치아가 환하게 보이는 미소는 긴 겨울잠을 잤다.

## 5) The tooth ache, or torment and torture(1823)

Thomas Rolandson의 1823년 작품 ‘The tooth Ache, or Torment & Torture’의 장소는 Barber-Surgeon(이발-외과의)의 상점이다(그림 22). 오늘날 치과의사의 직접적인 조상이라 할 수 있는 이발-외과의는 1540년 영국 헨리 8세 때 탄생되었다.<sup>14</sup> 영국에서 첫 번째 치과대학은 1859년에 설립되었기에 약 300년 이상동안 이발-외과의가 치과의사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림 ‘육체적 치통, 정신적 고통 그리고 고문’을 통해서 치의학의 이저린 역사를 살펴본다.

가발을 쓴 살찐 이발-외과의가 여성의 입에 손을 넣고 구강 검진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앉아 있는 여성의 손과 눈을 보면 잔뜩 긴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술자의 왼손이 여성의 머리카락을 꼭 잡으면서 머리를 고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통증도 상당한 것처럼 보인다. 그림에서 네 사람의 표정이 모두 다르다. 이발-외과의는 차분해 보인 반면에 앉아 있는 여성은 걱정하는 것 같고 창가에 서있는 중년 여성은 무척 고통스러워 보인다. 소년은 이발-외과의를 존경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다.

진료실의 벽에 걸린 포스터가 Barber-Surgeon(이발-외과의)의 다재다능함을 알 수 있게 해준다(그림 23). 어쩌면 그 시절에 이발-외과의는 발치와 정맥절개술(사혈, phlebotomy)만으로는 만족스러운 수입을 올릴 수 없었기에 이러지 않았나 싶다. 아직도 이러한 상황은 지속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애잔함이 밀려온다. 더더욱 슬픈 이유는 아래에 열거된 것 중에서 필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발치이외에는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그림 22. Thomas Rowlandson : The tooth Ache, or Torment & Torture (1823).



우리가 처한 현실은 치과에서 멀티플레이어가 되라고 요구하고 있다. 언제쯤 치과에서 진료만 열심히 잘해도 행복한 세상이 올까요?

포스터는 문구는 라틴어 BARNABY FACTOTUM으로 시작된다. Barnaby는 요셉의 별칭이고 성서에서는 바나바라고 하는데 아마도 이발-외과의의 이름인 것 같다. Factotum에서 Fac은 Do, Totum은 everything이니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아래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나열해 놓았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도 역시 라틴어로 IN UTRUMQUE PARATUS 라고 적었는데 ‘그 어느 경우에도 준비가 된’이란 뜻이다. 포스터에 언급되지 않은 일이라도 뭐든지 맡겨주면 가능하다는 문구에서 Barnaby의 절실함과 간절함을 읽을 수 있다.

진료 보조자로 보이는 어린 소년이 왼손에는 괴상하게 생긴 포셉을 오른손에는 타구(spittoon)를 들고 있다(그림 24). 사실 녹색 앞치마를 두른 소년은 진료를 도와주면서 치료법을 배우는 견습생이다. 이러한 시스템은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 영국에서 이발-외과의를 배출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10-12세 아이들은 이발-외과의 지도하에 보통 5-7년 동안 교육을 받으면서 진료를 배웠다. 한 명의 이발-외과의가 4명 이상의 견습생을 교육할 수 없다는 나름의 원칙도 있었다. 아마도 소년은 견습생(apprentice)으로 들어가 기능인(journeyman)을 지나 언젠가는 거장(master)에 올랐을 것이다.

소년 견습생 뒤에는 겁먹은 강아지가 쫓고 있다. 강아지 또는 고양이가 치과 그림에 자주 등장하는데 치료받고 있는 환자의 비명소리와 진료실의 혼란스러움을 암시하는 작가의 의도이다.

헨젤과 그레텔에 나오는 마귀할멈처럼 보이는 빨간 망토를 두른 중년 여성이 왼쪽 뺨을 만지면서 괴로워하며 이발-외과의에게 레이저를 발사하는 듯한 눈빛이다(그림 25). 입모양을 보니 뭔가 큰 소리를 지르는 것 같다.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서 그랬을까? 아니면 너무 아파서 그랬을까? 이유는 확인할 수 없지만 상상은 끝이 없다. 천장에 메달린 새장속의 새에는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을까? 고요한 숲속에서 노래를 부르는 피꼬리일까? 절대 아닐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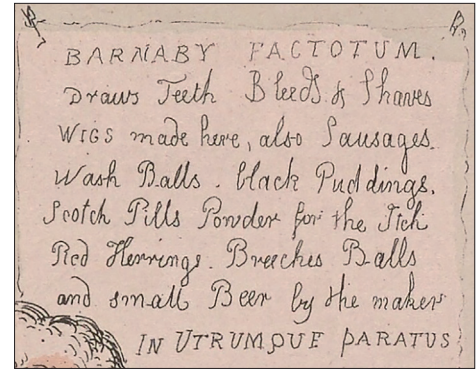


그림 23. 진료실의 벽에 걸린 포스터를 확대한 모습.

#### BARNABY FACTOTUM.

Draws Teeth, Bleeds & Shaves.

WIGS made here, also Sausages.

Wash Balls(비누), black Puddings(순대),

Scotch Pills Powder for the Itch,

Red Herrings(훈제청어), Braches

Balls(?), and small Beer by the maker.

IN UTRUMQUE PARATUS.



그림 24. 그림 좌측을 확대한 모습.



그림 25. 그림 좌측 상단을 확대한 모습.



이다. 아마도 그 새는 고통과 공포에 사로잡힌 할머니가 ‘아~아~으악’하는 아우성의 표현일 것이다. 만약 앵무새라면 ‘곧 진료 받으실 거니까 조용히 하세요.’라고 말했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 새장 옆에 걸어진 가발은 아마도 영업 간판(trade sign)으로 해석된다. 가발의 속성을 감안하면 이곳은 외과의보다는 이발의에 더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 같다.

## 7. George Cruikshank(1792-1878)

### 1) The golden remedy or Electrical panacea(1817)

그림의 정중앙에 있는 의사는 전기를 이용하여 치통을 치료하려 한다(그림 26). 그때는 과연 약손이었을까요? 치과 치료는 치과의사의 손에서 시작되어 입으로 마무리된다. 치과의사 말의 효험을 종종 임상에서 경험한다. 말은 약 또는 독이 될 수 있다. 나의 말이 환자에게 위로와 치유를 가져다주고, 나에게도 믿음과 자신감을 선물한다. 그러나 나의 말이 환자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기에 항상 조심해야 한다. 사람의 입엔 항상 실수가 잠복 중임을 명심해야 한다. 말의 효과는 성경(잠언15장4절)에서도 강조된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 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The tongue that brings healing is a tree of life, but a deceitful tongue crushes the spirit).” 그림에서 각각 다른 증상을 호소하는 5명의 환자들은 의사에게서 어떤 말들을 들었을까?

이번 그림은 치과 진료실과는 좀 거리감이 있어 보인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노란 드레스를 입은 중년 여성이 전기를 이용한 치아치료를 받고 있다. 그림은 영국 풍자화가 조지 크룩생크(George Cruikshank, 1792-1878)의 1817년 작품 ‘The Golden Remedy or Electrical Panacea’이다. 제목처럼 모든 환자에게 전기는 묘약이고 만병통치약이었을까? 18세기 후반 미세 전류를 이용하여 신경과 근육을 자극함으로써 통풍과 경련이 치료될 수 있다고 믿었다. 새로운 방식의 전기 치료는 대유행이었고 히스테리증(hysteria), 마비등과 같은 모든 신경학적 질환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심지어 성욕(libido) 회복과 치통 치료에도 적용되었다.

그림의 장소는 꽃무늬 카펫, 커다란 창을 장식하는 술(tassel)과 높은 천장 등을 볼 때 상류층 주택의 응접실로 보인다. 의사의 진료실인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다양한 종류의 질환을 겪는 환자들이 치료를 기다리고 있는 혼잡한 진료실의 풍경이다. 그림에 무려 11명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한 명씩 존재의 이유를 설명한다.

출입구에 전기 치료를 위해 내원한 목발을 짚고 있는 남자는 잔뜩 인상을 쓰고 있다. 반면 녹색 의자에 앉아 있는 통풍 환자는 양발에 붕대를 감고 있으면서도 미소를 짓고 있다. 두 사람 중간에서 깜짝 놀란 표정으로 웃고 있는 남자는 전기 발생 장치를 작동하고 있는 직원이다. 치료를 위한 전기는 병모양의 유리 뿔개에 저장되어 있다.

진료실 벽에 걸린 그림액자 아래에 있는 3명의 남자들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본다. 파란색 자켓을 입고 있는 의사 조수는 왼손으로는 환자의 무릎을 들어 올리고 있고, 오른



그림 26. George Cruikshank (1792-1878) : The Golden Remedy or Electrical Panacea (1817).

손은 환자의 호주머니에 들어가 있다. 아마도 치료비는 선불이었나 보다. 이 광경을 목격한 환자와 환자 뒤에 서있는 남자 모두 벼락을 맞은 것처럼 놀라고 있다. 남성 환자는 심하게 부어있는 무릎과 생식기에 전기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그림의 주인공 의사는 까치발을 들고 전극을 환자의 입에 적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치과질환을 치료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 그러나 치통이 있는 것만은 확실하다. 노란 드레스를 입은 여성 환자는 어린 아이처럼 깜짝 놀라며 발과 손을 높이 쳐들고 있다. 아마도 화가는 그녀의 어리석음과 순진함을 암시하기 위해 이렇게 그렸을 것이다.

전기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뒤에 있는 하인은 나무의자를 손으로 잡고 있고 나무 발판위에 서있는데도 전기 자극에 의해 모자와 가발이 날라 가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어있다. 처음에는 작가가 전기의 전도성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사실은 개구쟁이 소년이 고양이 꼬리를 하인의 치맛자락에 접촉하게 하여 정전기가 발생하였다. 그래서 그녀는 깜짝 놀란 것이었다. 그녀의 모자와 가발이 벗겨진 모습은 풍자 그림의 과장되고 익살스러운 표현일 뿐이다. 마지막으로 얼굴이 빨갛게 부어오른 남성은 거울을 쳐다보고 있다. 어쩌면 이 남자도 치통 때문에 내원하였을지도 모른다.

진료실 벽에 걸린 액자에는 벼락을 맞은 오리 두 마리가 그려져 있다(그림 27). 전기 치료가 모두 돌팔이 의사(quackery)임을 암시하고 있다. 그림의 제목을 완전히 부정하는 반전이 그림 안에 숨어있다. 이것이 풍자의 묘미라 생각된다. 전기적인 자극에 의해 근육 수축이 발생한다는 현상을 발견한 이탈리아 해부학자 루이지 갈바니(Luigi Galvani, 1737-1798)의 이론을 바탕으로 의학계에서 심전도와 심장박동기 등이 탄생하였다. 치과계에서도 갈바니의 이름은 자주 언급된다. 충치 수복 재료 선택할 때 환자에게 설명되는 갈바니즘(galvanism)의 어원은 이탈리아 볼로냐(Bologna) 대학 교수 갈바니의 이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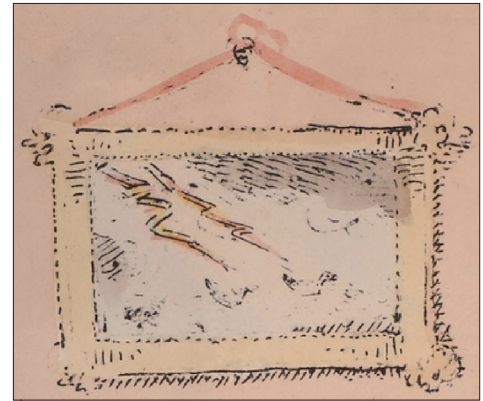


그림 27. 진료실 벽에 걸린 액자를 확대한 모습.

이 그림은 구매와 관련해서 치과 스토리가 있다.<sup>15</sup> Dame Margaret Seward가 British Dental Association에 기부한 돈은 경매에서 크룩생크의 작품을 구입하는데 사용되었다. 이 그림은 현재 BDA Dental Museum에 기증되어 보관중이다. 마가렛 슈어드는 영국 치과계에서 유리 천장을 뚫은 여성 치과의사이다. 그녀는 British Dental Journal 편집장과 BDA 회장(1993)을 역임하였고, 영국에서 최초로 British Dental Council 의장에 선출되었고, 역시 치과계에서 최초로 남자의 Sir에 해당되는 훈장(Dame)을 받아 그녀의 이름 앞에 Dame이 붙어있다. 이러한 미담이 우리나라에서도 자주 들렸으면 하는 바람이 든다.

## 2) Tugging at a eye tooth(1821)

영국 풍자화가 조지 크룩생크(George Cruikshank, 1792-1878)의 작품 ‘Tugging at a eye tooth(1821)’은 특이하게 두 가지 버전이 있다(그림 28). 처음 그림에는 진료실 거울에 술자와 환자의 얼굴 표정이 그려져 있다. 그런데 화가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거울에 비친 모습을 대부분 지우고 환자의 놀란 눈과 술자의 뒷모습으로 변경하였다(그림 29). 그는 나폴레옹과 조지 4세도 거침없이 풍자하였기에 그 이유가 무척 궁금하다. 상상과 추측만으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그림 28. George Cruikshank : Tugging at a eye tooth (1821).



그림 29. 그림 28의 또 다른 버전 : 거울에 비친 모습이 변경되어 있다.

그림의 공간적 배경은 Barber-Surgeon(이발-외과의)의 19세기 초 치과 진료실이다.<sup>2</sup> 술자는 금색 단추가 달린 감청색 자켓의 복장이고, 진료실 바닥은 카펫으로 완전히 덮여 있으며, 진료 의자와 기구들이 놓여 있는 가구도 관찰된다. 무엇보다도 다양한 종류의 책들이 꽂혀 있는 책장이 눈에 확 띈다. 이 작품은 판화이지만 19세기 치과의 특징이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어 마치 사진 같다. 진료실 내부의 풍경으로 미루어 짐작건대 거장(master)의 반열에 오른 이발-외과의로 추정된다.

이발-외과의는 발판위에 올라가서 팔로 환자의 목을 잡으면서 상악 좌측 견치를 발치하고 있다. 그림 제목에 high를 지우고 eye로 바꾼 것으로 보아 19세기에 송곳니는 high 또는 eye tooth라고 명명되었나 보다. 시야 확보와 접근성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발판 위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자는 발뒤꿈치를 살짝 들면서 발치에 집중하고 있다. 작가는 무엇 때문에 이발-외과의를 과장해서 난쟁이처럼 그렸을까? 아마도 발치의 곤란하고 힘든 상황을 묘사하기 위한 작가의 의도로 파악된다.

치료받던 중 고통스러웠던 부인이 발로 찬 테이블은 거의 넘어지기 일보 직전이다. 얼마나 충격이 컸는지 테이블에 놓인 유리병이 벽에 걸린 거울에 부딪히면서 금이 간 거울까지 자세히 묘사되어 있다. 무통 발치에 관한 역사를 간단히 살펴본다. 1844년 Horace Wells는 소기 마취, 1846년 William Thomas Green Morton은 에테르 마취를 이용하여 무통 발치를 시도하였다. 이 시기 전까지 시행된 치과 치료는 합법적인 고문이라 할 수 있다. Thomas Rolandson의 1823년 작품 ‘The tooth Ache(육체적 고통), or Torment(정신적 고통) & Torture(고문)’도 이러한 이유로 제목이 정해졌을 것이다.

중심에 큰 타구(spittoon)가 있는 테이블에 놓여있는 기구들을 하나씩 보면 그 당시의 진료를 알 수 있다(그림 30). 손거울과 손잡이가 빨간색인 3개의 tooth-scraper가 있다. 이것은 치석 제거를 위한 기구이다. 오른쪽에는 유리병(decanter), 유리잔(glass), 가루 치약이 들어 있는 통(pot), 망치(horn mallet)와 틀니가 보인다. 망치는 금 충전물을 condensing하거나 gold denture base를 조정할 때 사용되었다. 이번 그림에도 개 한 마리가 테이블 아래서 짖고 있다. 강아지는 발치중인 치아가 견치(canine)임을 강조하고, 개 짖는 소리는 진료실에 울려 퍼지는 환자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암시한다.

진료실 창문에 발치된 치아가 걸려있고 그 아래 촛불이 켜져 있다(그림 30). 지금의 간판(trade sign)에 해당된다. 19세기 초 영국 국민의 높은 문맹률 때문에 어쩌면 치과를 알리는 유일한 수단이었을 것이다. 지금 우리의 치과 광고와 비교하면 단순하고 소박하고 경제적인 방법이다.

독일 대문호 괴테는 ‘지금 네가 읽고 있는 책들이 너를 말해준다.’고 하였다. 책장에 있는 책들이 그때 그 사람을 설명해 줄 것이다. 글씨 판별이 가능한 책들만 나열해본다(그림 31):

Winter in London(Thomas Skinner, 1806), Lock on the GUMS, Miseries of Human Life(James Beresford, 1806),

Bible, Tales of Devil, Tommy Two Shoes, Treatise on Tooth Powder & Brushes, Tales of Terror, Frankenstein(Mary Shelly, 1818). 십여 권의 책 중에 전공서적은 유일하게 한 권이다.

왜 메리 셸리(Mary Shelly, 1797-1851)의 소설 프랑켄슈타인(Frankenstein, The Modern Prometheus)은 한 권이 아닌 두 권일까? 아마도 크룩생크는 ‘프랑켄슈타인’을 통해서 그림을 보는 사람에게 무언의 메시지를 보낸 것 같다. 프랑켄슈타인 앞에 놓인 틀니와 연결시켜본다. 이 무렵에 틀니는 코끼리 상아로 만든 Ivory denture, 상아와 Waterloo teeth가 혼합되어 만들어진 Hybrid denture, Porcelain denture가 있었다. 신종어 ‘Waterloo Teeth’가 탄생할 정도로 전쟁터에서 쓰러진 수많은 젊은 병사들의 치아 특히 전치는 틀니의 일부로 재탄생하였다. 이기적이고 욕망과 충동에 빠져있는 오만한 프랑켄슈타인 박사는 괴물을 창조하였고, 그 괴물로 인하여 그는 많은 것을 잃었다.

조지 크룩생크는 풍자적인 정치만화가로 활동을 시작하였지만 1820년부터는 아동 도서의 삽화도 그렸다. 850권이 넘는 책에 삽화를 그렸는데 소설가 찰스 디킨스 소설 올리버 트위스트(1838)가 가장 유명한 삽화라 할 수 있다. 영국 기자 겸 작가인 Horace Mayhew(1816-1872)가 상상하고, 캐리커처 화가 조지 크룩생크가 경험한 치통을 만화 The Tooth-ache(1849) 책으로 출판하였다(그림 32).

이 책은 영국 신사가 치통으로 인한 고통, 치통을 치료하려는 그의 다양한 시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과에 의지하는 모습까지 43개의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다.<sup>16</sup> 영국 빅토리아 시대에 한 신사가 치통 때문에 겪는 시련과 고난을 기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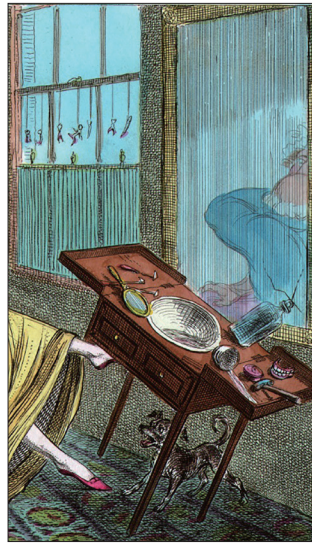


그림 30. 그림 28 우측을 확대한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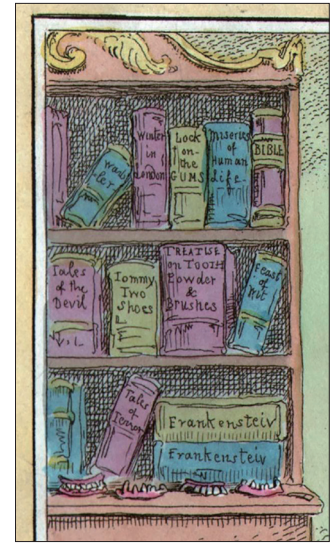


그림 31. 진료실 책장을 확대한 모습.



그림 32. George Cruikshank가 삽화에 참여한 만화책 The Tooth-ache (1849) 표지.



불쌍한 신사는 치통으로 잠에서 강제로 깨어 진통제를 찾기 위해 뒤척인다(그림 33). 안타깝게도 그는 약국을 방문하고, 찜질로 치통 부위를 치료하려 하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는 치과를 방문한다. 진료실에서 나오는 비명 소리가 그를 거의 집으로 돌려보낼 뻔했지만 그는 의자에 앉아서 자신의 순사를 기다린다(그림 34). 마침내 그를 괴롭히던 어금니가 제거된다. 그는 치과의사를 껴안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그의 일상은 다시 평온해진다(그림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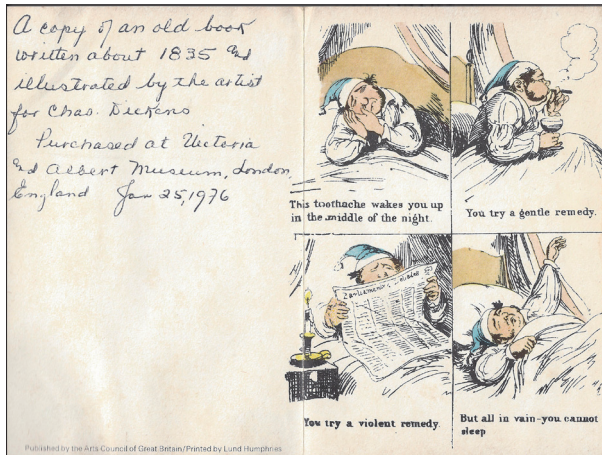


그림 33. George Cruikshank의 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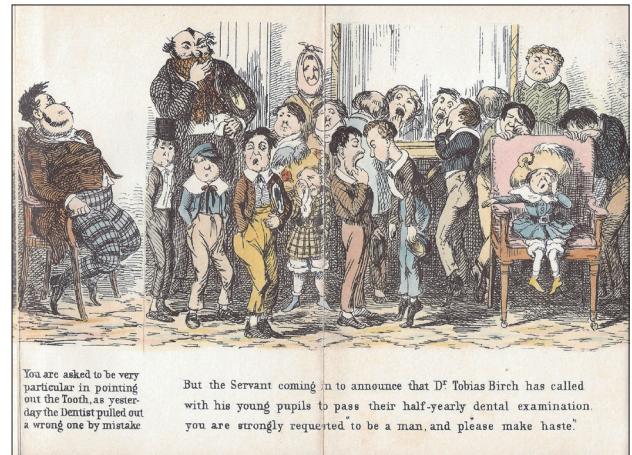


그림 33. George Cruikshank의 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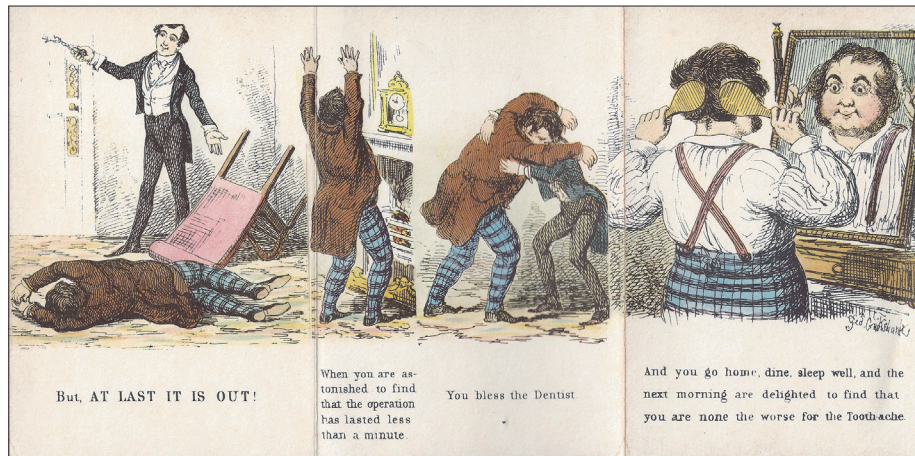


그림 33. George Cruikshank의 삽화.

## 8. James Gillray(1756-1818)

### 1) Easing the Tooth-Ach(1796)

영국 캐리커처의 황금시대를 풍미했던 James Gillray(1756-1818)의 1796년 작품 ‘Easing the tooth-ach’는 여타의 다른 그림과 다르다(그림 36). 파스텔톤 배경에 오롯이 치과의사와 환자만이 묘사되어 있다.<sup>2</sup> 치과의사가 환자의 치아를 발치하는 장면이지만 마치 두 사람이 탱고를 추는 것처럼 보인다. 치과의사와 환자 모두 하얀 가발을 쓰고 있다. 18세기 무렵 가발은 주로 귀족이나 왕족들이 착용하여 사회적 지위의 상징이었다. 19세기에 들어서 가발은 점점 사라지는 추세였으나 의사, 성직자, 법률가와 같은 직업용 가발은 여전히 사용되었다. 또한 환자와 치과



의사의 복장도 멋지고 세련된 것으로 보아 사회 지도층 인사로 보인다. 그런데 치료를 받는 환자의 모습이 원숭이처럼 그려져 있다. 아마도 작가의 귀족층에 대한 반감으로 일러진다. 한편 치과의사의 배가 볼록한 모습도 눈에 띈다. 툭 튀어나온 배는 인격이 아니라 복부비만 일뿐이다.

의자에 앉아 있는 환자는 오른손으로 오른쪽 장딴지를 짚고 있고 왼쪽 다리는 술자의 무릎 쪽을 누르고 있다. 불안정한 환자의 자세가 그의 통증 정도를 말해준다. 제목은 'Easing the Tooth-ach'인데 상황은 'The cure is worse than the illness' 처럼 보인다. 치과의사는 선채로 왼손으로는 환자의 턱을 지지하며 오른손으로 발치를 하고 있다. 환자의 고통스러운 상황은 내팽개쳐 두고 치과의사는 오로지 발치에만 몰입하고 있으며 치과의사 역시 얼굴을 찌푸리고 있다.

그림에서 사용된 발치 기구는 Tooth-key이다. 18세기 말까지 발치 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열쇠처럼 생겼다하여 Tooth-Key 또는 Dental Key라 한다. 발치 기구의 역사에 대해서 잠깐 더 살펴보면 tooth-key는 1730년경에 처음으로 발치에 사용되었다. 그 이전에는 펠리칸의 부리와 비슷해서 명명된 Dental Pelican이란 기구가 1363년부터 떠돌이 발치사에 의해 사용되었는데 tooth-key가 등장하면서 사라졌다. Tooth-key 또한 19세기 후반 Forcep이 시판되면서 박물관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James Gillray(1756-1818)와 Hannah Humphrey (1745-1818)의 미담을 소개한다.<sup>2</sup> 제임스 길레이는 영국 왕 George 3 세와 나폴레옹까지도 풍자의 주인공으로 등장시킬 정도로 풍자의 강도가 무척 쎈 용감하고 뛰어난 화가였다. 길레이의 1790년 작품 'The Dentist'에서 발치를 받다 귀족이 바닥에 넘어지는 모습도 풍자적인 의미가 담겨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그림 37). 한나 험프리는 그 당시 런던에서 가장 잘 나가는 판화상이었다. 길레이는 재치있는 풍자 그림을 제공하였고, 험프리는 그를 전폭적으로 후원하며 공생 관계를 유지했다. 길레이에게 실명이라는 갑작스런 불행이 닥쳐왔다. 화가에게 시력 상실은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다. 그는 우울증에 빠졌고, 과음은 정신병을 더욱 악화시켰다. 그러나 험프리는 길레이와의 인연을 끊지 않았고, 그가 사망할 때 까지 간호하며 보살펴 주었다. 사람은 자신을 인정해주는 사람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는 말이 있다. 결과적으로 길레이도 그런 셈이 되었다.



그림 36. James Gillray (1756-1818) : Easing the tooth-ach (1796).



그림 37. James Gillray : The Dentist (1790).

## 9. Unknown : Easing the Toothache(1810)

James Gillray(1756-1818)의 그림 Easing the tooth-ach(1796)과 제목은 동일한데 작자미상의 그림이 있다(그림 38). 이 그림의 차이점이라 하면 길레이 그림보다 좀 더 고정적이고 두 사람 얼굴 표정이 다르다. 길레이의 명성이 점점 수그러지자 그의 그림을 표절한 것으로 보인다. 제목은 바르지만 비슷한 유형의 그림들이 여러 점 있다(그림 39).

옷을 잘 차려입은 치과 의사가 환자의 턱을 잡고 발치하느라 애를 쓰고 있다.<sup>17</sup> 반면에 환자는 치과 의사의 옷을 잡으면서 몹시 힘들어하는 모습이다. 환자의 또 다른 손은 치과 의사의 가발을 벗기고 있다. 치과 의사의 복장은 말을 탈 때 입는 것과 동일하다. 또한 신발에 아이젠이 장착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환자의 집으로 방문 진료를 한 것 같다. 아마도 환자가 응급 진료를 치과 의사에게 요청한 것으로 추정된다. 작가의 어떤 의도로 이 그림을 그렸는지 모르지만 그림을 통해서 19세기 초 치과 진료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전달된다.



그림 38. Unknown : Easing the Toothache (1810).



그림 39. 제임스 길레이를 모방한 작가 미상의 그림들.

## 10. Unknown : Champaign and Real-Pain(1828)

제목은 ‘Cham-Paign & Real-Pain’이다(그림 40). 작자는 미상이며 1828년 영국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뿐만 아니라 제목에서도 작가의 위트가 넘쳐흐른다. 샴페인과 리얼 페인. 앞 단어 Cham은 Sham과 발음이 [ʃæm]으로 똑같으며 Sham의 뜻은 가짜, Real과 대조를 이룬다. 뒷 단어 Paign과 Pain은 철자는 다르지만 발음은 페인으로 동일하다. 따라서 샴페인과 리얼 페인을 작가의 의도대로 해석한다면 ‘가짜 통증과 진짜 통증’이 된다. 이른바 19세기 아재개그라 할 수 있다. 지금



그림 40. Unknown : Champaign and Real-Pain (1828).



도 진료 중에 환자의 통증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혼돈스러운 경우가 왕왕 있다.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게만 느껴진다.

그림에 등장하는 세 사람의 얼굴 표정에 세 사람의 처지가 명확하게 그려져 있다.<sup>2</sup> 장소도 진료실 이라기보다는 가정집 거실로 보이며 테이블에 놓여 있는 적포도주가 그 근거라 할 수 있다. 왼쪽에 얼굴은 불그레하며 배가 불룩한 남자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표정을 지으며 거만한 자세로 앉아있다. 그는 와인을 마시며 눈앞에 펼쳐지는 치과 진료 모습을 즐기고 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앞으로 치과 치료를 받지 않을 거라고 누가 확신할 수 있을까?

반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처참한 상황에 놓여있다. 발치를 받고 있는 환자의 팔과 다리에는 경련이 일어난 듯 부르르 떨고 있으며 얼굴 표정은 일그러져 있다. 그의 복장을 미루어 짐작컨대 부유층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금 누가 이 사람을 부러워하겠는가? 어쩌면 이 환자는 고통스러운 치료를 받는 동안 지난 날 자신의 부적절한 구강위생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림의 왼쪽에서 강아지가 술자와 환자를 보면서 짖고 있다. 이것은 고통의 울음소리를 내고 있는 환자를 암시한다.

날씬하고 안경을 쓴 tooth master는 불안하고 근심어린 표정으로 발치를 하고 있다. 발판 의자에 서서 진료를 하는 술자는 시야 확보를 위해 허리를 구부리면서 환자의 하악 왼쪽 구치를 발거하려 하는데 녹록치 않아 보인다. 테이블위에 김이 나는 그릇(bowl)에는 발치 후 통증과 부종을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될 찜질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작은 약통(box)과 스프레이 병(phial)에는 아편약물(laudanum)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거실 벽에 걸려 있는 그림이 이번 작자 미상 작품의 모티브가 되었다. 액자에 있는 그림은 1825년 George Hunt의 'Charles Wright's Champaign driving away real pain'이다(그림 41). 그림에 하단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다. 'Wine cures the gout, the colic and the phthisic. Wine is to all the very best physic.' 어쩌면 찜질제와 아편으로 제조된 약물보다도 삼페인이 환자에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적절한 용량이 복용된다면 발치 전 환자의 정신을 분산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분도 좋게 하고 통증까지도 완화시킬 수 있다. 최근 뉴욕 맨해튼에 소재한 치과는 환자를 위해 대기실에 와인을 비치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을 따라 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주의가 요망된다.



그림 41. George Hunt : Charles Wright's Champaign driving away real pain (1825).



현재의 만화는 영어 단어 caricature에서 유래했다. 캐리커처는 특징이나 결점을 우습고 재미있게 과장한 풍자 그림이다. 이러한 이미지는 반드시 목적이 있고 호기심이 발동시킨다. 18-19세기 영국 캐리커처에 묘사된 치과 진료 장면 역시 Satire(풍자) 즉 어떤 대상을 향해 비웃음에 의한 공격적인 풍자가 내포되어 있다. 또한 18-19세기 치의학 역사적 모습을 사실 그대로 전달하는 기능도 하고 있다.

톨스토이(1828-1910)의 작품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는 소설이면서도 인생의 길라잡이가 될 만한 글귀들이 있다. 다른 고전에 비해 읽어나가기 쉽고 40쪽 분량의 단편이라 부담 없이 단숨에 읽을 수 있다. 하지만 읽고 나니 생각이 참 많아진다. 소설 제목은 <치과의사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물음으로 변경되어, 치과의사로서 25년간의 긴 여정을 걷고 있는 나 자신에게 던져지는 질문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끝없이 가지는 고민이기도 하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라는 노랫말처럼 치과의사에게는 ‘무엇’을 찾아 무엇을 남기느냐가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숙제이다.

## 참고문헌

1. 권훈 : 치과의사학으로 떠나는 이탈리아여행, 대한치과의사학회지 제36권 제1호, 2017.
2. G.J. Schade : Tandheelkunde in de Prentkunst, Uitgeverij, 2014.
3. J. Menzies Campbell : Catalogue of the Menzies Campbell Collection of dental instruments, pictures, appliances, ornament, etc., Royal college of surgeon of Edinburgh, 1966.
4. M.G.H. Bishop : A picture of dentistry at Charing Cross in the 1730s given by Hogarth's painting and print of Night. Professional governance, identity and possible mercury intoxication as an occupational hazard for his barber tooth-drawer, Br Dent J Vol 203(5):265-9, 2007.
5. M Bishop, S Gelbier, J King : Science and technology inn Turner's Georgian dentist's rooms, Br Dent J Vol 198(5):299-305, 2005.
6. M Bishop, S Gelbier, J King : J. M. W. Turner's painting "The unpaid bill, or the dentist reproving his son's prodigality, Br Dent J Vol 197(12):757-62, 2004.
7. Dr. F.E.R. de Maar : Vijf eeuwen tandheelkunde in de Nederlandse en Vlaamse kunst, Nederlandse Maatschappij tot de Bervordering der Tandheelkunde, 1993.
8. K. McConkey : Sir John Lavery's The Dentist(Conrad ackner and his Patient), Br Dent J Vol 210(2):81-5, 2011.
9. 권훈 : 치과의사학으로 떠나는 영국여행, 대한치과의사학회지 제35권 제1호, 2016.
10. 마이클 샌델 : 정의란 무엇인가, 와이즈베리, 2014.
11. Pindborg J.J. and Marvitz L. : The dentist in art, George Proffer, 1961.
12. John Woodforde : The strange story of false teeth, Routledge & kegan Paul, 1968.
13. Rachel Bairsto : The British Dentist, Shire Publications Ltd, 2015.
14. Gelbier S : The Royal Colleges, the LDS and the struggles of the dental profession, Br Dent J, Vol 213(5):237-41, 2012.
15. BDJ News : Cruikshank lithograph-'Electrical Panacea'-donated to BDA museum, Br Dent J, Vol

194(7):359, 2003.

16. Susan Isaac : The Toothache: imagined by Horace Mayhew, realised by George Cruikshank, 1849, The Royal College of Surgeons of England, 2017.
17. John Trevers, Martin Orskey : A series of 18th and 19th Century Caricatures on Dentistry, Wychwood Books, 2009.

〈교신저자〉

- 권 훈
-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131, 미래아동치과
- Tel : 062-600-2540, E-mail : 2540go@naver.com

# 대한치과의사학회 회칙(1960. 10. 7 창립)

1984. 6. 30 제정

1986. 10. 14 인준

1987. 3. 11 개정, 1990. 5. 28 개정, 1995. 5. 23 개정

1999. 4. 8 개정, 2012. 3. 13 개정, 2016. 6. 21 개정

## 제 1 장 총 칙

- 제1조 본 학회는 대한치과의사학회(THE KOREAN ACADEMY OF DENTAL HISTORY)라 칭한다.
- 제2조 본 학회는 과학사 특히 치과의학사에 관한 연구를 하며, 회원 상호간의 학술적 유대와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본 학회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관에 의거하여 설립하고, 본 학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직무를 수행하는 곳에 두고, 필요에 따라 각 도 또는 광역시에 지부를 둘 수 있다.

## 제 2 장 사 업

- 제4조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집담회, 학술연구발표회
  2. 치과의학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과 연구
  3. 연구논문의 인쇄배포
  4. 해외사계와의 학술교류
  5. 회원의 친목

## 제 3 장 회 원

- 제5조 본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분된다.
- 제1항 정회원은 치과의사학에 관심이 있는 치과의사로 소정의 입회절차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 제2항 명예회원은 본 학회의 발전에 공헌이 많은 국내외 인사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추대한다.
- 제6조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제1항 본회 회칙 및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 제2항 결정된 회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 제7조 본 학회의 회칙 6조의 의무를 준수한 정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제1항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제2항 회원은 회원자격에 대한 증명을 받을 수 있다.

- 제8조 회원으로서 회비를 2년 이상 미납 시에는 임원회의 결의로서 그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 제 4 장 기 구 및 선 거

- 제9조 본 학회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고문 약간명
2. 명예회장
3. 회장 1명
4. 부회장 3명
5. 총무 1명
6. 이사 약간명
7. 감사 2명

- 제10조 본 학회는 각 시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

- 제11조 고문 및 자문위원은 회장 역임자나 덕망있는 분으로 임원회에서 추천하여 정기총회의 인준을 받아 추대된다. 명예회장은 직전회장으로 한다.

- 제12조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며 임원회를 구성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장은 임원회의 의결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제13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는 이를 대신한다.

- 제14조 총무 및 각 이사는 아래의 업무를 처리한다.

1. 총무부 : 각종 행사 진행, 회원관리, 기타 타 부서에 속하지 않은 업무 일체
2. 재무부 : 수입, 지출예산의 편성 및 본 학회의 운영에 관한 재정 업무 일체
3. 대외협력부 : 대내외적인 홍보에 관한 제반 업무
4. 정보통신부 : 전자정보통신매체를 통해 학회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제반 업무



5. 섭외부 : 대내외적인 섭외에 관한 제반 업무
6. 학술부 : 학술분야에 관한 제반 업무
7. 교육부 : 본 학회의 교육과정 편성과 교육 매체 개발에 관한 제반 업무
8. 국제부 : 국제교류에 관한 제반 업무
9. 편집부 : 학회지등 발간에 관한 제반 업무
10. 기획부 : 미래사업에 관한 기획 업무 일체
11. 정책부 : 본 학회 유관 제반 정책 연구 업무
12. 연구부 : 치과의사학 분야에 관한 제반 업무
13. 법제부 : 학회 운영관련 법률적 제반 업무
14. 총무간사 : 총무이사의 제반 업무 보좌

제15조 감사는 필요에 따라 회무 및 재정을 감사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제16조 차기회장은 현 회장 임기 종료 1년 전에 선출하며 감사는 임기말 총회 때 선출한다.

제17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도 있다.

제18조 회장단 결원 시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보선한다. 단, 그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감사의 결원이 있을 때는 최연소 고문으로 보선한다.

## 제 5 장 총 회

제19조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정기총회는 연 1회로 하되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기총회 전 1개월 이내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임원회의 결의,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회장이 소집한다.

제20조 총회는 회장이 의장이 되어 진행한다.

제21조 총회의 의결은 다수결로 결정한다. 단, 회칙의 개정은 재석 3분의 2가 동의하여야 가 결된다.

제22조 총회에서의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1항 회칙에 관한 사항
- 제2항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 제3항 감사의 보고에 관한 사항
- 제4항 사업에 관한 사항
- 제5항 임원선거에 관한 사항
- 제6항 회에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 제 6 장 임 원 회

제23조 임원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제24조 임원회는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되며 재석자의 다수결로 의결한다.

제25조 회장은 총무 및 이사로 하여금 각 부를 분담케 할 수 있다.

제26조 임원회의 의결로 필요에 따라 회장의 자문에 응할 별도 명칭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7조 임원회는 매년 정기총회에서 회무전반을 보고하여야 한다.

## 제 7 장 재 정

제28조 본 학회 재정은 회비 및 찬조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9조 회비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 제 8 장 부 칙

제30조 본 회칙에 없는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제31조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2조 본 회칙은 총회 의결 후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3조 본 학회의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정관과 제 규정 및 일반 관례에 준해 회장이 결정한다.

## 제 8 장 세 칙

1. 입회비 : 5만원
2. 연회비 : 3만원
3. 평생회비 : 10년간의 연회비

# 대한치과의사학회지 투고규정

## 1. 투고 자격

대한치과의사학회 및 편집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에 한한다.

## 2. 투고 원고의 종류

본 학회지에 게재 가능한 원고는 본 학회 설립 목적에 부합되는 치의학과 관련된 원저, 증례보고, 종설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여부를 심의 결정한다. 투고된 원고는 타지에 이미 게재된 동일 내용의 것은 불허하며 본지에 게재된 것은 임의로 타지에 게재할 수 없다.

## 3. 원고의 게재

투고예정 원고의 학문적 의의, 논리성, 창의성, 독창성 및 윤리성 등을 고려한 게재 여부 및 게재 순서는 본 학회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 수정이나 보완 그리고 일부 삭제를 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수정된 논문은 재심사하여 편집위원회가 게재 여부를 결정하며, 저자가 수정을 거부할 경우에는 게재될 수 없다. 편집위원회에서는 투고 원고 중에서 게재가 불가능한 것은 그 이유서와 함께 원고를 저자에게 반송한다.

## 4. 원고는 한글 또는 영문

한글 원고인 경우에는 가능한 모든 단어를 한글로 기록하고 번역이 곤란한 것을 영문으로 기록하며 번역어인 경우에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첫 인용 단어 다음에 괄호로 원어를 병기할 수 있다. 또한 투고규정에 없는 용어는 치의학회 용어집에 준용한다.

## 5. 원고의 첫 장

원고의 제목, 각 저자의 소속, 저자 이름, 초록, 연구비 지원 내용(필요한 경우) 순으로 작성한다. 원고의 제목은 간결하며 논리적으로 작성되어서, 원고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다. 저자는 가능한 총 5명 이내로 한다.

## 6. 연구비 지원

연구비 지원 내용은 해당되는 경우에만 한하며, 첫 장 하단에 그 내용을 기록한다.

## 7. 초록

초록은 한글 원고인 경우에는 영문 초록을, 영문 원고인 경우에는 한글 초록을 작성한다. 초록의 내용으로는 연구의 목적, 재료와 방법, 결과, 그리고 결론 등이 간결하면서도 구체적인 자료

와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분량은 한글인 경우에는 500자 이내로 영문인 경우에는 20단어 이내로 한다. 단, 약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초록 하단에 주요 단어(key words)를 6개 이내로 가나다(영문인 경우에는 알파벳) 순으로 작성한다.

## 8. 연구에 이용된 상품의 상품명을 인용

연구에 이용된 상품의 상품명을 인용할 경우에는 처음 인용 시에 상품의 이름, 제조 도시 명, 나라 순으로 괄호 안에 기록한다.

## 9. 원고의 제출

원고는 HWP 2007 이상으로 작성하며 글씨체는 신명조, 글씨 크기는 10point, 줄간격은 160으로 작성하여 페이지가 기록된 2매의 복사본과 원본이 입력되어 있는 CD 또는 file을 함께 제출한다. 원고의 양은 원저인 경우에는 15쪽, 증례 보고 등 기타 원고는 7쪽 전후로 하며 원고의 분량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수정을 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원고의 구성은 본 학회지 편집 방향에 따라 편집위원회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10. 원고의 작성 순서

원저인 경우는

- (1) 제목
- (2) 소속 및 저자명
- (3) 연구비 지원내용(필요한 경우에만 첫 장 최 하단에)
- (4) 서론
- (5) 연구 재료 및 방법
- (6) 연구 성적
- (7) 총괄 및 고안(고찰)
- (8) 결론(또는 요약)
- (9) 참고문헌
- (10) 교신저자
- (11) 그림 설명 및 그림(필요한 경우)
- (12) 초록, 주요 단어

순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상 증례, 종설 등의 원고도 이에 준하여 작성한다.

## 11. 참고문헌

원칙적으로 출판되었거나 게재 완료된 문헌만을 참고문헌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가급적 초록(abstract) 인용은 피한다. 본문 중

에서는 인용 순서대로 인용문 끝에 어깨 번호를 붙여 표기하는데 문장인 경우에는 쉼표나 마침표 뒤에, 그리고 특정 명사나 연구자 이름인 경우에는 바로 그 뒤에 번호를 붙인다. 한 인용문에서 세 개 이상 참고문헌이 제시될 경우에는 처음 문헌 번호와 마지막 문헌 번호를 ‘-’로서 표시한다(예: -라고 주장했다.<sup>3,9-13</sup>). 본문 중에서 저자는 성만 기입하는데 두 명인 경우에는 모두 병기하고 세 명 이상인 경우에는 한 명만을 명기하고 나머지는 ‘등’으로 표기한다(예: 김과 박<sup>2</sup>는, 김 등<sup>2</sup>는). 참고문헌은 결론 및 요약 뒤에 본문에서 인용된 번호 순으로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논문인 경우에는 저자명, 제목, 잡지명, 발행년도, 권(호), 페이지 순으로, 책인 경우에는 저자명, chapter제목, editor이름, 책제목, 출판도시, 출판사, 연도, 인용페이지 순으로 작성한다. 국내문헌도 영문으로 표기한다. 저자가 다섯명 이상인 경우에는 처음 세 명만 기록하고 나머지는 et al로 한다. 저자명은 성, 그리고 이름의 첫 자를 대문자로 표기한다(예: Sorensen JA, Cho IH), 가능하면 본지 게재된 논문을 2회 이상 인용한다.

예) Iwama CY, Preston JD. Cobalt-chromium-titanium alloy for removable partial dentures. *Int J Prosthodont* 1997;10:309-317

예) Hilton TJ. Direct posterior composite restorations. In: Schwartz RS, Summitt JB, Robbins JW(eds). *Fundamentals of Operative Dentistry*. Chicago: Quintessence; 1996:207-208

예) Jang JS, Jeong YT, Chung CH. Finite element stress analysis of implant prosthesis of internal connection system according to position and direction of load. *J Korean Acad Stomatog Func Occ* 2005;21:1-14

## 12. 사진

사진의 크기는 3×5 inch를 기본으로 하고 사진 뒷면에 연필로 사진 번호와 상하 구분을 사진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가볍게 기록한다. 사진은 현상도가 우수한 두 장의 광택 인화지 사진, 또는 편집이 완성된 고해상도 그림파일 형식으로 보낼 수 있다. 사진은 저자가 특별히 요구하지 않으면 반송하지 않는다. 가능한 칼라 사진은 두 페이지 이내로 제한한다.

## 13. 도표 및 그래프

컴퓨터로 작성된 것을 사진이나 레이저 프린터로 출력하여 제출한다. 손으로 그릴 경우는 조잡하지 않도록 하고, 만약 조잡하다고 판단되면 편집위원회는 반송하여 컴퓨터 그래픽으로 재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14. 사진/그림 설명

필요할 경우 다수의 사진/그림 설명은 교신저자 뒤로 배열하여 작성하고, 현미경 사진은 배율, 염색 방법 등을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 15. 사용 단위

사용 단위는 미터법을 원칙으로 하며 타 단위를 사용한 경우에는, 처음 기술 시에 괄호 안에 미터법으로 환산하여 기록한다.

## 16. 교신저자

원고의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를 영문으로 표기하여 참고문헌 다음에 기입해야 한다. 내용은 추후에 연락이 가능하도록 이름, 소속, 주소, 팩스, e-mail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한다.

예) Corresponding author

Kung-Rock Kwon

Department of Prosthodontics, School of Dentistry, Kyung Hee University, 26, Kyungheedaero, Dongdaemun-gu, Seoul, 02447, Korea

Tel: +82-2-958-9343; Fax: +82-2-958-9349

E-mail address: krkwon@khu.ac.kr

## 17. 게재료

게재료 부가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교신저자에게 신청되며, 게재료는 기본 게재료 이외에 원고 추가분량, 또는 컬러 사진 게재 등에 필요한 추가 경비가 포함될 수 있다. 별책은 저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만 실비로 제공한다.

## 18. 원고마감

원고는 매년 12월 첫째주 및 6월 첫째주까지 접수된 것을 취합하여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여부 및 순서를 정한다.

## 19. 원고 접수

원고는 이메일로 접수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대한치과의사학회 편집부

주소 : 서울시 강동구 동남로 892 강동경희대학교치과병원 치주과  
강경리 교수

Tel : 02-440-7515, Fax : 02-440-7549

e-mail : periokkl@khu.ac.kr



# 大韓齒科醫史學會 임원 명단

고 문	김정균	정 책 이 사	권 훈	이 사	이 준 규
고 문	박승오	편 집 이 사	권 훈	이 사	조 영 식
고 문	변영남	기 획 이 사	김 상 환	이 사	박 영 준
고 문	김평일	연 구 이 사	한 승 희	이 사	박 덕 영
		국 제 이 사	백 장 현	이 사	유 동 기
명 예 회 장	고 이병태	법 제 이 사	김 현 종	이 사	박 영 범
명 예 회 장	류 인 철	총 무 간 사	유 승 훈	이 사	박 용 덕
회 장	김희진			이 사	박 정 철
부 회 장	권금록	자 문 위 원	최 상 목	이 사	임 용 준
부 회 장	이해준	자 문 위 원	김 종 열		
부 회 장	이주연	자 문 위 원	한 수 부	대 학 이 사	최 성 호
총 무 이 사	김준혁	자 문 위 원	차 혜 영	대 학 이 사	강 신 익
재 무 이 사	김정석	자 문 위 원	허 정 규	대 학 이 사	김 병 욱
대 외 이 사	김성훈	자 문 위 원	홍 예 표	대 학 이 사	박 병 건
교 육 이 사	유미현	자 문 위 원	백 대 일	대 학 이 사	최 흥 란
학 술 이 사	허경석	자 문 위 원	김 명 기	대 학 이 사	이 흥 수
편 집 이 사	신유석			대 학 이 사	박 호 원
섭 외 이 사	구기태	감 사	배 광 식	대 학 이 사	이 재 목
정보통신이사	김지환	감 사	조 영 수	대 학 이 사	박 찬 진
		감 사	박 준 봉	대 학 이 사	김 성 태
				대 학 이 사	유 승 훈
				대 학 이 사	김 흥 중

## 大韓齒科醫史學會誌

Korean Journal of the History of Dentistry

2020년 제39권 제1호 통권 44호

Vol. 39, No. 1, 2020

발 행 인 : 김희진

편집이사 : 권 훈

인 쇄 일 : 2020년 6월 25일

발 행 일 : 2020년 6월 30일

발 행 처 : 대한치과의사학회

08316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로 17길 2

세브란스치과의원

전화) 02-854-0028, 팩스) 02-854-0027

<http://cafe.daum.net/denhistory>

편집인쇄 : 도서출판 의치학사

Publisher : Kim, Hee Jin

Editor-in-Chief : Kweon, Hoon

Printig date : June 25, 2020

Publication date : June 30, 2020

Published by : The Korean Academy of Dental History

2, Gurodong-ro 17-gil, Guro-gu, Seoul 08316

Severance Dental Clinic

Tel : +82-2-854-0028, Fax : +82-2-854-0027

<http://cafe.daum.net/denhistory>

Edition & Printing : Dental and Medical Publishing